# EVALUATING HOMOPHOBIA EMBEDDED IN KOREAN AMERICAN CHRISTIAN JOURNALISM IN LOS ANGELES: A PUBLIC THEOLOGICAL INVESTIGATION

# 로스앤젤레스 한인 크리스천 저널리즘에 내재된 동성애 혐오증 평가: 공공신학 연구

A Professional Project

presented to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by

Jeongyeon Catherine Lim

May 2019

This Professional Project completed by

**Jeongyeon Catherine Lim**

has been presented to and accepted by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of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Faculty Committee**

K. Samuel Lee, Chairperson

Namsoon Kang

**Dean of the Faculty**

Sheryl A. Kujawa-Holbrook

May 2019

# ABSTRACT

## EVALUATING HOMOPHOBIA EMBEDDED IN KOREAN AMERICAN CHRISTIAN JOURNALISM IN LOS ANGELES: A PUBLIC THEOLOGICAL INVESTIGATION

by

Jeongyeon Catherine Lim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ontents of the Christian journalism published in LA, this study points out the absence of the diversity of public subjects and equal viewpoints that becomes the issues of globalization, and defines the causes and mechanism about the consequently followed negative results in the way of thinking dualistic paradigm. It is emphasized that the way of thinking of dualistic paradigm not only enforces the Christian lives to be excessively dependent on churches and individual religions but also causes indifference toward distorted concept of divine nature and social public subjects and stops the practical action of social participation and causes the negative results of discrimination and separation. In addition, the way of thinking of dualistic paradigm indwelling in Christian journalism is confirmed that it reinforces these negative results, and its peak is obviously disclosed in the contents of radical opposite stance and hatred against homosexuality. In this context, this study suggests the doubt about the existing common idea on homosexuality that has been taken for granted and searches for multilateral and equal viewpoints along with objectification about homosexuality through new bible reading. For this, public theology is taken as the theoretical foundation, and the necessity to reinterpret the subjects in discrimination and inequality that have been divided in sacred and profane including religion and sex should be recognized. Furthermore, this study claims that the universal love for humanity and the equal viewpoints shall be provided

as the public sphere, and the functions and roles shall be reinforced as a public press that puts all communities together and achieves a bond of sympathy.

KEYWORDS : The Way of Thinking of Dualistic Paradigm, Public Theology, Public Sphere, Equal Viewpoint, Homosexuality

국문 초록

로스앤젤레스 한인 크리스천 저널리즘에 내재된 동성애 혐오증 평가: 공공신학 연구

by

Jeongyeon Catherine Lim

본 논문은 LA 에서 발행되는 기독 저널리즘의 내용 분석을 통해 세계화 시대에 대두되는 공적 주제의 다양성과 평등적 시각의 부재를 지적하고 그로 인해 파생된 부정적 결과에 대한 원인과 기제를 이원론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으로 규정한다. 이원론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은 기독교인들의 삶이 교회와 개인 신앙 중심으로만 지나치게 치우치게 하며, 왜곡된 영성 개념, 사회의 공공 주제에 대한 무관심과 사회 참여의 실천적 행위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특정 주제에 대한 문자적이고 편협한 성서 해석으로 차별과 분리라는 부정적 결과물을 야기하는데 있어 그 중심에 있음을 주목한다. 더불어 기독 저널리즘에 내재되어 있는 이원론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은 이러한 부정적 결과물들을 강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정점은 동성애에 대한 극단적인 반대 입장과 혐오의 내용들에서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에 본 논문은 당연시 여겨졌던 동성애에 대한 기존의 통념들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새로운 성서 보기를 통해 동성애에 대한 객관화 작업과 함께 다각적이고 평등적 시각의 관점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공공신학을 그 이론적 틀로 삼고, 종교와 성을 포함해 성과 속으로 분리되어져 차별과 불평등의 자리에 있었던 주제들에 대한 재해석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더불어 기독 저널리즘이 열린 공론장으로서

기독교의 보편적 인류애와 평등적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공동체들을 아우르며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공적 언론 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주장한다.

KEYWORDS: 이원론적 패러다임의 사유방식, 공공신학, 공론장, 평등적 시각, 동성애

국문 요약

본 논문은 기독교의 실천적 대안의 하나로 평등적 시각을 통한 다양한 공동체의 상생을 지향하기 위해 LA 에서 발행되는 기독 저널리즘의 공적 언론기관으로서의 평등적 시각을 반영한 공적 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기독 저널리즘은 공적 언론 기관으로서 한인 사회 내에서 다양한 공적 이슈에 대한 공정성과 독자들의 알 권리를 대변하고 사회 안에서 열린 공론의 장으로서 기독교의 공공성, 사회 구성원으로서 교회 공동체 그리고 독자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독려해야 할 역할이 요구된다. 특히 미국 주류 사회 안에 존재하는 한인들과 더불어 한인 이민 교회와 미국 사회내에서 야기되고 있는 다양한 불평등과 차별의 상황을 드러내 공론화시킴으로써 문제점과 대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언론 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주에서 발행되는 한인 기독 저널리즘들의 주제들은 지나치게 교회 중심적이고 개인적 신앙에 치우친 주제로만 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교회와 사회의 분리와 차별 그리고 불평등 구조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러한 한인 기독 저널리즘의 내용들은 기독교의 통전적이고, 평등적인 인간 이해와 더불어 사회와 교회의 연합과 소통의 긍정적인 면을 전적으로 차단한다고 사료된다. 특히 기독 저널리즘에서 교회들은 물론이고 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동성애에 관련 내용들은 지나치게 부정적이고 혐오적이었으며, 동성애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다각적 접근 방식, 전문가적 의견들은 거의 배제되었다. 나는 기독 저널리즘에서 동성애라는 한

주제에 대해 이토록 한인 교회들의 통일된 부정적 목소리에 그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었다. 선험적 연구를 통해 본 동성애에 관한 내용들은 보편적 인류애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으로 보였고,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혐오 반응은 그 위험 수준을 넘고 있었다. 또한 동성애 자체를 인류 최대의 적이자 죄악으로 치부하는 표현들은 기독 저널리즘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과히 충격적이었다. 더불어 기독 저널리즘의 전반적인 주제들과 내용들은 세계화 시대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공 주제들에서 벗어나 있었고, 교회와 사회를 잇는 접근 방식에 대한 어떠한 대안과 의견도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기독 저널리즘의 선교적 특수성 조차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세계화 시대가 필요로 하는 상생과 소통을 이루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에 나는 기독 저널리즘의 부정적 결과물에 대한 원인에 대해 주목했고 그 원인을 기독 저널리즘에 내재되어 있는 이원론적 패러다임 사유 방식이라 규정한다. 이 사유 방식은 공동체를 향한 다양하고 평등적 시각을 상실케하며, 기독교 신앙의 사사화와 주변화를 야기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더불어 분리와 차별의 불평등적 구조의 형성은 물론, 다양한 폭력과 인권 침해의 심각한 문제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 또한 크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공적 언론 기관인 기독 저널리즘에 내재하고 있는 이원론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의 내용들을 구체화하고 이로 인해 초래된 부정적 결과물들을 드러냄으로써 이원론적

패러다임의 해체의 필요성과 교회의 공공성 회복과 기독 저널리즘의 다양한 공동체에 대한 평등적 시각을 통한 공적 기능의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구성은 1 장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연구 목적과 의의를 설명하고, 2 장에서 질적 연구의 방법을 통해 미주에서 발행된 한인 기독 저널리즘을 분석함으로써 극단적인 분리와 차별이 절정을 이루는 동성애 관련 내용에 내재되어 있는 이분법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의 부정적 결과물들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3 장에서는 이분법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으로 인해 파생되어진 차별과 불평등한 현상화에 대해 살펴본다. 역사적으로 이분법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은 인간의 복합적인 요소들을 단적으로 해석하고 이분법적으로만 분류함으로써 인간의 통전성과 다양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 이와 동시에 이분법이라는 관념이 종교의 이데올로기와 접목하면서 성과 속의 분리를 조장했고, 참된 영성에 대한 이해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편, 이분법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에는 힘의 원리가 작용해 이분법 구조의 종교화는 사회 질서를 통제하고 유지하는 기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성차별적 구조의 생산은 물론 사회 전반의 폭력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물을 양산했음을 지적한다.

4 장에서는 이원론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의 기원과 유래를 통해 특수한 사회적 상황과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이원론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대 사회의 상황에서 요구되어지는 평등적 시각을 위한 탈이원론적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5 장은 앞장에서 살펴본 기독 저널리즘의 내재된 이원론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이 공동체의 다양성을 위협하고 공적 언론 기관으로서의 기독 저널리즘의 공적 기능과 역할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임을 통해 이분법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의 해체 필요성에 있어 그 신학적 준거의 틀로 '공공신학'을 채택한다. 공공신학은 기존의 정치와 종교 간의 공적 그리고 사적 기능의 분리가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슈를 모두 아우르는 기독교적 대안을 제시한다. 이는 종교가 사적 영역으로만 제한되지 않고 공적 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를 모색하게 함과 동시에 올바른 기독교적 윤리를 통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다 균형적이고 평등적 시각을 교회와 독자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한다. 더불어 공공신학은 공적 언론 기관인 기독 저널리즘이 세계화 시대에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한다.

6 장에서는 공공 신학의 주요 관점인 교회와 사회의 상관 관계에 있어 공존과 소통이 공적 언론 기관으로서의 기독 저널리즘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부분임을 명시하면서, 공공성과 공론의 장으로서 모든 공동체를 향한 평등적 시각이 기독 저널리즘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 반드시 반영되어져야 함을 재강조한다. 이를 위해 공공신학적 관점을 통해 기독 저널리즘의 변화를 위한 실제적이고 실천 가능한 실제적인 대안점들을 제안한다.

7 장에서는 공공신학의 이론적 틀을 토대로 기존의 부정적인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이고 혐오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평등적 시각이 반영된 다각적인 성서 해석 과

시대적 상황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부정적인 기독교의 통념으로부터 동성애를 객관화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8 장은 결론장으로 1 장에서 7 장까지의 모든 논의를 정리하며 공적 언론 기관으로서의 기독 저널리즘이 독자들에게 다양한 공동체에 대한 평등적 시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다. 더불어 언론 기관으로서의 세계 속의 공적 이슈에 대한 열린 공론의 장으로서의 변화의 필요성과 그 책임을 촉구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Chapter I
# 서론(Introduction)

## A. 연구배경

모든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문화, 종교, 관습과 전통 등 규정되어진 환경 속에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오랜 시간 동안 공동체들을 유지해 온 전통들과 규범들은 거대한 담론과 이데올로기를 내재한 채 인간의 역사 속에 체제와 질서를 유지하는 기제로 사용된다. 오랜 시간 익숙해진 기존의 통념과 질서는 현실의 변화를 쉽게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에서 파생되어진 불공평과 불평등에 대한 수 많은 구조들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간과하게 만든다. 때로는 오랜 시간 동안 축척되어 왔다는 이유만으로 옳고 바르다고 착각하는 우를 범하게 하며 비단 상식에 벗어난 그 무엇인가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하기도 하며 신앙이 사적인 것이라 치부하며 공공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나는 위에서 언급한 부정적 기제로 한 쪽의 의미만 강화되어 다른 이면을 볼 수 없도록 만드는 원인을 이원론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이라 규정한다. 또한 이러한 이원론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이 비단 종교 뿐만 아니라 성의 역할 문제에 있어서도 그 부정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음을 주목하고 앞으로의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나는 한국에서 보수 기독교 목회자의 장녀로서 주어진 규범과 가르침 안에서 성장했고 그러한 규범과 가르침은 성장하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돌이켜 보면 나에게는 한국 여성들에게 주어졌던 행동 양식과 기독교인로서의 보수적 신앙 지침이 함께 더해져 보다 이중적으로 강화된 여성에 대한 규범들에 의해 규정되어졌는데 이러한 규범들에는 철저한 이원론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이 내재해 있었음을 깨닫는다. 이렇게 강화된 규범들은 내 삶의 주체로서 나의 정체성을

스스로를 찾고 정립하기 보다는 규정되어진 규범의 틀에 맞는 나를 만들어내는데 안간 힘을 쏟게 만들었고, 이러한 규범에 의해 학습되어진 나는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다른 행동 양식에 대한 편견 및 거부감 그리고 이질감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렇듯 '다름'에 대한 나의 부정적 생각과 태도는 기독교 안에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리고 가정 안에서는 가부장제에 적합한 여성이었고 이러한 규정은 성장하면서 더욱 단단하게 굳어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캘리포니아라는 새로운 삶의 자리는 한국에서 규정되어지고 습득되어졌던 '다름'에 대한 부정적 생각과 태도에 변화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되었고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규정이 나의 수식어가 되었다. 소수 이민자인 한국계 여성! 이제 나는 새롭게 규정되어진 나와 과거 한국에서 규정되어진 나 사이에서 어떤 변화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 변화는 나에게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만들었다. 고립이냐? 아니면 상생이냐?. 이렇듯 이민이라는 새로운 환경은 과거에 이미 규정되어진 "나"로부터 새로운 "나"를 발견케하는 삶의 자리를 가능케 했다. 나는 타민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화와 다른 삶을 배우고 이러한 다양성에 노출된 나는 여전히 내 안에서 학습되어진 과거의 전이해들과 전통적 규범들 안에서 여전히 충돌과 갈등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나와 타인들의 기존 통념을 깨고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합의를 찾아내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은 내 안의 잠재되어 있던 새로운 나를 발견케 한다. 나는 현재 한인 라디오 방송사와 비영리 기독교 단체에서 사역하고 있다. 방송인이라는 직업은 사물과 사건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일깨워주며, 공동체 사역은 다양한 연령, 직업 그리고 종교인들이 함께 어울려 삶의 다양성을 나누고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된다. 그런데, 최근 들어 나의 방송과 공동체 사역 안에 이민 생활의 다양한 차별과 불공평을 경험한 모두가 첨예한 대립을 이루며 그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주제가 있다. 바로 '동성애' 이다. 동성애 관련 주제들에 대한 공동체원들의 반응은 교회에서 공론화 하기에는 아주 예민한 그리고 열린 토론의

불가능을 공통적으로 언급했다. 공동체원들의 반응이 전 한인 교회를 대변한다고 가정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한인 교회들의 동성애에 대한 반응을 감지할 수는 있었다. 공동체에서 이슈화 되어진 동성애를 다루면서 과거의 나를 되돌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또 '다름'을 '틀림'으로 또는 옳고 그름의 잣대로만 해석해 왔던 수 많은 기억들이 동시에 밀려 왔다. 사실, 동성애에 관한 주제는 나의 공동체 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서 가장 뜨거운 주제이다. 이렇게 뜨거운 이슈라는 의미를 역으로 생각하면 큰 이질감과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겠다. 엄밀히 말하자면, 동성애의 이슈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한 아주 중요한 존재론적 질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단 '동성애'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또는 동성애의 합법화가 옳다 아니면 그르다의 찬반 양론의 문제로만 치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기독교 내에서 한국 보수 단체들의 '동성애' 에 대한 반응은 거의 부정적이다 못해 혐오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동성애의 합법화'에 동의하는 자들은 불신앙자이며 거룩하지 못하고 , '동성애 합법화'에 대해 반대를 주장하는 자들은 성서 중심적이며 신앙이 돈독하다는 인식들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해석들과 반응들은 과거 내가 한국에서 경험하고 규정되어진 것들을 판단했던 경험들과 아주 흡사했다. 과거에 나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들을 조장하는 사유 방식에 대한 심각한 문제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이러한 사유 방식이 당연시 여겨지는 것과 감추어진 것의 진실을 보지 못한 채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러한 사유 방식을 지닌 내가 차별과 폭력 또 다른 권력 구조를 형성할 가능성을 열어두게 된다는 것과 인간으로서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나 그 이해를 위한 노력이 결여되고 다름을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차이를 차별로 조장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는 생각에도 미치지 못했었다. 특히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공적 언론 기관에서 이러한 사유의 접근 방식으로 동성애에 대한 보도를 한다면 여론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도 갖지 못했던 것을 되돌아 본다. 그러나 이제 나는 방송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부정적 파급 효과에 대한 책임을 외면할 수 없음과 목회자로서 나의 공동체와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해야 하는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 이러한 깨달음들을 통해 나는 먼저, 각종 미디어들을 통해 동성애에 관한 자료들을 살펴보았고, 특히 한인 사회에서 보급률이 가장 높은 한인 기독 저널리즘에 관심을 두고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선험적 연구를 통해 LA 에서 발행되는 한인 기독 저널리즘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했던 동성애에 관한 한국 기독교의 보수 단체들의 혐오적인 내용들이 기독 저널리즘을 통해 독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한인 기독 저널리즘은 이민 사회 특성상 한인 교회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한인 교회는 이민 생활의 향수를 달래며 한국인들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었으며, 특성상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한인 교회들의 소식들을 독자들에게 전하고 각 교회들을 연결시켜 주는 일은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기독 저널리즘의 국소적인 필요성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교회의 소식지로서의 기능과 역할에만 그치고 있다고 사료된다. 기독 저널리즘의 편집 내용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데, LA 에서 발생되는 모든 기독 저널리즘의 편집 구성이 교계와 교회 행사 소식, 교회 광고가 다수의 지면을 할애했고, 교회 생활의 지침 또는 목회자들의 동정, 소개, 교회 생활 지침이 주를 이루는 사설과 컬럼이 전부였다. 이는 기독 저널리즘이 공적 언론 기관으로서의 기능 보다는 단지 교회의 전단지나 광고지의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며 더불어 기독 저널리즘이 공적 언론에서 사용되는 용어들과 주제들은 세계화 시대의 인간에 대한 통전적인 가치관과 세상과의 소통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한 평등적 시각의 기독교적 윤리를 찾아보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었다. 물론

종교적인 주제들이 중심을 이루는 것은 기독 저널리즘의 특수성이라 말할 수 있겠으나 공적 언론 기관으로서의 기독 저널리즘의 내용들이 단지 교회 중심의 주제와 주장들로만 제한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고민해야 할 공적 이슈들에 대해서 외면하거나, 지나치게 교회 중심적 주장만을 고집한다면 독자들과 사회로부터 스스로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또한 공적 언론 기관이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불평등과 소외된 자들의 목소리, 사회의 차별 구조의 근절과 평등을 위한 사회 구조의 변화를 촉구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회피한다면 공적 언론 기관으로서의 기독 저널리즘의 기능과 역할은 철저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이처럼 기독 저널리즘이 공적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근본 원인을 앞서 언급한 이분법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으로 규정하고 역사 속에서 이분법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의 다양한 부정적 결과들을 살펴봄으로서 그 해체의 필요성이 시급함을 시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공 신학을 이론적 틀로 제시함으로써 한인 기독 저널리점이 보다 평등적 시각을 통한 세계화 시대에 평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적 언론 기관으로서 본래의 기능과 역할 회복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B.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1. 문제제기

미주 LA 에서 한국어로 발행되는 기독 저널리즘은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무료로 배포되며, 세 개의 신문사에서 정기적으로 기독 신문들이 배부되고 한 달에 2 번씩 발간된다.[1] 또한 기독 저널리즘은 한인 이민 교회와 한인들의 상업 지역에 무료로 배송된다.[2] 이와 더불어 LA 에서 한인들이 모이는 공공 장소에 무료로 배포되는 한국어로 제작된 종교 관련 신문은 기독교계가 주를

[1] 미주 LA 에서 발간되는 크리스천 위클리, 기독 일보, 미주 크리스천 일보를 중심으로.

[2] 현재 LA 에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저널리즘은 기독 일보, 미주 크리스천 그리고 크리스천 위클리이다.

이루며 불교나 다른 종교의 신문은 찾아보기 어렵다.[3] 이는 한인 이민 사회 내에서 기독 저널리즘이 타종교에 비해 독자들에게 쉽게 전달될 수 있는 사회적 매개체라 할 수 있다. 나는 선험적 연구로서 LA 에서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기독 저널리즘의 내용들을 아래와 같은 질문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1)각 기독 저널리즘의 주제가 독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이를 위한 다양한 정보와 의견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2)각 주제에 대해 불평등적, 부정적, 불균형적 구조를 드러내며 기독교의 참된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지 3)저널리즘의 내용들이 다양한 주제와 다각적 관점과 평등적 시각과 더불어 적절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4) 세계화 시대에 독자들이 기독교적 평등 의식과 상생의 인식을 선도하며 사회 내에서 평등적 공동체를 형성하기에 적합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5)평등 공동체 형성에 따른 여론 형성을 위한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안타깝게도 위의 질문들을 통한 기독 저널리즘에 대한 나의 선험적 결과는상당히 회의적이었다. 기독 저널리즘의 전반적인 내용들은 사회적 분화 현상과 함께 교회의 사사화와 개인 구원에만 촛점한 신앙 행태를 부추기 있었으며, 한국 기독교와 교회의 평등공동체를 향한 성숙된 인식과 성장을 방해해 왔다는 부정적인 면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에 한인 기독저널리즘의 기능과 역할이 종교적 한계를 넘지 못하고 공적 언론 기관으로서 사회의 평등적 공동체에 대한 인식과 여론을 이끌어내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더우기 게재된 기사들의 주제 또한 지나치게 교회 안의 한정적 범주에만 속해 있어 교회 중심적인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일으키기에는 큰 무리가 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모든 사항들은 단적으로 교회 내의 분열과 갈등에 대한 이슈들 뿐만 아니라 사회의 공적 이슈에 대해서도 독자들의 다양한 관점과 문제

[3] 불교 신문은 2012 년 처음으로 미주한국불교 총람과 불교인 업소록을 발행하였다. 현재는 온라인 포털사이트만 운영함. www.koreanbuddhism.us/donation.html. 천주교는 미주 카톨릭 신문사가 있지만 이 는 한국의 카톨릭 신문사가 미주에 지사를 낸 것이다.

해결을 위한 토론을 이끌어내는 공론장으로서의 역부족과 함께 통전적인 관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공적 언론 기관으로서의 실천적 행위에 있어 교회와 독자들에게 한인 사회를 포함한 세계 전반에 중요하게 제기되는 이슈들에 대해 평등 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적절한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의 장으로서의 공적 역할이 상실되어 있으며, 공적 언론 기관으로서의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 그리고 적극적인 양론의 논평 행위도 없이 편파적이며 소수의 목소리가 외면되고 있었다. 나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 원인을 기독 저널리즘의 내용 안에 깊숙히 내재하고 있는 이원론적 패러다임의 사고 방식으로 인한 결과라고 본다. 이원론적 패러다임의 사고 방식은 개인구원 중심의 기복 신앙의 양태를 부추기고, 타민족과의 소통 부재뿐만 아니라 다양성의 이해와 평등적 시각을 형성하는데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여성학자 정희진은 이분법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의 핵심은 위계를 대칭으로 위장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은폐한다고 강조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대립하는 두 항목 외에 다른 존재나 사고의 출현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며, 남성과 여성의 구분은 이분법적 패러다임의 사고 방식의 원형으로서 모든 언어의 모델, 척도, 기원, 전형으로서 인류를 지배해 왔다고 지적한다.[4]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은 이분법적 논리가 인간의 지식 전반의 구성원리이며 사실상 그 다름의 의미는 위계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이분법이 부정적 기제로 사용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분법은 두 가지의 다른 의미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인식의 절차이자 과정이라고 설명한다.[5] 그러나 문제는 두 가지 다른 의미는 사회적인 것은 계급, 인종, 연령, 성별 등 다양한 권력이 개입하고 관련을 맺으며 작동하는데 특히 근대화, 제국주의화 과정에서 백인 남성들 자신을

[4] 정희진, *양성 평등에 반대한다* (서울: 교양인, 2017), 30.
[5] 정희진, *양성 평등에 반대한다,* 32.

기준으로 삼아 백인 남성이 보편, 일반, 진리, 기준으로 작동하고 그들과 다른 것은 인간 외로, 다른 범주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더 나아가 차이를 통해서만 드러나는 의미는 언어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만드는 사람에 의해 차이가 드러나고 그 차이가 언어를 만드는 권력의 논리에 근거한다면 이는 차별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더우기 대립적인 구조의 대입은 그 다양성, 복합성 그리고 통전적인 사고를 마비시키고 이로 인해 차별과 불평등을 조장하는 직접적 원인이 된다. 즉, 남성과 여성, 이성애와 동성애, 장애인과 비장애인, 성과 속, 죄인과 의인, 결혼과 이혼, 출산과 비출산, 육과 영이라는 이분법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은 이외의 다른 존재나 다른 사고를 인정할 수 없게 만든다. 특히 종교에 있어서의 이분법적 패러다임 사고 방식에 따른 성서 해석에 있어 그 위험성과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 결과는 매우 크다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교회의 사사화와 주변화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사회 내에서의 분리와 차별의 구조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당화함으로써 세계화 시대 안에서의 상생과 평등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상당히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정적 기제인 이원론적 패러다임의 사고 방식이 내재된 기독 저널리즘의 내용은 상당히 편파적이며,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라 하기 어렵고 더우기 독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는 공적 언론 기관으로 로서 그 기능에 충실하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나는기독 저널리즘의 내용 전반에 흐르고 있는 이분법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이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상생과 공존 그리고 평등적 관점이 상실되어 있음에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이민 사회 속에서 한인 기독 저널리즘의 존재가 세계화 속에서 다양한 공동체들이 상생하는데 그 토대가 되고, 사회적 삶으로 연결시키는 중요한 매개체로서 대중과의 소통의 장으로서 그 차이를 인정하는 평등적 시각을 회복하는데 실천적 대안이 되고자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기독

저널리즘의 '동성애'에 대한 기사들을 중심으로 기독교의 참된 정신과 그 의미들을 희석시키고 분리와 차별의 구조를 형성하는 이원론적 패러다임의 사고 방식을 드러냄으로써 독자들에게 인간에 대한 보편적이며 평등적 가치와 통전적 인격으로서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이 요구됨를 알리고자 한다.이를 위해서 기독 저널리즘에 만연되어 있는 이원론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의 해체를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기독 저널즘이 소통과 대화의 중추적 역할과 교회와 세상을 이어줄 수 있는 가교적 기관으로서 기능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기독 저널리즘이 교회라는 한정된 주제에서 벗어나 공적 언론 기관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이르기까지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야기되고 있는 갈등과 차별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론장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회복하게 한다. 이를 통해 사회에서 빚어지는 수많은 차별과 갈등들에 대해 화해를 촉구하고 건강한 기독교 윤리를 제안함으로써 이민사회의 대변자로서 사회와 교회,독자들에게 그 존재의 필요성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C. 연구 방법과 연구 범위

나는 앞에서 기독 저널리즘의 공적 기능 상실에 있어 다양한 평등 공동체에 대한 관점을 저해하는 직접적 원인이며 차이가 아닌 차별적 구조를 형성하는 부정적 기제의 원인을 '이분법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라 명명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독 저널리즘에 실린 전체적인 내용 분석을 통해 기독 저널리즘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이원론적 패러다임의 사고 구조를 가시화하고자 한다. 특히, LA 에서 발행되는 기독 저널리즘에 실린 동성애에 관한 부정적이고 혐오적인 내용의 기사들을 중심으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이며 그 근거의 원인 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이러한 구체화의 과정을 통해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주장들에 대해 좀 더 다각적 관점의 접근과 해석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한다. 질적

연구 방법은 기독 저널리즘의 전반에 내재하는 이원론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과 그 정점을 이루는 동성애의 내용의 구체화 작업에 직접적 도움이 된다. 질적 연구는 사회적 실체와 현상이 어떻게 해석, 이해, 경험되고 생성되는가에 관심을 두고 풍부하고, 상황적이며, 세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성숙한 이해를 창출해 내는 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점에서 피상적인 유형, 추세나 상관관계의 묘사보다는 '본질적인' 형태의 분석과 설명을 보다 강조한다.[6] 질적 연구의 특징은 해석주의적, 귀납적, 자연스러운 상황, 정황적, 관찰자의 개입등이 있다. 이는 피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모든 상황에서 그 상황을 발생시키는 근본 원인에 대해 보다 깊게 연구하려는 시도이다. 질적 연구에서도 통상적으로 일정한 형태의 양적 기법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통계적인 분석이 핵심적인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질적 연구에 있어서 질적 자료 분석 방법은 분류 준거에 따라 여러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7] 자료 수집에서의 연구자의 입장, 수집된 자료의 유형(문서 자료, 참여 관찰 자료 등), 인식론적 입장(해석적 접근의 차이), 주관성 분석, 수량화 분석등 4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본 연구에서는 논문의 특성상 질적 연구의 자료분석 방법 중 문서자료와 수량화 분석을 사용하려 한다. 이 분석 방법은 기록 자료에 대한 내용 분석과 연구 자료의 양이 방대할 때 유용하게 적용된다.[8] 이 접근의 특징은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자료가 완전히 수집되어 있어야 하고, 분석을 위한 부호화 틀이나 분류틀을 구상한다는 것이다. 이 분석 방법은 언어, 문자, 시각적 텍스트의 내용에 대하여 ' 객관적' 설명을 만들어 내는 방법이다.[9] 문서의 분석은 사회 조사에서 널리 활용되는 방법의 하나이며, 많은 질적 연구 자들에 의해서 유용하고 적절한 연구 전략으로 간주되며 문서를

[6] 제니퍼 메이슨, *질적 연구 방법론,* trans. 김두섭 (서울: 나남, 2010), 21.
[7] 신경림 et al.,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4), 158.
[8] 신경림 et al., *질적 연구 방법론,* 172.
[9] 신경림 et al., *질적 연구 방법론,* 173.

활용하여 자료를 창출하는 방법은 단순히 역사적 문헌을 뒤지는 것을 의미하지 만은 않으며 다양한 방법이 있다. 더불어, 공적 언론 기관인 기독 저널리즘의 이원론적 패러다임 사유 구조의 해체를 통해 공공성의 주제들을 교회와 소통시킬 수 있는 실천적 노력의 일환으로 "공공신학"이라는 신학적 연구에 유의하고자 한다. 공공신학은 공적 영역과 공적 이슈들에 대해 종교적 영향력을 배제시키지 않는 것과 그 맥락을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10] 다시 말하면, 공공신학은 과거 종교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연관성과 상호 보완적이며 사적으로 치부되었던 종교와 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실천 신학적 이론을 제시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공신학은 지금의 교회와 기독교의 공적 참여도를 강화하고 다양한 공동체의 상생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만한 타탕한 이론적 근거가 되며, 기독 저널리즘이 공적 언론으로서의 평등적 공동체를 지향하는 공적 기능과 그 역할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공공신학을 통해 공적 언론 기관으로서의 기독 저널리즘이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공적 주제에 대한 평등적 시각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관점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며, 특히 현 시점에서 가장 이슈화가 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기존의 기독 저널리즘의 내용들을  공공신학의 관점에 비추어 다시 보기를 시도 할 것이다.

이형기는 그의 저서 *하나님나라와 공적신학* 에서 과거 한국 개신교가 국가의 공적인 책임들을 수없이 많이 수행해 왔음을 밝히고 있다.[11] 과거 한인 이민 사회에서의 교회의 역할은 한국인의 정체성 확립과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감당해 왔으며 교회의 공적 역할의

---

[10] 리처드 아스머, *공적신앙과 실천신학*, trans. 연세기독교교육학포럼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16.

[11] 이형기, *하나님 나라와 공적 신학*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9), 17.

한국의 개신교는 계몽차원에서 민족의 희망이었고, 한글을 보급하였으며, 최초의 근대식 병원을 세웠고, 평등사상을 고취하였으며 교육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일우이처제와 여권신장에 힘써 왔고, 3.1 운동등과 같은 나라 살리기 운동에도 동참하였으며, 반신사참배운동도 일으켰다. 나아가서 1970 년대 반독재운동과 1980 년 남북 평화통일 운동에도 앞장섰다.

중심에는 신문이 있었다.[12] 교회는 공적 기능 확대의 도구로 언론을 사용했으며 언론은 당시의 교회의 입장과 교회의 평등적인 사고를 민중들에게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더불어 국민의 계몽과 국가 존립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다름 아닌 신문의 역할이었다.[13] 사실상, 한국사 안에서 당시 기독교와 교회는 신문이라는 언론의 힘을 통해 사회의 공적인 부분에 관심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공적 관심사가 신문을 통해 민중들의 소통을 가능케 하고 평등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D. 연구의 독창성 및 한계성

본 연구는 한인 기독 저널리즘의 내재되어 있는 이원론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을 동성애 합법화라는 주제를 통해 드러냄으로서 만연해 있는 기독교와 교회 내의 불평등한 구조와 차별적 시각에 대해 재고해 보고자 하는데 그 독창성이 있다. 특히 교회 내에서 공적으로 거론하기를 꺼려하는 동성애에 관한 주제를 중심으로기독교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이원론적 패러다임의 사유방식을 시각화함으로서 이로 인한 부정적 결과의 심각성을 인식케 하며,평등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탈이원론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의 필요성을 공공신학의 특성들과 접목시킴으로써 미주 한인 사회 내의 평등적 시각을 통한 공적 주제에 대한 열린 공론의 장으로서 공적 참여와 사회와 소통을

---

[12] 김민남 et al., *새로 쓰는 한국 언론사* (서울: 아침, 1993), 79.

1986 년 4 월 7 일에서 1899 년 12 월 4 일까지 발행된 독립신문은 한국의 최초의 민간신문이며 이 신문은 당신 조선과 외부세계를 잇는 교량 역할을 해냈다. 조선에 관심을 가졌던 외국인들에게 조선의 사정과 상황을 알리면서 조선의 모습을 이해시키는 구실을 수행하였다. 119; 신문의 논설에는 애국애족, 자주독립, 국가번영 학문의 발전과 생활의 합리화를 일기 위한 교육, 민주와 평등사상, 도리의 양양, 국민적 단결의 촉구, 중상모략의 폐풍 시정, 사회적 기여이 강조, 기타 좋지 못한 민족적 성격의 개선, 문명개화, 경제발전, 기타 힘의 증가, 관료들의 횡포와 부정부패를 규탄하고 준법, 공정의 사회적 풍토 조성, 외세 경계등으로 요약된다.

[13] 김민남 et al., *새로 쓰는 한국 언론사*, 129. (1897 년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죠션크리스도인회보"를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가 1897 년 4 월 "그리스도 신문"을 창간하여 교회소식과 계몽형 기사를 게제하여 오늘날의 종합 일간 신문과 같은 언론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들 신문은 근대 신문의 효시가 되었으며 기사 내용은 기독교 선교뿐만 아니라 정치, 법률, 농업, 공업, 상업 등 일반사회 문제로 내용이 다양했다. 또한 편집 부문에서도 당시의 일반종합 신문들을 압도하는 것이라는 훌륭한 평가를 받기도 했다.)

위한 기관으로의 회복을 제안한다. 더불어 이분법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으로 인한 평등적이며 통전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구체적인 원인들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세계화 시대에 보다 성숙하고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성숙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실천적 성장에 기독 저널리즘이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논문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한편, 본 논문의 한계점은 LA 에서 발행되는 한인 기독 저널리즘의 내용만을 중심으로 하여 자료에 대한 제한성과 공공 신학에 대한 접근 방법이 한인 교회의 실정에 맞추어 충분히 토론되어지고 공론화 되어지는 과정이 짧고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사실에 있어 그 이론적 한계를 드러낸다. 더불어 한국 교회와 기독 저널리즘의 내용에 내재되어 있는 이분법적 패러다임의 사고 해체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피력한다 하더라도 현 한인 기독 저널리즘의 발행사들의 실천적이고 적극적인 변화가 바로 있거나 교계와 독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기대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 하겠다.

## Chapter II
## 기독 저널리즘에 내재되어 있는 이원론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

나는 LA 에서 발행하는 기독 저널리즘에서 극단적 이원론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을 가시화하기 전에 전반적인 기독 저널리즘의 편집과 내용에 있어 이원론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이 어떻게 내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세 가지 기독 저널리즘의 편집면에서 보면, 공통적으로 국내 소식과 교계 소식, 사설과 컬럼 그리고 광고란으로 거의 비슷한 양식을 보이고 있다. 국내 소식은 일반 저널리즘에 실린 미국 내 기사들을 간략히 요약하고, 교계 소식은 교회, 신학교또는 교회와 연관된 단체들의 행사 소식들을 정리한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세 기관의 기독 저널리즘이 모두 사설과 컬럼에 다수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 사설과 컬럼의 종류 또한 상당히 다양했다. 나는 기독 저널리즘은 왜 이토록 많은 사설과 컬럼에 신문의 지면을 할애하는지의 의문점을 제기하고, 사설과 컬럼의 다양한 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기독교적 대안과 방향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을 준비하기 시작한 2015 년, 미주에서 발행된 세 곳의 기독 저널리즘에 게재된 대부분의 기독 저널리즘의 사설과 컬럼들의 주제와 내용들은 교회 생활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었으며, 개인 중심의 신앙 생활과 교회 생활의 지침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전부였다해도 과하지 않다. 나는 이런 사실을 통해 기독 저널리즘의 사설과 컬럼의 기능과 목적이 무엇인 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신문 기사의 장르를 크게 구분하면 보도문과 사설과 컬럼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보도문을 단순히 객관적 사건을 작성한 기사라 정의한다면 보도문 보다 주관성이 높은 사설과 컬럼은 독자들의 의식 변화와 시사성 있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여론 형성 과정에 있어 공론의 장으로서의 중요한 역할과 기능이 요구 되어진다. 특히 사설은 주제에 대한 문제제기에

걸맞는 비판과 향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의 대안을 독자들에게 제시해 주어야 한다.[14] 또한 정치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제시하며 정책, 국가, 사회의 어젠다로 발전시키기도 하고 여론 형성과 공공정책으로 현실화 되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설의 내용은 신문의 공공 기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는데 큰 효용성이 있다. 더불어 사설은 보도문 보다 독자들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바람직하고 균형적이며 평등한 사고를 하도록 해야하는데 그 역할의 무게가 더 있다. 사실상, 사설은 에디토리얼의 대표적인 것으로 사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한 신문사의 입장을 자사의 논설위원이 글로써 표명하는 것이라 정의한다.[15] 때로, 이러한 사설과 컬럼이 오용되고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이 지적되는 일도 종종 있는데 일반 저널리즘의 경우 필자 선택권이 신문사에 있고 따라서 사설과 컬럼의 내용과 주제는 신문사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사설과 컬럼의 내용이 신문사의 집필 의도에 따라 주장의 방향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사설과 컬럼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반면, 다음 장에서 도표를 통해 살펴보겠지만, 기독 저널리즘의 경우는 그 반대라 할 수 있다. 기독 저널리즘의 사설과 컬럼의 주요 필진들이 대부분 대형교회 목회자인 것을 감안하고 한국 교회의 목회자와 기독 저널리즘의 운영상의 연관 관계를 예측해 볼 때 편집자들의 의도나 편집자의 전적인 영향력이 행사되기 보다는 전적으로 광고주를 위한 지면으로 할애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겠다. 이러한 가정의 타당성은 한인 사회 내에서 언론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본인의 10 년간의 경험과 더불어 한인 사회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언론 기관들의 상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다. 한인 사회내에서 언론 기관의 운영은 대부분 한인 단체들의 광고가 대부분을

[14] 고혜련, *신문 취재와 기사작성* (서울: 중앙미디어북스, 2001), 195.
[15] 고혜련, *신문 취재와 기사작성,* 193.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언론 기관들의 운영에 있어 전적으로 광고주에 의지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언론으로의 기독 저널리즘의 사설과 컬럼의 역할은 교계의 사건과 다양한 문제들을 더불어 사회적 공공의 문제에 대해서도 독자들에게 올바른 기독교적 윤리를 선도하며 사회의 부정적 요소들을 정화할 의무와 기독교 선교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갖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적 기능의 중심에 있는 언론으로서 이분법적 구조안에서 초래된 사회의 다양한 모든 공적 이슈들 안에서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공유 문화를 확립해야하는 사명이 있다.[16] 기독 저널리즘이 인간의 모든 삶의 자리인 공적 영역 안에 있으며, 교회의 자리 또한 공적 영역의 모든 이슈와 직접적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고, 사회의 공적 이슈들을 대표하는 언론 기관으로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조화와 균형을 지향할 의무가 있다. 이에 독자들에게 실천신학적 측면에서의 인지, 정서, 행동의 모든 면에서 통전적 발전을 이루며, 보편적 가치의 중요성과 중용의 관점, 평등 공동체적 시각을 강조함으로써 성숙하고 건강한 기독교인들의 성장에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 앞서 언급했지만, 사설과 컬럼의 가장 큰 특징은 여론 형성에 있다 할 수 있는데, 여론은 개인의 '의견'의 통합체라는 말이 있듯이 여론 형성에 올바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올바른 의견을 제시하려는 시도에는 반드시 다양한 관점과 열린 토론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17] 사설과 컬럼은 각 집단이나 개인들의 의견들이 오랜 시간 축적되어온

---

[16] 원용진, *새로 쓴 대중문화의 패러다임* (서울: 한나래, 2010), 137.

[17] 하상복, *광기의 시대, 소통의 이성* (서울: 김영사, 2016), 70.

영어와 프랑스에서 '의견'은 라틴어 'opinio'에 기원을 두는데, 하버마스에 따르면 이 'opinio'는 "사견" 혹은 "완전히 입증되지 않는 불확실한 판단"을 뜻하는 개념으로 성립했다. 이 개념으로서의 '의견'은 진리의 반대편에 자리하는 것으로서 부정적인 개념으로 사용된다. 하버마스는 '의견'에 대한 정의를 '억견'이나 '사견'을 넘어 또 다른 의미를 제기하는데, 하나는 참과 거짓의 증명을 거쳐야 하는 무시할 수 없는 의 견, 다른 하나는 복수의 사람들을 아우르는 '집단적 의견'이라는 의미라 정의한다. 이 '집단적 의견'은 구 체 적으로 프랑스에서 "관습과 예절,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념과 널리 유포된 관습"을 일컫는 말인 'les opinions'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사회적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변화된 사회 안에서 공적 이슈와 주제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의견들이 기존의 의견과 무엇이 다른지,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적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야 함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독일의 사회학자이며 언론인으로 유명한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에 따르면, 여론이 형성되고 이것이 민주주의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념적, 제도적 기초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18] 그에 따르면, 먼저 개인의 가치가 집단의 가치에 우선한다는 관념을 토대로하고, 두 번째는 법률적 기본권이보장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집단적 토론의 공간이 구출되고 신문과 서적이 여론 형성을 매개하면서 시민계급이 자신들의 의견을 제약 없이 교류할 수 있는 공론장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성된 여론은 입법의 궁극적 토대가 된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하버마스가 언급한 여론 형성 과정이 한국적 기독교 상황 안에서 또한 기독 저널리즘의 편집 구성에 적용될 수 있을까? 사실상, 이 질문에 대해 현재의 한국적 기독교와 한인 이민 교회 안에서 이러한 여론 형성 과정의 적용의 가능 여부를 판단해 보기 보다는 먼저, 한국적 상황 안에서 민주적 여론 형성의 방해 요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판단된다. 그 이유는, 한국적 기독교는 한국이라는 특수한 지형적 환경속에서 역사의 긴 시간 속에서 형성되어진 결과물의 하나라는 점과 오랜 시간 한국의 특수 상황 안에서 국가와 교회의 여론 형성의 과정이 대단히 복잡했다는 것을 재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 있어 하상복의 한국 사회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평가는 현재 기독 저널리즘의 여론 형성에 과정에 있어 그 방해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표현해 준다고 하겠다. 다음은 이에 대한 하상복의 글이다:

---

[18] 하상복, *광기의 시대, 소통의 이성*, 71.

> 한국사회는 압축적인 자본주의 근대화를 이룩해 나갔으면서도 사회문화적 차원에서는 개인주의 가치를 온전히 형성해 내지 못했다. 전통적 사유체계와 문화체계에 기원을 두는 집단주의와 공동체 우선주의가 그동안 한국사회의 강력한 이념과 가치가 되어 왔다. 개인을 언제나 자신이 속한 집단, 공동체, 국가를 위한 의무를 수행할 것을, 내면화할 것을 요구받아 왔다. 한국의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치권력의 이해관계 속에서 기본권의심각한 침해와 유린이 자행되어 왔다. 독재적 권력의 유지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헌법의 자의적 개정이 무수히 반복되어 왔다. 공론장 형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또한 동일한 운명에 처해 있었다.[19]

하상복의 지적처럼 반자유주의적 상황 속의 한국 사회는 정치적 발언과 토론을 활발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왔다. 비로소 2000 년대 초반에야 '광장'이란 용어가 본격적으로 회자되기 시작했고 이는 한국의 억압적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며 공론장의 부재와 더불어 언론환경의 왜곡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20] 더불어 해방 이후의 한국 언론이 전적으로 권위주의에 종속된 언론의 특성을 보여왔음을 주장하면서 이러한 권위주의는 합리적인 의견 표출과 여론 형성을 이끌어 내는 공론장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과 이를 통해 법치주의에 대한 거부를 드러내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한편, 정치적 상황은 공중들의 비판적 토론을 불법적이거나 공동체의 안정을 훼손하거나 이적 행위로 간주하였다고 설명한다.[21] 하상복의 설명처럼 한국의 여론 형성 과정에 있어서의 공론장의 부재와 언론의 왜곡 문제를 비롯한 한국 사회와 정치 상황에서의 여론의 탄압은 기존 전통 한국 교회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도 교회 안에서의 여론 수렴의 과정은 민주주의 방식과는 거리가 멀고 아직도 이러한 교회의 위계적 구조적 상황은 변화를 기대하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에 있어서의 미디어의 발전과광역 인터넷의 사용은 과거와는 다른공론장의

---

[19] 하상복, *광기의 시대, 소통의 이성*, 169.

[20] 하상복, *광기의 시대, 소통의 이성*, 170.

[21] 하상복, *광기의 시대, 소통의 이성*, 172.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개인의 목소리는 개인 미디어의 창출을통해 여론을 생성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독자들이 스스로 알고자하는 본능을 충족시키며, 다양한 정보와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거 주어진 정보에 의해 그리고 한 개인의 의견으로 거대한 여론이 형성되는 시대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기독 저널리즘은 사설과 컬럼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와 견해 그리고 관점들로 인한 공론의 장으로서의 기능이 요구되어진다.

A. 미주 기독 저널리즘의 사설과 컬럼 분석

이제 미주 기독 저널리즘의 사설과 컬럼의 분석을 통해 교회와 독자들에게 어떠한 영향력 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사설과 컬럼의 필진의 직업별 분포도

| | 기독 일보 | 미주크리스천 신문 | 크리스천 위클리 |
|---|---|---|---|
| 목사 | 53 | 55 | 47 |
| 사모 | 1 | | 1 |
| 신학연구소소장 | | 1 | |
| 심리센터대표 | | 1 | |
| 장로 | 1 | | |

기독 일보의 필진의 직업별 분포도는 55 개의 사설과 컬럼 중 53 명의 직업이 목사, 사모 1 명, 장로 1 명이었다. 미주 크리스천 신문의 직업별 분포도를 보면 55 개의 사설과 컬럼 중 신학연구소 소장이 1 명, 심리센터 대표가 1 명이었다. 크리스천 위클리의 직업별 분포도는 48 개의 사설과 컬럼 중 47 개의 대부분의 필진은 직업은 목사였으며 1 명은 사모였다. 먼저, 사설과 컬럼의 필진의 분석은 다양한 전문가적인 의견이나 관점, 정보들이 독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있는가?하는 질문에

근거했다. 표 1, 2 의 분석 결과에 보여지듯 대부분 저널리즘의 사설과 컬럼의 필진 대부분은 목회자였다. 사설과 컬럼의 필진이 대부분 목회자라는 점은 필진의 다양성 부문에서 공적 이슈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적인 의견이나 관점을 담기에 무리가 있다는 점과 이와 동시에 기독 저널리즘의 사설과 컬럼이 특히 몇몇 목회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교회의 물질적 지원과 후원으로 신문사가 운영되는 현실적 문제를 감안할 때 사설과 컬럼의 기능과 역할이 신문사의 운영을 위한 목회자들의 전용 공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인 할 수 없다고 사료된다.

표 2. 사설과 컬럼의 종류별 분포도

| 기독 일보 | 미주크리스천 신문 | 크리스천 위클리 |
|---|---|---|
| 묵상컬럼<br>오피니언 컬럼<br>선교 컬럼<br>행복컬럼 | 영성컬럼<br>목양컬럼<br>일상컬럼<br>성품컬럼<br>신앙컬럼<br>원로컬럼<br>가정사역컬럼 | 오피니언<br>컬럼 |

표 2 에서 보여지듯 사설과 컬럼의 분류와 종류는 기독 저널리즘의 사설과 컬럼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예측이 매우 용이하다. 이러한 분류표는 사설과 컬럼의 내용이 교회 중심적이고 신앙 생활이 개인 중심적 내용이라는 것을 사실화시킨다. 이와 같은 사설과 컬럼의 분류는 교회 밖의 독자들의 관심과 공감을 얻기에는 역부족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공적 언론 기관으로서의 기독 저널리즘의 영향력이 교회 안으로만 축소되며 독자층 또한 목회나 또는 교회 내의 성도들로 만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독 저널리즘의 사설과 컬럼은 교회와 목회자 중심의 사적

공간으로 남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 이는 기독 저널리즘이 사회 속에서 불평등적 구조와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와 바른 여론을 형성하는 공적 언론 기관으로서의 기능 축소는 물론 교회가 사회와의 소통의 연결통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앞서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기독 저널리즘이 공적 언론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제가 지극히 개인 신앙 중심적이며, 현 시대의 글로벌적 주제에 대해 거의 언급되고 있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사회의 공적 문제에 무관심하다고 비판받는 한국과 한인 이민 교회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표 3. 2015 년 기독 일보의 사설과 컬럼의 주제별 분포도

| 기독일보 | | |
|---|---|---|
| 1 월 | 8 일 | 우리 모두가 선교사, 양띠 해의 목자의 각오, 참된 기도자 |
| | 15 일 | 복된 귀 복된 입술, 선책이 중요하다. 왕자와 거지 |
| | 29 일 | 교회 안에서의 생활 윤리, 불편한 예수 |
| 2 월 | 19 일 | 독서와 안경, 감사는 영혼의 비타민, 고집꺽기 |
| | 26 일 | 홍해를 건넌 사건의 영적 의미, 불편한 예수 |
| 3 월 | 19 일 | 공포의 대지진, 불편한 예수, 복 있는 사람 |
| 4 월 | 2 일 | 시대 사조에 굴볼한 동성 결혼 수용, 40 일 금식 기도를 하는이유 |
| | 16 일 | 부활 그 이후, 글씨 하나 차이, 하늘과 땅 차이, 생각의 중요성 |
| | 23 일 |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복음, 내던진 신발을 신어 볼때까지, 실수 |
| 5 월 | 14 일 | 첫 사사 옷니엘, 어머니 서랍, 엄마 |
| | 28 일 | 바락의 절반 순종과 절반 승리, 사랑의 마음, 일하는 재미, 노는 재미 |
| 6 월 | 25 일 | 세파를 거슬러 올라가라, 백의의 용사들, 나를 통째로 바꾼 6.25 전쟁 |

| | | |
|---|---|---|
| 7 월 | 9 일 | 사는 이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 두려움 극복하기 |
| | 23 일 | 단 지파는 단순의 조상인가?, 두려워하든지 사랑하든지, 기본이 튼튼한 신앙 |
| 8 월 | 20 일 | 영양가 있는 교회, 짝퉁 예수 |
| 9 월 | 24 일 | 불편한 예수, 자기애성 영적 장애, 달라이 라마 무당 깊이신뢰하고 귀신에 얽매여 있어 |
| 10 월 | 22 일 | 가능에 생각해 보는 인생, 우습게 모았던 뒷산의 아름다움 |
| 11 월 | 19 일 | 광양의 감사, 감사와 기적 |
| 12 월 | 16 일 | 다문화 사회와 기독교, 갈무리 해야 할 시간, 크리스마스 3R, 심령의 가난과 애통의 복 |

표 3 은 기독 일보의 사설과 컬럼이 다루고있는 제목들에서 보여지듯이 그 내용이 주로 개인적 신앙에 촛점한 설교의 연장이며 목회자의 개인적 사변이나 신변에 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 2015 년 미주 크리스천 신문 사설, 컬럼의 주제별 분포도

| 미주크리스천 신문 | | |
|---|---|---|
| 1 월 | 24 일 | 교회 개척의 필수적 습관, 별이 되고 싶은 사람들, 우리들의자녀들을 어떻게 떠나 보낼 것인가? |
| | 31 일 | 부르짖는 야성을 회복하라, 하나님이 만드는 사람 |
| 6 월 | 27 일 |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에서 이자윤리,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들,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믿음으로 승리한여호수아 |
| 7 월 | 22 일 | 소박한 신앙 행복한 가정, 공립학교 교육에 대한 찬반 이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여호수아 |
| 8 월 | 8 일 | 폼페이 화산 폭발로 죽은 벨릭슨의 아내, 그리스도인의 영화 문화 이해, 스마트폰 시대 |

|  |  |  |
|---|---|---|
|  | 15 일 | 광복 70 주년의 의미, 원로로 살아가기, 이혼과 한국인의 유교 문화 |
| 9 월 | 10 일 | 좋은 사람 좋은 이웃, 이혼에 대하여, 외골수로 믿음이 우뚝 선갈렙 |
|  | 26 일 | 은밀한 내면을 정결케 하라, 원로로 살아가기, 이혼 후정상적으로 회복되려면 얼마나 걸릴까? , 분노의 사회, 배려의성품으로 치유할 수 있다. |
| 10 월 | 17 일 | 일불행탈출, 이혼에 대하여, 탐욕으로 망한 발람 |
| 11 월 | 7 일 | 외로움, 목회자와 건강,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
|  | 21 일 | 희생양인가 어린양인가, 가정목회, 삶으로 보여주는 메시지,이혼 가정 및 사별 가정을 위한 지원 그룹의 필요성 |
| 12 월 | 5 일 | 가정 목회, 삶으로 보여주는 메시지, 2015 년 한 해를 보내며 |
|  | 9 일 | 영적 휴브리스를 경계하라, 가정 목회, 삶으로 보여주는 메시지 |

표 4 의 미주 크리스쳔 신문의 사설과 컬럼은 타 신문사들보다 다양한 분류의 사설과 컬럼이 구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컬럼의 제목에서 보여지듯 이름만 다를 뿐 그 주제와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여성 필진이 연재하는 가정 컬럼에서의 관심사가 이혼과 아이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여성의 기능이 교회와 가정 생활의 지침적 내용들이 다시 독자들에게 재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여성의 전통적 가정에서의 역할의 연장선으로서의 사모의 역할이라는 점을 강화하며, 다양한 여성들의 삶의 형태와 교회 내의 여성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여성들의 사회와 교회 내에서의 활동 영역의 확장, 세계화 시대의 여성과 인류더 나아가 환경 그리고 여성들의 미래에 대한 평등적이고 실제적 관점과 그 대안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한계를 드러낸다.

표 5. 2015 년 크리스천 위클리 사설과 컬럼 분포도

| 크리스천 위클리 | | |
|---|---|---|
| 1 월 | 22 일 | 쏘쌩크 탈출, 화투를 즐기는 목사 부부, 젊게 하는 노인들 |
| | 29 일 | 씨앗의 신비를 아는 지혜, 벅찬 감동으로, 멘탈짐, 하나님의 뜻 이 땅에 |
| 4 월 | 16 일 | 음식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으면 절대 용서 받지 못하는가? |
| 6 월 | 11 일 |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지혜, 배우는 사람은 못당한다 |
| | 18 일 | 필요만큼 차려먹고,모두에게 고른 생명 밥상을, 성격 속 남자와 여 자, 하나님 사역 위한 언약적 관계 |
| 7 월 | 2 일 | 교회 강대상에 새겨진 그 글자가 무슨 뜻입니까? |
| | 9 일 | 예수 사랑 전합니다, 사는 이유, 'Few'없음의 위기와 녹색교회 실 천 |
| 8 월 | 13 일 | 인생은 기차여행, 약속과 책임, 조선을 사랑했던 제임스 스콧 게일 선교사,독립 운동가들의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인생은 기차 여 행, 약속과 책임, 성경을 보면 인생이 보이고 성경대로 살면 인생 이 변한다, 때론 삼등석도 아름답다, 나이 든다는 것은 |
| 9 월 | 3 일 | 가까운 성경 먼 성경, 남북 회담에서 얻은 다섯 가지 |
| | 17 일 | 자리배치, 내가 만난 하나님, 기뻐하기 보다 감사하다 |
| 10 월 | 1 일 | 소유로 부터의 만남,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는 제자 입니다 |
| | 8 일 | 시각의 차이, 성경이 맞습니까? 성서가 맞습니까?, 신앙이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
| 11 월 | 5 일 | 주일예배 20 년 개근, 깍는 것이 받는것보다 복이 있다 |
| 12 월 | 3 일 | 인생은 예쁘게 포장되지 않아도 귀한 선물입니다, 행복한 공동체 안에 있는 천국, 사람나고 돈 났는데 |
| | 17 일 | 헌금은 꼭 본 교회에만 드려야 하나요?,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

표 5 에서 보여지듯 크리스천 위클리 또한 다른 기독 저널리즘과 크게 다르지 않다. 주제들도 대부분 교회 생활과 연관되어 있다. 간혹 녹색실천과 같은 환경에 관한 의식 있는 주제들을 다루기도 하지만, 이는 일회적이며, 대부분의 사설과 컬럼의 주제와 내용들은 교회 생활에 필요한 지침서라고 해도 무방하다.

나는 기독 저널리즘의 사설과 컬럼의 주제들을 분석한 결과, 표 3, 4, 5 의 사설과 컬럼의 주제들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치, 사회, 경제, 환경이나 세계화의 공적 이슈들에 대한 주제들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LA 에서 발행되고 있는 기독 저널리즘의 사설과 컬럼들이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목회자 개인이 중심이 되는 주제에 한정되어 있는 한계를 보였는데 예를 들자면, 목회자 개인의 건강, 교육, 목회 등이다. 이는 기독 저널리즘이 공적 언론 기관으로서 다양한 공적 주제에 대한 사회 속에서의 실천의 중요성과 그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사설과 컬럼의 기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여론 수렴을 통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기에는 그 전문성을 상실했다고 해도 과하지 않다.

표 6. 2015 년 각각의 기독 저널리즘의 사설과 컬럼에 주로 사용된 용어

| 기독일보 | 미주크리스천 신문 | 크리스천 위클리 |
|---|---|---|
| 인생 | 이혼 | 성경 |
| 하나님의 은혜 | 심판 | 하나님 |
| 기도 | 분별 | 남북회담 |
| 축복 | 탈출 | 고백 |
| 감사 | 죄 | 예수 |
| 기적 | 재림 | 자리배치 |
| 부흥 | 복 | 천국 |
| 교제 | 건강 | 목사 |
| 행복 | 영적 전쟁 | 설교 |
| 타락 | 사랑 | 신앙인 |

세상
공평
정의
사람
성도
동성애
회개
말
심판
영
신앙생활
훈련
종교전쟁
복
죄
회개
믿음
불안
평안
타락
사랑
십자가
지도자
책망
대부흥
사회타락
금욕
탐욕
자본주의
감사
순교
영혼
심판
영성
두려움
신앙
헌금
말씀
짝뚱

기도
믿음
말씀
반기독교
외로움
훈련
사역
타락
형상
파괴
회복
잘라버림
부흥
십자가
복음
전도
가정목회
기독교인
선교
치유
제자
택하신자
세속
성령
오염
예배
은혜
승리
사명
믿음
문제해결
성경적
구원
행복
지옥
지도자
리더
회개
특권

하나님 나라
세상
교회
실천
사는 이유
회개
예수
사랑
성전
전쟁
정복
정체성
소유
떠남
제자
북한
삼등석
나이
인생
걱정거리
사람
돈
공동체
주일예배
주는 것
파트너
도움
선택
삶
노인들
치매
말씀
목표
은사
교회
복
봄
하나됨
생활강령

| 예수 | 우상 | 음식 |
| --- | --- | --- |
| 교회 | 신앙교육 | 성령 모독 죄 |
| 장애 | 건축 | 성장 |
| 순종 | 모본 | 지체 |
| 다문화 | 정결 | 속사람 |
| 구원 | 목회 | 목회 |
| 금식기도 | 하나님 | 십일조 |
| 고난 | 아는 사람 | |
| 천국 | 모르는 사람 | |
| 축복 | 엎드림 | |
| 마귀 | 지원 | |
| 지도자 | 상처 | |
| 부모 | 기도 | |
| 가정 | 영성 | |
| 경외 | 순종 | |
| 악 | 눈물 | |
| 세상 | 능력 | |
| 세파 | | |
| 용사 | | |
| 열매 | | |
| 지혜 | | |

표 6 에서 나열한 기독 저널리즘의 사설과 컬럼에서 사용되어진 용어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교회 내에서 아주 익숙하게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다. 위의 용어들이 현 기독교의 문화, 사상, 가치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기독 저널리즘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은 지금의 교회 문화를 설명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용되어진 용어들을 통해 공적 언론으로서의 기독 저널리즘이 사회와의 소통과 평등적 시각을 독자들에게 전하기에 적합한지의 척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도 사료된다. 그러나 위의 분석표를 통해 기독 저널리즘의 용어들의 패턴을 정리한 결과, 용어들은 대부분 성과 속,아는 자와 모르는 자, 축복과 저주, 지옥과 천국, 세상과 하나님 나라, 교회 와 세상 등의 확실한 구분을 통해 한 쪽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강화하고 있었고

이러한 언어 사용이 오랜 시간을 걸쳐 기독교와 교회 문화로 고착화 됐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의 위험성은 단어의 다른 의미를 통해 옳고 그름의 사유 방식이 도출되고 그 언어가 함축하고 고유의 차이로 인한 구분이 아닌 한 쪽의 의미를 옳음으로 규정하면서 다른 의미에 대한 차별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이는 언어 자체가 지니고 있는 차이 보다는 언어에 내재되어 있는 권력에 의해 차별의 구조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며, 사회 내에서 인간의 보편성과 평등성에 부정적 기제로 사용된다.

공공신학자 맥스 스택하우스(Max Stackhouse) 프리스턴 대학교 교수는 어떠한 언어공동체 속에서 사느냐가 이미 그 경험과 해석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고 지적한다.[22] 이처럼, 기독 저널리즘에 있어 이분법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을 함축한 용어의 빈번한 사용은 사회의 문제에 대해 악한 것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공적 이슈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무관심을 정당화하고 조장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교회 안과 밖의 구분으로 인해 교회와 개인 중심적인 문화에만 지나치게 치중하게 돼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회피하게 하는 결과 뿐만 아니라 이분법적 패러다임의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마침내 기독교와 교회의 성도와 대중들의 실천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보여지듯 '다름'에 대한 인식과 소통과 배려를 위한 언어 사용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공적 주제들을 하나로 아우르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나는 기독 저널리즘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 분석을 통해 기독 저널리즘의 사설과 컬럼이 일반 대중들에게 공감을 주고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적 이슈들의 논의와 토론을 이끌어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현재 기독저널리즘의 사설과 컬럼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은 교회 내에서만 익숙한 단어라고 판단되어지는 만큼 기독

[22] 문시영,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북코리아, 2007), 65.

저널리즘의 사설과 컬럼은 사회 내에서도 다양한 독자층이 공감하기 위해서는 공적 언론으로서 기독 저널리즘의 용어 사용에 대한 민감성과 신중함의 필요가 대두된다.

결론적으로 기독 저널리즘을 분석한 도표들을 토대로 미주 최대 한인 사회인 LA 에서 현재 발행되고 있는 기독 저널리즘의 사설과 컬럼의 내용들은 공적 언론 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기독 저널리즘의 사설과 컬럼은 교회의 양적 성장 위주의 전도와 개인적 위로, 기복 신앙, 교회 성장주의, 사회의 현실 참여 및 구조 개혁에 대한 무관심, 이웃을 단순히 전도의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내용들이 바로 성과 속이라는 거대한 이분법적 패러다임 사유 방식이 무의식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세계화의 시대에 요구되어지는 인권의 중요성, 평등적 시각,공적 주제에 대한 열린 토론과 독자들의 실천적 참여의 독려와 평등적 시각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는 점과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성찰과 변화에 대한 촉구 등 개혁을 위한 목소리 또한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를 통해 기독 저널리즘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은 공적 언론 기관으로서 매우 제한적이고 지극히 한계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B. 동성애에 관한 기독 저널리즘의 사설과 컬럼의 내용 분석

이 장에서는 공적 언론 기관으로서의 기독 저널리즘에 내재되어 있는 이원론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의 극단적인 예로 동성애에 관한 사설과 컬럼을 분석함으로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동성애에 관한 이슈는 기독교와 교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회적 이슈이며, ‘동성애의 합법화’는 인류의 역사 안에서 오랫동안 존재해 왔던 거대 담론에 금이 간 큰 변화이기도 하다. 이 거대한 세계적 이슈 앞에 기독교의 극단적 이원론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의 한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장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이원론적 패러다임 사유 방식의 틀이 어떻게 내재되어 있는지 동성애 합법화가 이루어졌던 2015 년의 기독 저널리즘에 실린 내용들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1. 2015 년 4 월 2 일 기독 일보, C 교회, M 목사 – 시대 사조에 굴복한 동성결혼 수용:

> 미국의 최대 장로교 교단주의 하나인 PCUSA 가 최근 동성애 수용을 공식 입장 으로 결정하였다. 동성애 수용 논란으로 이미 2012 년에 120 여 교회가 그 교단을 탈퇴 하여 새 교단인 ECO 를 세웠으며, 앞으로도 탈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 교단 내 **보수**적인 성향의 한인교회 지도자들은 이미 동성애 수용불가 원칙을 신문지상을 통해 확인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그 교단의 혼돈과 약화는 어렵지 않게 예상된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KAPC 교단은 한인교회로 이루어진 장로교단인데, 이번 5 월 브라질 총회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천명하려고 검토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 창세기 2:24, 마태복음 19:5, 그리고 에베 소서 5:31 에서 3 번이나 확인된 가르침이고, 이는**시대의 변화에 의하여 바뀔 수 없는 인간창조와 신성한 결혼 규범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중간 생략)교회는 의인의 공동체가 아니라 **죄인의 공동체**이다. 교회는 죄인들이 나와서 회심하고 회복되어 성화되어지는 공동체이다. 필자는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가 출석한다 하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동성애적 경향을 가지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이유로 교회에서 떠나라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을 위한 배려로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고는 결코 말하지 않을 것이다. 동성애적인 경향을 일반적으로 정죄하지 않음과 아울러 이를 **이해하고 상담하고 회복을 위하여 공동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동성애적 혹은 양성애적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생활을 훌륭하게 사람이 많이 있다. 우리가 아는 영성가 헨리 나우엔도 **동성애적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가운데서 장애자를 도우면서 평생 독신의 삶을 살았다.** 교회가 "동성애 결혼을 반대라는 것"은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유린"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그러나**성경의 가르침을 포기하고 동성결혼이라는 시대사조를 신학적으로 수용한 것은 꼬리로 몸통을 흔들도록 허용하는 오류를 범하였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23]

2. 2015 년 6 월 18 일기독 일보, J 교회, P 목사 – 세파를 거슬러 올라가라:

>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어와 같이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고 했습니다. **세상은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합법화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풍조가**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1970 년대만 해도 **동성애를 정신 질환으로 분류하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23] 민종기, "시대 사조에 굴복한 동성 결혼 수용," *기독일보*, April 2, 2015, http://kr.christianitydaily.com.

**다양성을 인정하고 성소수 차별을 금지하는 시대흐름을 타고 동성애를 인정해야 시대 감각있는 인텔리고 넓은 마음을 가진 자이고 이것을 부정하는 기독교인들은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폐쇄적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24]

3. 2015 년 7 월 2 일 크리스천 위클리, J 교회, P 목사 – 하나님은 이 위기를 위대한 폭포로

만드실 것:

>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u>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u> **세상의 어떤 달콤한 유혹의 물도 우리는 마시면 안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이 타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 외에는 그 어떤 물도 마시면 안되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가 죄악의 바닷물을 들이킨 후 겪는 고통은 목이 차는 갈증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름 그대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적그리스도의 문화로 뒤덮인다** 해도 그리스도 인들은 주님의 말씀인 진리를 위배하는 그 어떤 **세상 풍조와도 싸우며** 세파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6 월 28 일 금요일은 참으로 슬픈 날이었습니다. … 이날은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의 양심이 죽은 날이라고 표현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이 다 진리를 대적하는 날**이 온다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미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순교신앙을 가져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중간 생략)동성 결혼이 합법화 되던 날, 제가 하도 상심해서 차를 길가에 세워놓고 울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이 절벽을 만나야 웅장한 폭포가 되지 않겠느냐? 이제 미국은 절벽을 만났으니 이 위기를 하나님은 위대한 폭포로 만드실 것이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제게 요 11 장의 나사로 이야기를 떠오르게 해 주셨습니다. … 이제 우리는 미국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고 대 부흥이 일어나도록 더욱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손이 역사할 것**입니다. **미국이 이 지경이 된 것은 방관했던 교회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엘리야 같은 주의 종들과 교회들은 통해 이 땅을 회복시키는 진정한 부흥을 일으킬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순교 신앙을 가진 7 천명의 '남은 자'들을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25]

---

[24] 박성규, "세파를 거슬러 올라가라," *기독일보*, June 19, 2015, http://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83779/20150619/%EC%B9%BC%EB%9F%BC-%EC%84%B8%ED%8C%8C%EB%A5%BC-%EA%B1%B0%EC%8A%AC%EB%9F%AC-%EC%98%AC%EB%9D%BC%EA%B0%80%EB%9D%BC.htm.

[25] 박성규, "하나님은 이 위기를 위대한 폭포로 만드실 것," *크리스천 위클리*, July 2, 2015, http://www.christianvision.net/4335.

4. 2015 년 7 월 9 일자 크리스천 위클리, J 교회, P 목사 – 예수 사랑 전합시다:

> 미연방 대법원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원리를 부인해 버렸습니다.** 사람도 아닌 키우던 개에게 재산을 상속했다는 기사를 종종 봅니다. 이런 상태로 나가면 앞으로 **개와 같은 애완동물과의 결혼도 합법화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최고의 지성과 판단력을 자랑하는 미국의 대법원 판사들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후 온갖 판례와 법 조항을 모아 어떤 변론에도 이길 만반의 준비도 해 놓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대제상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지만 미국 대통령과 대법관은 예수님과 그 말씀을 부인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동성애 때문에 심판받은 도시가 소돔**이었습니다. 그 소돔에 온전한 하나님이 자녀가 10 명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룻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사랑을 그 도시에 전파하지 못한 것이 **심판받은 원인**입니다. 그는 전혀 **주변에 영향력이 없고 자신조차도 부부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를 정도로 죄악에 빠져 나중에 술에 취해 딸과 근친 상간하는 해괴한 행동으로 모압 조속과 암몬 족속이 생기게 됩니다. 구분할 능력이 없는 세상**을 탓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증거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없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예수 안에 있는 줄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람이 거듭하야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밖으로 드러내야 합니다(빌 2:12-13).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로 치닫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 날 까지 예수님을 증거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요일 3:16).[26]

5. 2015 년 6 월 20 일자, K 사모 – 동성애자 역사가와 인류학자들도 인정하는 사실,

동성애는 선천적인게 아니다!

> **동성애자들도 전도대상이고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교회 안에 그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을 **평상인과 같이 따뜻하게 반기고 받아주고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동성애적 행위는 확실하게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힘을 다해 **죄와 싸우고**(히 12:4), 죄짓는 것에 함께 참여 해서는 안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실 때는 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간 생략)동성애자 등 중 **양심있는 역사가들과 인류학자들까지**"동성애는 선택에 의한

---

[26] 박성규, "예수 사랑 전합시다," *크리스천 위클리*, July 9, 2015, http://www.cnwusa.org/.

성향이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것은 그 어떤 역사적 자료에도 인류역사상 나타난 적이 없다"라고 발표했습니다.[27]

사실상, 이성애와 이성 간의 결혼만이 합법적이고 정상적이라는 거대 담론은 세계 역사 안에서 아주 오랜 시간 자리해왔고 이는 성차별적 성서 해석에 근거해 기독교의 발전과 더불어 불변하는 진리인 양 자리를 굳혀 왔던 것이 사실이다. 위의 기사들을 통해 보여지듯 동성애는 기독교와 교회 안에 굳게 유지됐던 거대 담론 뒤에 숨겨진 권력 구조의 해체에 대한 강한 거부감의 표출로 권력의 이양과 힘의 해체에 대한 불안감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거대 담론의 영향력 하에 '동성애'의 이슈가 세계 곳곳에서 뜨거운 찬반 여론의 중심에 등장하며, 이러한 찬반 논쟁 속에서 특히 한국 교계와 한인 이민 교계의 강한 반발은세계 역사 가운데 강하게 뿌리 내린 권력 구조가 얼마나 강한지를 다시 한 번 입증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동성애=죄'라는 담론을 통해 동성애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설명하는 것은 동성애를 반대해야만 하는 다른 이유가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 가정할 수 있겠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부정적 기제의 중심에 성서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독자들에게 권력의 유지를 위한 성서 해석에서 문자적 성서 구절을 동원해 무조건적 동성애를 혐오적으로 인식하게 한다는데 그 문제가 있다. 인간이라는 기본적인 개념과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평등적 개념을 파괴하고 동성애자들의 대한 오해와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동성애'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인류의 죄악의 원인으로 치부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 사료된다.

[27] 새라김, "동성애는 선천적이 아니다!" *미주 크리스천 신문*, June 20, 2015, https://www.chpress.net:4462/column-detail.html?cate=column&c_id=87&id=9529.

기독교 내의 권력이 인류 공동체에 남용한 비극적 결과들을 교회가 초래했다는 점과 현 한국 교계가 처해있는 부정적 결과물들을 고려할 때, 한국 교계는 먼저 성찰과 자기 반성에 촛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서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평등적 시각을 위한 연구와 다양한 관점이 제기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이민 교회 안에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불법적 행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미디어에서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는 목회자들의 비윤리적 행위나 공금 횡령, 성추행, 교회 건물의 불법적 명의 변경, 공적 재산의 사유화, 세습 체제, 대형 교회의 내부 갈등으로 인한 법적 소송과 붕괴, 이민자들의 불법 체류, 원정 도박, 원정 출산, 세금 허위 신고, 사기성 국제 결혼, 영주권과 시민권 사기 등등수 많은 불법적 행위가 이민 사회에 산재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 많은 한인 교계와 기독 저널리즘은 '동성애의 합법화'라는 주제에만 성토의 목소리를 낸다는 점에 그 의구심을강하게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동성애는 곧 죄'라는 사고와 이성애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상적 결혼 방식이라는 관점은 반드시 재고될 필요성이 있다.

기독 저널리즘의 사설과 컬럼에 실린 동성애 관련 글들은 철저하게 '세상=죄=동성애=진보 =위험한신앙=비정통=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 교회=죄사함=이성애=보수=안전한 신앙=정통= 하나님의 임재'라는 철저한 이분법적 패러다임 사유 방식의 틀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유 방식에 따르면, 세상은 하나님이 버린 곳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이는 세상과 교회를 자연스럽게 분리함으로써 성과 속이라는 이원론적 틀을 재형성한다. 문제는 이러한 이원론적 틀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서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나 문서에 대한 연구와 해석에 대한 신중함이 없이 성서의 구절들을 무분별하게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원론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에 따르면 성서의 해석은 두 가지로만 귀결된다.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 다시 말해 보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진보는 세상의 뜻을 이룬다는 식의 보수와 진보의 짝패 구조를 통해 동성애 반대는

보수적이며 이는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한다. 보수와 진보를 나눔에 있어서도 귀결은 옳고 그름이다. 보수는 신앙 태도가 좋고 진보는 신앙 태도가 올바르지 못하며, 보수는 나이가 들고 경험이 풍부하며 진보는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며, 보수는 나라나 교회를 사랑하고 진보는 나라나 교회보다는 개인 중심적이라는 개념을 무의식적으로 함축하게 한다. 또한 보수는 안정적이고 진보는 불안하며, 보수는 질서를 안정시키고 진보는 기존 질서의 파괴를 통해 질서의 불안정을 초래하며, 보수는 자유롭지 않고 진보는 자유로우며, 보수가 정통이고 진보는 비정통이라는 이원론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의 거대 담론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옳고 그름의 구분에는 다수는 옳고 소수는 그르며, 다수는 강하고 소수는 약하며, 다수는 안정되고 소수는 불안하다는 개념으로 확장된다. 여기에 보편적인 의미로 쓰이는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 소수의 특수함을 지닌 그룹을 철저하게 배제하기도 한다. 이는 '우리'라는 연대적 의미가 상실되고 집단적 이기주의를 드러내는 기제로 사용된다. 나는 앞에서 살펴본 기독 저널리즘의 사설과 컬럼에서 성서를 통해 동성애에 대한 편파적이며 편협적인 시각을 조장한다는 사실을 언급한 바 있다. 사설과 컬럼의 내용들을 보면 저자들은 성서에 대한 다각적 해석의 노력과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성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직결시키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성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이론은 성서의 어느 한 군데에서도 찾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예수의 이웃 사랑의 구성원에서 철저히 배제되며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다 자명해지는 것은 제대로 논증되고 확증되어지지 않은 주제에 대해 무조건적인 편파 보도는 공적 언론 기관인 기독 저널리즘의 공정성에도 크게 위배된다. 이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들을 약자가 아닌 사회의 위협자와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 심각한 병리적 환자로 몰아가는 행태는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 권리 앞에서 반드시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더불어 동성애 뿐만 아니라 찬반의 양론이 성립하는 공적 주제에 대해

평가를 단지 성서 본문의 문자를 통해서만 결론 내리기에 앞서 동성애를 둘러싼 이전의 정치적, 사회적 연관성에 대한 성서의 삶의 자리에 대한 학제간의 연구가 동반되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의 권력 체제의 이해 관계 안에서 성적 차별과 불평등의 구조의 원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의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Chapter III
## 이분법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에 대하여

### A. 이분법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의 위험성

각 저널리즘의 사설과 컬럼의 분석을 통해 세상과 하느님 나라 즉 성과 속의 양분화된 용어들의 빈번한 사용 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도 교회와 개인 중심의 신앙적 주제들이 저널리즘의 주를 이루며, 내용들 또한 설교의 연장선일 뿐 사실상, 공적 언론 기관으로서의 저널리즘으로서의 공론의 장이나 여론 형성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시급한 현실임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앞서 밝힌대로 기독 저널리즘의 사설과 컬럼에 존재하는 거대담론을'이분법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이라 규정했다. 이 사유 방식은 인류의 역사 곳곳에서 부정적 결과물을 양산해 내었다. 이분법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에 관한 논의에 있어 먼저 이분법적으로 사유하는 인간의 관념적 사유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 방식이 구조화 되면서 권력이 수반되어 인류의 역사 안에서 불평등과 차별, 통전적 관점의 방해와 공공성에 대한 범주의 축소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분법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 거대 담론의 위험성은 사회의 권력을 통해 특정한 사고와 행위를 금지하고 억압하는 물리적 폭력 장치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데 이 권력은 지식과 담론을 적극적으로 창출해내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특정한 도덕률을 주조해냄으로써 그들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간다. 권력의 작용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권력의 주체가 아닌 권력의 객체들인데 이들은 내부로부터 통제 기제가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권력의 객체들은 권력 관계를 자신들에게 내면화해 자기 스스로 지배와 피지배자의 상황을 만들고, 이러한 담론의 기제는 사회 곳곳의 다양한 장치등을 통해 분산되어 권력의 궁극적 주체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일종의 네트워크 형태로

작동하는 것이다.[28] 이렇듯 이원론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은 단순한 사유 방식에 관한 문제가 아닌 권력의 작용의 중심적 담론이라는 것에 그 위험성이 크다 하겠다.

여성학자 정희진은 이분법적 사고의 핵심적인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지적한다. 첫째, 위계를 대칭으로 위장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은폐하고, 둘째는 '대립'하는 이항 외 다른 존재 혹은 다른 방식의 사고의 출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며, 마지막으로 남성과 여성의 구분은 이분법적 사고 방식의 원형으로서 모든 언어의 모델, 척도, 기원, 전형으로서 인류를 지배해 왔다는 것이다.[29] 이분법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은 우등과 열등이라는 위계주의적 특성을 강하게 지니며 우리의 역사 안에 여전히 존재한다. 더우기 이러한 사유 방식의 구조에 작용하는 힘의 논리를 통해 지배 계층은 이 구조를 종교화하여 사회 질서를 통제하고 유지하는 기제로 사용하고 있다. 이 사유 방식은 남성-여성, 정신-육체, 이성-감성, 초월적인 것-자연적인 것, 공적 영역-사적 영역과 같은 이분법적 구도를 만들어 냈다. 이러한 이분법에 대해 여성신학과 페미니즘은 인간 속의 다양한 요소들을 대립적인 것으로 분류함으로써 인간의 통전성의 파괴와 인간의 자연에 대한 착취와 파괴를 야기시켰다는 점을 지적한다.[30] 또한 세계의 본질을 정신과 육체라는이분법적 틀을 통해 성차별주의 이데올로기의 근거가 되었으며 이는 기독교도 그 영향력 아래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여성신학자 손승희는 "이분법적 틀은 차별주의적 현상을 철저히 정당화하고 합리화해 온 것이 기독교 신학이었으며 이러한 기독교 신학은 한쪽 집단의 이기심 추구에 독점적으로 이용당해 왔으며 조작되어 왔다"고 주장한다.[31] 또 다른 여성 신학자 류터(R. R. Ruether)의 정통기독교 비판에

---

[28] Jürgen Habermas, *The Structural Tran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공론장의 구조변동 부르주아 사회의 한 범주에 관한 연구*, trans. 한승완 (서울: 나남출판사, 2004), 149.

[29] 정희진,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30.

[30]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20.

[31]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190.

따르면, 상징체계와 관념체계가 곧 종교적 신화와 신학적 사상체계라고 할 수 있으며, 종교의 이데올로기성 내지 사회구조와의 밀접한 관계를 무시할 수 없다고 한다.[32]

강남순 교수는그리스 철학의 이분법적 경향이 기독교 신학에 막대한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기독교 사상의 이분법적 구조를 담게 되었고 이는 타자와 대립관계에 놓여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의 자기 이해, 그리고 세계와 대립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거룩한 초월적 존재로서의 하느님 이해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33]

미국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리처드 마우(Richard Mouw)는신앙과 문화의 분리에 대해서도 인간의 제한된 인식안에서 신앙과 문화가 이분법적으로 해석되어 세속적인 비기독교 문화와 분리하여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을 정죄해야만 한다고 설명한다.[34] 이러한 이분법적 틀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존재하는 모든 공간인 가정, 학교, 사회 공동체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원용진 또한 구조주의나 이전의 서구 철학은 양립하는 짝패 구조가 있으며 이 짝패 구조를 통해 특정 이념이나 항목을 선호하게 된다고 주장한다.[35] 이 짝패 구조를 통해 대중문화와 고급문화를 분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분리의 주요 원인을 이분법이라 본다. 또한 이러한 고급 문화는 이분법적 구조 안에서의 이질감과 우월함의 심각성은 사회를 지배할 만큼의 '큰 담론'으로서 지위를 누려 왔다는 것을 설명한다.[36] 특히, 성적 담론에 있어서도 성에 관한 윤리적 이분법이 구축되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

[32] 손승희, *여성신학의 이해*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9), 45.
[33] 손승희, *여성신학의 이해,* 20.
[34] 리처드 마우, *문화와 일반은총,* trans. 권혁민 (서울: 새물결플러스, 2001), 20.
[35] 원용진, *새로 쓴 대중문화의 패러다임*, 420.
[36] 원용진, *새로 쓴 대중문화의 패러다임*, 418.

후기 구조주의를 대표하는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에 따르면, 근대 사회에서의 성은 단순히 개인의 윤리적 사안이 아니라 국가의 적극적 개입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전환되었다. 그 이유는 성은 인구 증가와 연관되어 있고 이는 곧 국력과 관계되는 문제이다. 공적 담론들은 이러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37] 성적 담론들은 정상적인 성과 불법적인 성, 도덕적인 성과 비도덕적인 성, 합법적인 성과 불법적인 성 등의 이분법이 형성되었고, 이것은 근대적 지식들에 기초함으로써 보편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근대 과학은 이분법에 근거해 잘못된 성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아동의 성욕, 범죄자의 성욕, 성적 도착, 동성애 등 이른바 근대 사회의 국가적 필요성에 반하는 것들이 그 대상이었으며 동성애는 철저한 과학적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성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이원론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이 철저히 권력의 틀로서 동원되었고 이로 인해 인류의 역사 안에서 불평등적 구조를 구축하고 이로 인한 수 없이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해 내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러한 사유 방식을 통해 각종 차별들이 정당화 되었으며 이로 인해 인간의 기본권까지도 경히 여기는 악행들이 지금까지도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원론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이라는 거대 담론의 해체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B. 이분법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의 현상화

1. 성차별주의 이데올로기

성차별주의 이데올로기적 요인 가운데서 가장 깊게, 가장 넓게 자리하고 있는 요인이 이분법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의 틀임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여성 신학자 손승희는 그의 저서 *여성신학의 이해*에서 “유다적 묵시문학 사상과 헬레니즘적 영지주의 사이에서 하나의 절충적 형태를

[37] 원용진, *새로 쓴 대중문화의 패러다임*, 148.

지닌 고전적 기독교에는 이원론적 양상을 띠고 있는 양상의 틀이 존재론, 인식론, 도덕적 지각에 있어서 모두 이것을 기본틀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38] 이러한 고전 신학의 이분법적 틀은 여성신학 뿐만 아니라 모든 해방신학에서 큰 장애가 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고전 신학의 이분법적 틀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억압을 합리화시키는데 사용되어 왔는데 이는 성과 속, 영과 육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라는 양극화의 모델로 진정한 관계 양상을 왜곡시켰다.[39]

여성신학자 류터에 의하면, 여성에 대한 구조적 억압의 기제로 사용되어 왔던 이분법적 사고의 틀은 중세 교부들에 있어 세 가지 여성상의 유형을 분류했다. 첫째는 창녀이다. 창녀 타락의 본질이며, 죄많은 육욕을 대표하는 여성으로머리에 반항하는 여성의 대표로 간주되었다. 둘째는아내로 육체로 정의된 여자로 머리에 복종하는 여성이다. 셋째는 처녀로서 육체를 넘어선 정신적 차원으로 승화된 이상적 여성상이다. 이 여성상은 성모 마리아론을 만들어내었다.[40] 이처럼, 남성들의 관점으로 정립된 여성상은 남성은 물론 여성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쳤는데 여성들은 남성에 의해 규정되어진 잣대에 자신을 맞추어 남성들이 원하는 여성상이 되도록 스스로 이상적 여성상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여성들간의 갈등과 충돌을 증폭시켰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 내에서 여성들의 신앙 척도로 이용되기도 한다.

2. 사회와 교회내에서 여성 차별 제도

한국 교회는 여교역자의 차별적 지위, 여성 목사 안수 차별, 여성도에 대한 성차별, 교회 여성 지도자의 인식 문제 등 남성들의 보조적인 역할 이외에 여성 참여를 억압하고 교육의 기회 또한 차단했다. 오직 가정의 가사 노동이 교회 봉사의 연장은 곧 남성들의 권력 구조를 지키기 위한

---

[38] 손승희, *여성신학의 이해*, 47.

[39] 손승희, *여성신학의 이해*, 50.

[40] Rosemary R. Ruther, *Liberation Theology* (New York: Paulist Press, 1972), 107-8.

수단으로 이용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이라고 간주되어왔던 부엌, 아이들, 그리고 교회에만 관심을 두게 했다.[41] 또한 상부구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가부장적 성서 해석을 통해 성서가 가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42] 이로 인해 한국 여성들은 이미 성서를 통한 이론의 억압과 그로 인한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억압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억압적 경험은 한국 교회 초기의 형태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현재까지도 교회 내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큰 변화가 없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여성들 스스로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볼 때 교회내의 이원론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그리고 그 거대 담론의 부정적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인식할 수 있는 척도라고 할 수 있겠다.

3. 왜곡된 영성의 개념

한국 교회의 신앙 유형 중 하나는 영성의 개념이 단순히 신비주의적 신앙체험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다. 한국 기독교는 부흥회, 사경회, 기도회를 통해 경험한 신비주의적, 영적 체험등을 특별한 강조하며 이러한 체험은 개인의 신앙과 구원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에서의 영성은 이러한 신비주의적 신앙 체험을 중심으로 신유와 축귀를 위한 신비하는 능력, 기복 신앙만을 추구하는 왜곡된 영성으로 변질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교회 내에 만연해 있는 성과 속의 이원론적 개념을 통해 사실상 목회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강화되고 내재화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 한국 교회나 한인 교회의 예배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설교는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점을

---

[41]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163.

[42] Elisabeth Schüssler Fiorenza, *Inmemory of Her: A Feminist Theological Reconstruction of Christian Origins* (New York: Crossroad, 1983), quoted in 여성신학회, *성서와 여성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104.

성서해석은 중립적인 것이 아닌 해석자의 이익에 강력하게 연결된 정치적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

감안할 때, 세상은 사단의 소유이며 사단의 힘으로 지배되고 있는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하여 교회에 모여야 한다고 독려하는 설교나 성도들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닌 천국이며 세상은 단지 나그네처럼 머물다 가야한다는 가르침 또는 세상은 마지막 날에 불에 타 소멸될 곳으로의 묘사를 통해 세상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성도들에게 내면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고는 기독교의 영적 생활의 전통에서 볼 때, 영성의 형성은 세속을 떠난 다른 세계를 의미하였다. 그러므로 고통, 죄, 유혹, 죽음이 있는 이 세계를 영성의 장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43] 이러한 영성의 개념은 기독교인들의 이성적인 판단과 인격의 성숙과 자아 성찰이라는 개념을 무의미하게 만들었고,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현존하심의 의미를 잃어버렸으며, 성도들의 삶을 오직 교회 공동체 안에만 한정시키는 오류를 범했다. 이러한 오류는 세상과의 소통을 마비시켰으며 이로 인해 현재의 기독교는 이 땅의 하나님의 참된 창조와 다양성 그리고 복합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근간이 되었고, 사회와 교회 내의 불평등적 구조와 성서의 전문적인 해석 올바르고 건강한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키는 결과물을 초래하는데 그 원인이 되었다.

손승희 교수는 이러한 왜곡된 영성을 한국의 특수한 역사적 정치적 상황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44] 한국의 정치와 종교의 분리 정책은 성령운동 내지 신비주의 영성운동이 한국교회에 탈지성적, 비사회윤리적 전통의 원형이 되었고, 이러한 정교분리 정책은 교회가 사회와 세상의 소망 없는 곳에서 떠나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를 맺는 것으로만 강조했으며 정치적인 것에서 떠나 영적인 것에 전적인 힘을 쏟도록 했다고 설명한다.[45]

---

[43] Elisabeth Schüssler Fiorenza, *Inmemory of Her*, 151.
[44] 손승희, *대한제국연구 Ⅲ*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1985), 89.
[45] 손승희, *여성신학*, 146.

4. 폭력의 정당화

이분법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에 있어 위험한 현상 중 하나는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옳고 그름, 성과 속, 교회와 세상, 남성과 여성, 정치와 종교 등의 이분법적 구조에서 권력을 통한 위계구조와 차별 구조에서는 인권이라는 평등적 개념은 없다. 세상은 불타 없어지고 더러우며, 하나님의 영역 밖에 있다. 힘이 약한 자들은 무능력하고 범죄를 저지르며, 게으르고 무식하다. 또한 여성들은 남성의 필요를 위해 존재하며 소유물로 인식된다. 이러한 사고에서 나오는 행위들은 역사 안에서 수 없이 많은 언어와 육체적 폭력으로 현재에까지 정당화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국의 속담에서 보여지듯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또는 '여자는 사흘 건너 한 번씩 맞아야 한다'등의 여성 비하와 비인간적묘사는 남성에게 예속되어 살아야하는 자로 여성을 치부한다. "천존지비", "남존여비", "남녀칠세 부동석", "절열관", "삼종지고", "여필종부", "내외법" 등과 같은 관습법들은 여성에 대한 차별 구조와 억압 그리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제도이기도 하다.[46] 앞서 이분법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의 위험성에서 언급했듯이 권력은 폭행, 협박, 위력, 위계라는 구조를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이러한 구조를 통해 암묵적으로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다. 정치와 종교의분리는 종교를 사회로 부터 고립시키고 사회의 공적 이슈에 대한 저조한 참여의 결과를 부추기는 결과뿐만 아니라 종교 내에서 발생되어지는 다양한 불법적 행위와 폭력에 대해서도 종교라는 특수성을 빙자해 사회법의 테두리에서 쉽게 빠져나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현상은 기독교에서도 교회 세습, 공금 횡령, 목회자의 성폭력, 세금 포탈 등의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게 되었다. 종종 이러한 폭력은 집단주의를 형성하여 집단 따돌림의 사회 현상으로 부각되기도 한다. 이러한 예는 특히 동성애를 통해 확연히 드러나는데 이는 사회적 집단 따돌림과 폭력의 정당화에서 빚어진 결과물이라 할 수

[46] 여성신학회, *성서와 여성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108.

있다. 이처럼, 남성과 여성의 연애 방식을 단순히 이성애와 동성애로만 해석하고 이성애는 보편적이고 동성애는 특수한 것이라는 이원론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은 역사 안에서 오랫 동안 다수로서 권력을 누려 온 이성애자들의 폭력의 정당화를 합리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인권 운동가 정희진은 특수성의 개념이 예외를 만드는 배제 정치의 핵심이라고 지적하며, 강자의 보편만이 보편이고, 약자의 보편은 특수로 간주된다고 강조 한다.[47] 이러한 특수는 권력에 의해 언제든지 평등, 자유, 민주주의 같은 가치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는 보편적 주체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이해 관계에 따라 임의적으로 정해진다. 다시 말해, 동성애에 대한 개념도 이러한 지배 전략을 통해 보편적권력자들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폭력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47] 정희진, *양성 평등에 반대한다*, 45.

Chapter IV

이분법적 패러다임의 유래와 기원

나는 기독 저널리즘에 탈이분법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을 통한 평등적 시각을 주장함에 있어 이분법적 개념의 유래와 그 기원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원론적 구조 에 의한 성서 해석이 기독 저널리즘의 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 영 향은 동성애라는 특정 주제에 대한 강한 혐오적 반응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성서의 이원론적 패러다임이 특수한 상황과 더불어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생성되었음을 인지한다면 세계화 시대에 탈이원론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이 요구되어지는 변화와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A. 영혼과 육체, 성과 속에 관한 이분법적 개념의 유래

나는 앞서 한국 기독교와 교회는 저조한 사회 참여와 분리를 조장하는 결과에 이원론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이 큰 원인 중 하나임을 명시한 바 있다. 또한 현재의 기독교와 교회가 사회와의 소통과 배제의 결과물을 양산한 원인의 그 중심에 이 거대 담론인 이분법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이 존재함을 여러차례 주장했다. 이원론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은 특수한 시대적 배경의 산물이다. 나는 신약학자인 그레고리 라일리(Gregory J. Riley) 교수의 독보적인 연구를 중심으로 이원론적 사유 방식의 유래와 기원을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라일리 교수는 기독교의 근본적 문제점들과 어려움을 발생시킨 원인을 성과 속의 이분법적 분리를 교회가 오해하거나 무시함이라 지적한다. 그는 성과 속의 이분법적 분리를 오늘날 그리스도교의 중심교리라고 지적한다.[48]

[48] Gregory J. Riley, *하느님의 강*, trans. 박원일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5), 19.

라일리 교수에 따르면, 고대에는 현대의 유대교, 기독교그리고 이슬람교에서 처럼 유일신 사상이 아닌 많은 신들과 지방 신들이 존재하는 다신론의 신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 신들은 인간들의 모든 생활 영역에 존재했으며 인간과 같은 삶을 영위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존재들이었다.[49] 이 거대한 신들은신중의 신, 신들, 지방 신들, 신적존재들(영웅), 그리고 인간들이라는 피라미드를 통해 그레코 로마의 종교 안에서의 신들로 구조화 된다. 이 피라미드 구조는 제국주의에서 힘에 의한 권력 지배 구조와 비슷한 양상을 띄며, 인간은 신의 필요를 채우는 가장 낮은 계급에 속했고, 신들이 인간들의 필요를 채워준 것은 이 땅에서 장수와 가난, 질병과 가뭄 등을 해결해 주는 것이었다. 또한 인간들은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신들에게 제사를 통해 예배를 드렸으며, 신들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것이 인간의 존재 이유였다. 라일리 교수는 역사적으로 유일신론과 영혼의 개념, 이 두 사상들은 서로 관련이 없으며, 영혼과 육체의 이원성을 모르는 유일신론자가 있었으며, 다신론의 이원론자도 존재했었다고 설명한다. 고대의 신들은 비록 재료는 인간들과 다를지라도 신들은 분명 물질적 재료로 만들어진 육체를 지니고 있었으며, 고대에는 육과 영혼의 이원론적 개념이 없었다. 그러나 오르페우스교와 관련된 운동들이 인간들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과 과학의 발전으로 우주의 이해와 신에 대한 이해에 변화를 가져왔다.[50] 이 새로운 이해 안에서 육체는 땅에 속하고 영혼은 하늘에 속했다. 과학이 보여주는 바는 육체는 무거운 물질이고 땅에 속하며, 영혼은 하늘에 속한 것으로서 그것의 타당한 운명은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소수의 그리스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에 의해 그리스도교 사상의 근본을 이루게 되었다. 현대 유일신론의 발달에 기본이 되는 과학적 진척은 인간이 단지 진흙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 영혼과 육체라는 두 가지

---

[49] Gregory J. Riley, *하느님의 강*, 47-80.
[50] Gregory J. Riley, *하느님의 강*, 213. (5 장의 영혼과 육의 분리 부분 참고)

성질을 가진 이원론적 존재라는 인식이 사람들간의 평등 의식을 위한 초석이 되었다. 또한 선과 악의 이분법적 개념도  인간이 세상 안에서 경험하는 악, 고통 부정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이는 악의 문제를 일으키는  근원으로서 신의 존재를 의미한다.

신약학자 박경미 교수도 전통적으로 이분법은 선신과 악신의 양립을 인정하는 이원론적인 종교들에게서 분명하게 나타나며, 초대 그리스도교 교인들도 자신들이 경험하는 악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이분법적인 개념들을 사용했다고 한다.[51] 그리스도교인들과 그들을 핍박했던 로마인들과의 대립은 대개 이 문제를 중심으로 일어났다. 로마인들에게는 악마는 존재하지 않았고 그들은 단지 일원론의 세상속 에서 전통적인 신들을 섬겼다. 반면에 그리스도교인들이 보기에 로마인들은 악마의 엄청난 음모의 일부로서 로마 신상들에게 힘을 불어 넣은 악마의 세력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라일리 교수는 우주적 이원론은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 악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포로기 이후 작품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언급한다. 포로기 이전의 성서에서 사탄은 정치, 전쟁, 혹은 다른 지상의 일들에 관해 '대적자' 정도로만 표기되지만 포로기 이후의 성서 작품에서는 그 개념이 이원론 사상의 영향으로 점차 변화되어 사탄은 악마가 되었고, 디아볼로스로 번역되었다. 이러한 이원론의 사상의 변천은 악마는 심판을 받고 멸망되어야 한다는 사상이 중심적이었고 이는 역사상 처음으로 '우주적 종말론'을 등장시켰다고 한다. 이러한 우주적 종말론은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의 국가적 경험 안에서 국가 회복으로서의 종말론으로 발생하고 발달하였다. 또한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역사를 통하여 주위의 가나안과 고대 근동 문화의 사고 방식을 공유하여 새로운 영감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전통과 외래의 새로운 사상을 섞어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종교적 신앙의 표현을

[51] 박경미, *예수 없이 예수와 함께*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3), 331.

만들어냈다.이러한 우주적 종말론은 이 땅의 악마를 심판할 천상의 구원자라는 개념을 도출하게 된다. 라일리 교수의 설명에서 흥미로운 것은 거의 1400 년 동안 팔레스타인에서 민족 공동체를 이루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천상의 구세주를 전혀 찾고 있지 않았었다는 점이다. 신의 세계로부터 구세주가 올 필요가 있게 된 이유는 사실상 바로 악마 때문이었고 이 악마는 세상을 다스렸다.[52] 우주적 이원론으로부터 파생된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은 기독교 전통에 그대로 영향을 주며 기독교 경전인 신약과 구약성서, 고전 신학사상, 초대교회와 교회사에 근거를 둔 원칙으로 적용되어 왔다. 중세 기독교는 수도원적 종교로서 세속와 분리되어 영적 생활을 추구하며 현세보다는 내세에 관심을 지니게 되었다. 이원론적 개념은 직업관에 영향을 주기도 했는데, 육체 노동을 경시하고 기도나 묵상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에 귀천이 생기게 되었다. 성과 속의 이분법적 사고는 초대 기독교가 지니고 있던 공동체 의식의 소멸을 야기시킨 원인이 되기도 했으며, 그 결과로 지금의 교회에 대한 세상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개인중심적인 신앙의 행태들이 팽배하게 되었다. 성과 속의 구분은 교회 내에서 교회와 성직자는 거룩한 존재로 세상과 평신도는 세속적인 존재로까지 확대 되었다.[53]

B. 한국 교회 안에서의 차별적 구조의 형성 시기

앞서 나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의 이원론적 개념의 유래를 통해 이스라엘 상황의 특수한 삶의 자리와 경험등이 복합적 원인이 되어 형성되었음을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원론으로 인한 차별적 구조가 한국에서는 언제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 처럼, 한국 사회와 기독교 그리고 한국 교회의 특수적 상황과 삶의 자리에서 생성되었기

[52] 박경미, *예수 없이 예수와 함께*, 186.
[53] 이경숙 et al., *기독교와 세계*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3), 155.

때문이다. 한국의 초기 기독교의 상황을 짐작해 보면 양반과 상놈, 여성과 남성의 극심한 차별적 사회 구조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모두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기독교의 선포는 인간의 평등, 해방과 자유였을 것이다. 구조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성과 신분 차별을 파괴하는 기독교적 선포는 초기 한국 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음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이러한 평등 구조가 차별 구조로 바뀌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인가? 한국의 사회와 교회 내의 차별 구조에 관한 연구는 여성신학자 강남순 교수의 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강남순 교수에 따르면, 한국 교회의 차별 구조는 1907 년 조직 교회가 시작과 그 맥을 같이 한다. 강남순 교수는 한 종교가 그 사회에서 조직화되고 자리잡히기 시작하며, 그것이 지녔던 초기의 유토피안적 해방의 가치가 왜곡되고 더 나아가서 상실되면서 그 종교는 위계적인 권위구조를 그 안에 고착시키고 가부장제적 체계가 확립된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고등종교는 한 사회에서 안정된 종교로 자리잡히게 되면서 보수주의적, 가부장제적, 위계주의적 구조를 여지 없이 강화하는 종교가 되는데 이러한 한국 교회들은 유토피안적인 해방적 프락시스를 심각하게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한다.[54] 계속해서 강남순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조직 교회가 시작되면서 여성의 차별과 소외가 심해졌으며 여성들이 성직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고 설명한다. 1907 년이전에는 직제가 있었고, 장로가 남자였지만 숫자도 적었고, 성직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아설교나 교회운영 등에 큰 성차별이 없었다. 그리고 교회헌법이 없어 이들을 정당화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1907 년 독노회가 조직되고 헌법에서 "대한 예수교 장로회"의 규칙이 만들어지면서 성직 개념이 확립되고 남성중심적 교회로 제도화 되었다. 또한 여성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전도 활동도 대단하였지만 가부장적 사회질서에 젖은 관습적 사고와 서구 가부장제적 교회제도가 자연스럽게 결합되었기

---

[54] 강남순, *페미니스트 신학: 여성, 영성, 생명*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2), 331.

때문이며, 뿐만 아니라 성직 개념의 확립은 교회 전체를 위계적 구조로 만들어 하나님, 남성성직자, 남성평신도, 여성평신도라고 하는 계급적 관계구조를 이루었다고 설명한다.[55] 이러한 구조는 한국 교회 운영 전반에 걸쳐서 나타났고 한국의 군사정권과 맞물리면서 더욱 여성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종교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한국 교회의 구조는 여성 목회자에 대한 낮은 신임도와 여성도들의 여성 목회자에 대한 불신 정도, 사회 저참여, 교육의 부족과 사회 운동의 참여와 결여등의 구조적 장애물의 결과를 도출해내었다.

C. 특수한 삶의 자리의 결과물인 성서

성서는 이스라엘과 각각의 초대 공동체들의 특수한 삶의 자리에서 발생되어진 다양한 공적 이슈들과 갈등 속에서 나름의 기독교적 합의와 대안을 끌어낸 사회적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구약성서에서 신약 성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경험은 한 사람의 신비한 경험에만 촛점하기 보다는 저자와 주요 인물들을 통해 국가적, 공동체적 합의를 이루고 있음에 반드시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 그리고 예수 사후 형성된 초대 기독교 공동체, 그리고 바울이 형성했던 초대 교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동체들은 그들의 특수한 삶의 현장에서 공동체에서 발생되었던 사회적 공적 문제들에 대한 그 답과 대안을 성서 안에서 제시한다. 그렇다면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4 차 산업 혁명의 도래를 맞는 현대 사회에서 발생되어지는 수 없이 다양한 공적 이슈들과 공동체들에 대한 기독교와 교회의 입장과 그 태도는 어떠한가? 안타깝게도 기독 저널리즘을 통해 본 한국 기독교와 교회의 입장은 당시 공동체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지적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문자적 해석을 통해 차이 보다는 차별이, 이해 보다는 배제가, 포옹하기 보다는 밀어내기에 관심 보다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성차별의 중심에 있는창세기의

[55] 여성신학회, *성서와 여성신학,* 120.

창조 설화는 기원 전 1400-1500 년대의 이야기가 여전히 거대한 담론으로 고착되어져 최초 인류의 탄생과 원죄와 더불어 성차별의 근거와 동성애를 죄로 규정짓는 근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하게 재고해 봐야 한다. 그렇다면 차별의 중심에 있는 창세기 창조 설화에 대한 다른 관점의 접근은 문자적 해석에만 익숙했던 교회와 독자들에게 새로운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의미가 있다 하겠다.

구약 성서학자 이경숙 교수에 의하면 창세기 1 장과 2 장은 물리학적, 생물학적 또는 역사적 주제가 아님을 강조한다.[56] 이경숙 교수는창세기의 1 장과 2 장의 이야기를 원인론적 설화(aetiologische Sage)라고 칭하는데, 인간의 삶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어떻게' 혹은 '왜?'라는 물음에 대해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이야기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신학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57] 다시 말해, 창세기 1 장과 2 장의 이야기는 인간의 삶의 자리에서의 불평등과 억압의 상황들에 대한 다양한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신학적, 고백적 대답이라는 것이다. 창세기의 저자들은삶의 자리에서 도출된 다양한 공적 문제에 대한 고통과 그 고통의 원인들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이것에 대한 답을 찾고자 노력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경숙 교수는 창조 설화를 통해 전해지는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점이라 강조한다. 이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다. 또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동등하고 협력하는 파트너의 관계를 맺기를 말하고 이와 더불어 피조 세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 주장한다.[58] 앞서 언급했듯이 창조의 이야기는 인류의 삶 전체를 그 대상으로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십계명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와 인간과 인간

[56] 이경숙 et al., *기독교와 세계*, 60.
[57] 이경숙 et al., *기독교와 세계*, 59.
[58] 이경숙 et al., *기독교와 세계*, 62.

사이의 관계에 대한 공공성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다.[59] 또한 출애굽을 통해 국가 공동체 간의 억압의 구조에서도약한 공동체에 대한 해방을보여주고 있으며 그러한 공동체에게 삶 속에서 행해져야 하는 율법은 공동체원 간의 지켜야 할 사회법으로 발전한다.[60]

한편, 신약학자 박경미 교수도 모세와 맺은 십계명과 율법은 마을 공동체를 유지하는 사상이자 토대였다고 설명한다.[61] 박경미 교수는모세 계약의 핵심을 이루는 계명에는 매우 해방적이고 약자를 보호하자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은 농업에 기반한 마을 공동체에서 나눔과 협동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는 규범이었으며, 이스라엘은 이것을 하나님에게서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구약의 모세 계약의 해방적 계명들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종교적인 형식을 띄고 있지만 사회 기능 면에서 본다면 시골의 마을 공동체의 삶의 보호와 경제적인 관계의 회복에 그 강조점이 있다. 신약 성서에서는 예수의 사역과 예수 사후 복음서 저자들을 통해서도 공동체적 개념의 중요성이 신약의 전반부에 나타나고 있다. 처음으로 성령의 현존함을 나타내는 사도행전에서 공동체적 개념이 형성된다. 또한 예수 이후의 복음서 또한 저자들이 각 시대의 공동체의 특수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불평등적인 주제들에 대해 대면하고 있으며,

---

[59] 손규태, *하나님 나라와 공공성: 그리스도교 사회윤리 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163-5.
손규태에 의하면, 창세기의 1 장의 7 일간의 창조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전 인류에 대한 창조이며 이는 인류의 공생을 위한 공적 영역인 것이다.

[60]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국가 공동체

[61] 박경미, *예수 없이 예수와 함께*, 79.
안식일법은 안식일에는 노예에게도 일을 시키지 않으며 해방의 시간을 함께 나눈다, 안식년법은 농토를 6 년 동안 경작하고 7 년째에는 놀리는 제도로서 땅의 기능을 회복하고 그와 함께 경제적 약자들에 게 나누어 주기 위한 것이다. 노예 해방법은 6 년의 노동을 한 노예를 7 년재인 안식년에는 풀어주는데 노예 가 일상적이던 고대 사회에서 이는 아주 혁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희년법은 50 년마다 돌아오는 기쁨의 해를 말하는데 희년에는 땅과 집을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주고, 노예가 된 이를 해방시킨다. 이것은 약자를 희생시켜 부를 축적하는 방식을 주기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이며 이 법 덕분에 가난한 자들은 경제적으로 다 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사회는 평등한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었다, 과부와 고아에 대한 보호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권고가 있다.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바로 ‘나라’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듯이 개인적인 개념이 아닌 바로 공동체적 개념으로 선포되어지고 해석되어졌다. 더불어 예수의 활동과 선포되어진 비유를 통해 사회의 현실적인 불평등적 구조라는 현실적인 상황의 중심에서 선포되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동체적 개념은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통해 더욱 강조되어진다. 예수의 비유를 이해하기 앞서 예수의 삶의 자리에 대한 고찰 또한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하는데 1 세기 유다와 갈릴리 민중의 삶의 자리는 부거워지는 세금과 국가의 폭력 그리고 성전세에 대한 이중고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위기에 빠진 나눔과 협동의 공동체적 삶을 부활시켜 서로 돕는 사회관계를 회복시키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한다.[62]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삶의 기반이 무너져가는 이들을 향한 것이었으며, 예수는 로마의 군사 폭력과 경제 착취로 인한 찢긴 상처를 치유하며 하나님 나라를 제시해 삶의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했다.[63] 예수의 선포에서 가장 잘 알려진 비유는 다른 공동체적 삶의 존중과 배려의 모습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 잘 표현되어 있다. ‘비유’는 아주 독창적인 구전 문학 양식을 사용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그리고 있다.[64]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한 번 쯤은 들어본 적이 있는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자. 박경미 교수는 이 비유에서 율법학자의 질문과 예수의 대답에 주목하고 있다(눅 10:30-35,

---

[62] 박경미, *예수 없이 예수와 함께*, 33.

[63] 박경미, *예수 없이 예수와 함께*, 43-58.

산상수훈의 내용이다. 평지 설교로 일컫는 것이 더 바람직한 마태복음 5-7 장과 누가복음 6 장은 다소 편집 과정과 저자의 관점에 따라 차이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며 그들에게 행복이 있을 것이라 선포하고있다.

[64] 박경미, *예수 없이 예수와 함께*, 103-5.

예수의 비유는 매우 독특한 것으로 구약 성서나 그리스 문헌 작품들에서도 그 유형을 찾아 보기 힘들다고 한다. 또한 예수의 비유는 일반적인 격언이나 경구, 속담 같은 것들과는 그 형태도 다르다. 비유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비교인데 비유는 직접 말하려는 내용을 다른 것으로 통해 비교함으로써 우회적으로 가리킨다. 이는 하나님 나라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대상과 지어 낸 이야기를 통해 생생하게 제시하며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 쉽고 인상 깊제 전달한다.

표준새번역). 율법학자의 질문은 ‘누가 내 이웃인가’였는데 이 비유는 ‘누가 내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고 있다는 점이다.[65] 이 비유에서 예수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증오와 분리의 갈등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인에 대한 통념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는 갈등의 맥락 속에서 인간이라는 기본에 촛점하여 구체적인 한 인간이 인간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 한다.[66] 또 다른 유명한 비유는 잃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기독교인들에게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다(눅 15:11-32, 표준새번역). 이 비유는 대부분 돌아온 아들에 대해 촛점을 맞춰 하나님의 품을 떠나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많이 해석되고 설교되어졌다. 그러나 누가복음서에만 나오는 이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에는 고대의 관습과 통념이 자리하고 있는데, 유산을 받는 장남과 차남 그리고 그 관습과 통념의 중심에 아버지가 서 있다. 박경미 교수는 이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의 해석을 장남과 차남의 경쟁 구도에서한 등장 인물을 희생시켜 다른 등장 인물을 영웅으로 만들지않고 그들 모두와 화해하는 아버지의 상을 그려낸다고 해석한다.[67]

앞의 논의를 통해 성서가 사회의 당시의 전통과 관습 그들의 삶의 자리에선 벌어지는 삶의 주제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발생되어진 다양한 주제에 대해 성서를 기존의 교리와 설교와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 보았다. 새로운 관점은 성서의 이해와 해석이 보다 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부분으로 우리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온다. 이러한 성서에 대한 이해와 해석 방법은 삶에서 발생하는 수 많은 갈등에 대해 성서를 통한 직접적 변화와 화해를 이루어내는데 중요한 기제가 됨을 보여준다.

---

[65] 박경미, *예수 없이 예수와 함께*, 107.
[66] 박경미, *예수 없이 예수와 함께*, 115.
[67] 박경미, *예수 없이 예수와 함께*, 130.

# Chapter V
# 공공신학의 주요 논리

## A. 용어 정의

나는 앞서 기독교와 한국 교회 그리고 한인 이민 교회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원론적 패러다임 사유 방식이 공적 언론 기관인 기독 저널리즘의 편집 구성과 내용 그리고 특히 동성애에 관한 기사에서 차별 구조를 확연히 드러내고 있음을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이원론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으로 인한 다양한 위험성과 부정적 현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에 이원론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의 해체를 위해 신학적 주요 기제로'공공신학'을 사용하고자 한다.

공적 기관으로서의 기독 저널리즘이 이원론적 패러다임의사유 방식에 근거하여 평등적 시각이 결여된 편파적인 기사 내용의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공공신학의 실천적 특성과 그 강조점에 대한 고찰은 매우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기독 저널리즘은 기독교, 교회 그리고 신자들의 삶이 사회와 분리될 수 없으며 사회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다양한 모든 이슈 또한 교회와 신자들의 현 주소임을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언론 기관으로서의 기독 저널리즘은 기독 공동체 안에서의 평등적 시각은 물론 사회 내에서의 불합리와 차별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 구조 변화에 대한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하는 선교적 기능까지도 감당해야 할 위치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더불어 공공신학의 강조점들은 기독 저널리즘의 내용에 있어 언론 기관으로서의 바른 기능과 역할에 대해 신학적 준거의 틀로서 바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기독 저널리즘에 내재되어 있는 이원론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의 해체를 통한 평등적 시각의 필요성을 공공신학이라는 이론적 틀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본 논문에서 주요 신학적 기제로 사용되는 'Public Theology'을 '공적 신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정리하고자 한다. 나는 본 논문에서 '공적 신학'이 아닌'공공 신학'으로 이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공적 신학'의 용어 개념에서 빚어지는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자 함이다. '공적신학'은 일반 은총에 근거하여 기독교인들이 교회와 사회의 일반적인 관심에 대하여 참여와 대화를 추구하는 신학이라고 정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이라는 단어 안에는 공적과 사적이라는 '공과 사'의 분리적 의미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또한 공적인 것을 정치적인 것으로, 사적인 것을 종교적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분법적 의미의 위험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나는 현대 교회의 주변화와 고립, 소통의 부재라는 부정적 결과물들이 종교를 삶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측면들과 분리를 조장하는 이분법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이 그 주된 원인이라 생각하고 이러한 차별을 조장하는 이분법적 패러다임의 사고 방식의 해체의 필요성을 역설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공적 신학'이라는 표현보다'공공 신학'의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나는 미국의 대표적인 공공신학자 스택하우스(Max Stackhouse)의 아래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스택하우스는 '공적'이라는 용어가 '정치적인' 것을 의미하고 '정치적'이란 말이 정부 정책을 뜻할 때,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사이의 구분은 근본적인 쟁점들을 분류하는데 결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68] 정치가 공적인 영역에 그리고 종교가 사적인 영역에 속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면 종교의 존재의 의미와 종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현저히 축소되어지는 결과 뿐만 아니라 공동체 사회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공적 이슈에 대해 상호 보완적 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이에 '공공 신학'은 종교의 영향력이 정치와 사회 전반의 공적 이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이는 정치 구조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68] 맥스 L. 스택하우스, *세계화와 은총*, trans. 이상훈 (서울: 북코리아, 2013), 163.

사용하기에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공공 신학’은 모든 인간에게 일반 은총의 평등성에 촛점을 두는 기독교적 윤리를 개인적이며 사적인 그리고 단지 종교 기관만의 경건의 차원에만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전역사 안에서 그리고 수 없이 다양한 인간의 모든 삶의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며 이러한 신적 경험이 곧 인간과 인간의 상호 간의 더 나은 삶의 질을 형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더불어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 보편적인 공공선이라는 일반적인 도덕적 개념을 기본으로하는 신앙인으로서 삶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종교적인 삶이 곧 정치이고 경제적 상황과 불가분의 관계임을 재인식하고 공동체에서 발생되는 모든 이슈에 대해 그 공공적 책임을 다해야하는 것이다. 이는 곧 공공신학의 지향점이 보편적 인간으로서의 이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미국의 신학자이며 철학자인 리처드 마우(Richard Mouw)는 오늘날의 세계화라는 시대적 상황 안에서 인간의 공통성에 대한 올바른 입장 정리의 필요성을 역설바 있다.[69] 리처드 마우의 언급의 현대의 세계화 시대에서 안에서 인간의 공통성과 보편적 인간으로서의 이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은 ‘공공신학’의 기본적 전제와도 일맥상통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의 “공공신학”의 사용은 공과 사의 이분법적 패러다임의 사고 구조를 넘어 더 넓은 의미로 ‘공공’에 함축된 평등적 의미를 더욱 정확하게 전달하며 보편적 인류애를 기본으로 하는 평등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신학적 대안이라 하겠다.

### B. 공공 신학의 정의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공공 신학’에 대한 연구들이 소개되고 ‘공공신학’에 관한 적용들을 시도하려는 활발한 연구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공 신학’을 통한 교회와 사회의 다양한

[69] 리처드 마우, *문화와 일반은총*, 17.

주제들에 대해 실천적 대안들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러한 '공공신학'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다양한 교회의 변화의  강조 그리고 방법론을 시도하는 것은 한국 교회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외와 고립이라는 결과로 기독교인들의 저조한 사회적 참여와 주변화 그리고 세계화 시대의 흐름과는 역행하는 소통의 부재를 재확인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재인식시키는 원동력이 필요한 상황임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겠다. 공공신학에 대한 대략적 개념을 정의해보자면,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서 공공주체, 공공영역, 그리고 공공의 목적을 탐구하고 이것에 대한 실천적 방법론에 있어서 성서적 근거와 신학적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그 강조점이 있으며, 교회 안 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그 종교적 담론이 이해되고 확신되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의도된 신학이다. 또한 '공공신학'의 주요 강조점은 종교의 성향인 개인적이고 고백적이며 교리적인 종교의 부분들을 공동체의 삶 전반에서 통전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세계화 속에서 다른 삶의 문화적 양식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다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평등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는 실천적 대안으로서의 신학이다. 공공신학은 신앙적인 많은 자원들을 시민사회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성찰함으로써 교회와 사회 공동체 안에서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고 기독교 윤리에 관한 성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해 먼저, 공공신학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공공신학자들의 공공신학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공공신학은 1930 년대 미국의 라이홀드 니버에 의해 전개되었다.[70] 시기적으로 공공신학은 제 1 차 세계 대전 후, 20 세기에 들어와서 등장하였는데, 1970 년대 미국 교회가 성장의 중단과 급속한 영향력의 축소로 위기를 맞이하여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학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공공신학을 등장케 했으며 이러한 공공신학은 교회가 공적

[70] 리처드 마우, *문화와 일반은총*, 19.

기능으로서의 회복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공공 신학'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970 년대 후반 시카고대학의 교회사 가인 마틴 마티(Martin Marty)에 의해서이다.[71] 마티는 '공공 신학'의 개념과 배경에 대해서 '공공의 선'(public good)에 관한 에큐메 니칼적인 결단의 내용으로 쓴 그의 책, 『공공 교회』( The Public Church ) 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마티(Martin Marty)가 이 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사회를 향한 교회의 무관심들과 철회들을 향한 반대 운동의 전개였다.

미국의 대표적인 공공신학자, 스택하우스(Max L. Stackhouse)는 다음과 같이 공공신학을 정의한다. "공적인 차원의 논의들이나 사회의 여러 영역들인 문화, 예술, 가족, 과학기술, 경제, 정치에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는 신학적 시도로서, 비기독교 전통들이나 자연과학, 사회과학, 역사와 과학 등과 더불어 비판적인 대화를 추구하는 신학 분야이다."[72] 스택하우스는 각 종교의 신자들의 내적 신념과 개인적 종교행위는 신자들의 삶의 공적 영역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착안하면서 종교적 가치체계는 특정 민족과 공동체의 문화적 습성을 특징짓고 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교육과 의료를 발전시키고, 결혼양식을 규정하며, 정치를 변화시킨다고 설명한다. 또한 '세계화'라는 용어의 해석을 통해 질서 있는 공간이라는 측면과 함께 변화의 가능성이라는 시간적 측면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는 '세계화'(Globalization)에서 '화'(ization)의 의미를 전 세계를 새로운 공동체로 형성할 수 있는 공통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이해한다. '화'의 의미는 새로운 어떤 것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이미 존재하는 것의 체계적인 변화를 보여 줄 수 있음을 언급했다. 스택하우스에 따르면, 세계화는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들을 변화시키는 것 이외에 종교나 신학, 혹은 윤리에도

---

[71] 이형기, *하나님 나라와 공적 신학,* 19.
[72] 이형기, *하나님 나라와 공적 신학,* 30.

변화를 줄 수 있음을 주장한다. 더불어 '세계화'로 인한 거대한 변화는 과거 역사적으로 다양한 사회를 형성하게 된 전통들과 그 전통들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재평가되어야 할 필요성을 대두시킨다. 이처럼 '공공신학'은 세계화라는 시대적 변화에 걸맞게 과거의 이데올로기와 거대 담론에 대해 그리고 전통적인 사유 방식에 대해 재고해 보려는 신학적 움직임이라 정의할 수 있다. 특히 스택하우스는 공공신학에 있어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하나됨을 강조한다. 그의 강조점은 바로 인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해 '공동의 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공동의 선'은 인간이 살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문제점인데 이는 세계화 시대의 인류에 요구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행동 양식의 하나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교회가 단순히 신앙의 사적 행위에 촛점하여 교회 중심의 신앙 생활의 지나친 강조나 사회에 대한 성도들의 무관심에 대해 철저한 쇄신이 요구되며, 더불어 정치적 구조의 변화와 인류 전체를 위한 도덕과 윤리의 실천을 강조하고 공공의 이슈에 대해 책임적 참여를 독려하도록 돕는다. 이처럼 공공신학적 개념은교회가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여 단순한 종교적 기구로만 보려는 시도를 거부하고 이러한 거부는 곧 성과 속의 분리를 조장하는 이원론적 패러다임 사고 구조의 해체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공신학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거부하고 이미 정치 안에 종교적 개념이 내재하고 있으며 종교적 신앙의 자리가 곧 삶의 자리임을 강조한다.

공공신학자 벤(Robert Benne)에 의하면, "공공 신학은 신학이 살아있는 종교적 전통의 공적인 환경인, 우리의 공동적 삶의 경제, 정치 문화적인 영역에로의 침투를 말한다고 정의한다.[73] 벤의 주장은 종교와 사회가 구별되는 것이긴 하되 서로 분리되어서는 안되며, 종교는 그 종교가

[73] Robert Benne, *The Paradoxical Vision: A Public Theoligy for the Twenty-First Century* (Minnepolis: Fortress Press, 1995), 4, quoted in 이형기, *하나님 나라와 공적 신학*, 68.

배제된 이전의 사회적 맥락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신학자 피어슨 (Clive Pearson)은 공공신학을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 모두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실천적 도덕적 사유와 자연법 및 공유된 도덕법의 호소와 공중도덕임을 강조하면서, 더불어 공적 신학의 용어에 있어서도 비기독교인과 대화하기 쉬운 용어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74] 그는 교회만을 위한 신학이 아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며, 그들을 설득하고 사회적 변혁을 위해 영향력을 갖는 보편적 신학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피어슨은 이어 사회의 주요 문제들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헌신에 있어 실천적 기반과 함께 지성적 기반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신학자 리처드 아스머(Richard Robert Osmer) 또한공적 신앙과 실천신학과의 관계성을 설명하면서 신앙과 신학은 분리된 어떤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75] 아스머의 주장에 따르면, 신학이 이루어지는 곳은 곧 삶의 현장이며, 그 현장은 우리가 서있는 그 곳임을 직시해야하고 삶의 현장에서부터 신학이 곧 실천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나"라는 실존이 신앙인으로서 공적 삶에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공공신학의 개념에서 보여지듯 종교는 결코 사적이라는 영역 안에만 속할 수 없으며, 삶은 종교를 기반으로 형성되었고 인류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종교의 자리는 곧 사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신학은 종교가 사회 속에서의 합리적인 성찰과 인간의 다양한 분야 안에서 제기되는 공적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감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공공신학'은 기독교 신앙의 사사화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세계화 안에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되는 논쟁을 다루는 학제라 할 수 있다.교회가

[74] 문시영,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70.
[75] 리처드 아스머, *공적신앙과 실천신학*, 11-3.

비기독교적 전통 및 타학제간의 비판적인 대화를 통하여 기독교의 교회의 사유화와 사적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사회의 불평등적인 구조의 변화와 공공을 위한 공동의 선으로서의 평등 공동체의 형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기독교적 실천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공공신학은 공동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공적 이슈에 대해 보편적 윤리적인 대안과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공론의 장을 통해 민주주의적인 소통의 통로로 사용되어여 함을 강조한다. 교회 안과 밖의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지닐 수 있도록 의도된 신학인 공공신학은 기독 신앙인들의 삶의 변화를 유도하는 단순한 신학적 방법론이 아닌 전 인류에게 주어진 창조의 섭리를 일깨우게 하는구체적인 실천이며, 기독 신앙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독려할수 있는 신학적 근거가 된다. 더불어 사회와의 소통으로 인한 관계 회복은 기독교의 참된 신앙의 구조가 사회의 정치적 구조로서 정착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더불어 모든 인류의 삶에 있어 양산되는 사회적 결과물들과 세계화 시대에 따른 윤리, 법체제, 경제, 정치 등의 모든 요소들이 곧 공공신학적 주제인 것이다. 이러한 모든 주제에 대해 교회와 기독 언론들은 기독교적 대안과 합리적인 성서 해석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목소리를 드러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기독교의 변증적인 기능에 있어 강조되어야 할 중요한 실천적 기능으 로서 교회와 교회 밖에서 소통될 수 있는 적절한 용어들의 사용을 통해 공적 언론 기관으로서 기독 저널리즘에 있어 사회를 아우르고 평등적 관점과 신학의 보편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C. 공공 신학의 실천적 특성과 강조점

1. 인간의 보편적 특성으로서의 신앙

신앙에 대한 기존 사고의 틀은 교회 내에서의 신자들의 종교 활동과 신앙을 동일하게 평가하며 신앙 중심은 곧 교회 중심의 생활을 의미하며 이는 곧 인간과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 로

여겨졌다. 이러한 사고는기존의 한국 기독교와 교회 내의 신자들의 활동이 하느님과의 관계로만 축소되며 신앙 생활은 교회 안의 공간적 의미로만 한정짓는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적극적인 포교 활동과 교회 예배의 참여가 신앙 생활의 전부인 것으로 강조됨에 따라 참된 신앙에 대한 정의와 그 의미가 지나치게 개인 중심적이고 교회 중심적으로 편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결과 신자들의 삶은 사회 생활과 종교 생활의 분리로 이어졌고 통전적인 변화와 사회의 불평등 구조에 대한 무관심과 사회 참여의 저조 현상이라는 당연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 공공신학에서는 이러한 교회와 개인 신앙 중심의 고정적인 틀을 인간의 보편성으로 확대시킨다. 신앙의 개념은 곧정치와 종교가 분리될 수 없으며, 인류의 모든 삶은 사회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모든 공공적 이슈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공공신학에 있어 신앙은 교회의 사회 참여와 종교적인 것을 넘어 인류에게 부여된 보편적인 특성이라는 점에 그 강조점이 있다. 이러한 공공신학의신앙에 대한 보편적이고 확대되는 개념은 현 세계화 시대에 적합하다고 본다. 특히 세계화 시대의 요구에 적합한 공공신학의 주요 개념 중 인간이 신적 존재와의 관계성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형성되는 관계의 보편성을 갖게 된다는 점은 아주 중요하다. 다시 말해, 신의 창조 세계 안에서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인간은 인간과 인간 간의 신앙의 보편성에 참여하는 것이다. 보편적 인간의 개념으로서의 신앙은 이분법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으로 인한 분리와 차별을 가져온 모든 구조에 대한 해체의 타당성과 평등적 공동체의 형성에 기본적 토대와 그 근거가 된다. 먼저, 보편적 인간의 개념으로서의 신앙에 대해신앙의 발달단계와 다른 이론들과의 상관관계를 모색하면서 신앙발달의 관점을 신학적, 철학적, 그리고 사회과학적으로 명료화한 파울러(H. Richard Niebuhr)의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신학자 파울러(H. Richard Niebuhr)는 교회와 사회문제들에 대한 신앙발달의 관점이 지닌 가치를 설명하면서 신앙 발달의 관점을 근대 및 포스트 모던 사회의 분석으로 확대한다. 파울러의

신앙에 대한 견해는 그의 신학적 인간론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그의 신학적 인간론에 따르면, 인간은 창조, 다스림, 구속과 해방에 대한 하나님의 활동에 참여하는 동역자로 이해되며, 타자나 대상과 관계를 형성하는 초월적 준거점에 마음을 집중하는 행위가 인간의 보편적 특성이라는 결과를 도출해 낸다. 그에 따르면, 모든 인간에게는 이러한 보편적 특성이 존재하고 기독교인들의 세상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책임적 자아로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특정한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방법을 모색해 내려고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어 파울러는 신앙을 근본적으로 공동생활의 문제라고 지적하는데, 신앙인들의 교회에 대한 의무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공적 삶 안에서 신적 연합의 실현을 향한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보편적 인간 초청에 대한 기독교적 응답이라고 주장한다. 파울러는 신앙의 보편적인 특성을 '탈인습적 신앙'이라 정의한다. 파울러의 탈인습적 신앙은 사람이 유아시절 받아들였던 인습적 신앙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세계관을 가진 문화 안에서의 인습적 신앙과 비교할 수 있어야함을 강조한다.[76] 이러한 탈인습적 신앙의 관점은 인간 존엄성의 원리에 따라 인권의 기반을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의 보편적 신앙은 인간의 삶을 형성하는 다양한 영향력과 관계들 속에서 통일성을 발견하고 이들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개인들은 신앙을 지니는 것이다. 파울러의 인간의 보편적 신앙에 대한 개념은 자신들의 전통에 관한 비판적 관점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공동체 안의 특수한 전통에 대한 한계와 타인에 대한 새로운 개방성을 획득할 수단으로서 다양한 신념과 실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특히 그의 신앙의 발달 단계는 신앙 발달의 촉진과 공적 삶의촉진의 깊은 연관성을 보여준다. 이렇듯 파울러는 인간은'하나님'과 '신앙'을 서로 지속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는 존재로서 이해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기독교 신앙이 개인의 문화와 사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76] 리처드 아스머, *공적신앙과 실천신학,* 301.

파울러는 “문화는 하나님이 존재안으로 들어옴으로써 비로소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여전히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의 실재이다”라고 정의한다.[77] 단적으로 공적 삶의 참여는 교회의 의무가 아닌 신적 연합의 실현을 향한 동역자로서의 하나님의 보편적 인간 초청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인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파울러의 의견과 더불어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윤리학자인 리차드 니버(Helmut Richard Niebuh)는 ‘대화적 인간’을 제시하면서인간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니버의‘대화적 인간’의 제시는 타자들과 상호작용하는 전체적 모습에 대해 유연한 반응이 필요함을 명시하는데, 대화적 인간은 절대적 주체와 관계적인 인간론을 형성하며 절대적 주체는 인격적이며 수직면과 수평면 모두에서 인간과의 관계성을 보장한다고 언급한다. 인간을 ‘통합된 자아’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니버는하나 나님의 통일성이 인간의 통합을 위한 기초라고 주장하는데 이 통합된 신중심적 자아됨은 “창조된 선함과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개방성, 구체적이고 명확한 상대주의적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방향에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려는 계속된 노력을 약속하는 공약에서 확인될 수 있는 모든 만물에 대한 감각의 발달”이라고 설명한다.[78] 니버는 예수를 모델로 하나님을 인간에게로 이끌고 오고 동시에 인간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는 신과 인간의 상관 관계를 통해 책임적 자아로서의 인간에 대한 설명한다. 니버에 의하면, 인간 이해는 인간이 전적으로 신의 주권에 달려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신과 인간 관의 관계성의 그물망 안에서 이루어지는 계획과 힘들의 융통적이고 상호적인 것임을 주장한다. 다시 말해 인간과 신의 관계 안에서의 인간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듯 진정한 인간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에게서 창조된 모든 것들에 대한 열린 상호 관계 속에서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77] 리처드 아스머, *공적신앙과 실천신학*, 73.
[78] 리처드 아스머, *공적신앙과 실천신학*, 165.

미국의 신학자 피어슨(Clive Pearson)은 공공신학에 있어 창조 교리는 기독교인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 관계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보편적인 실천적 도덕적 사유와 자연법 및 공유된 도덕법에 관계하며, 공동의 도덕임을 강조한다.[79] 이를 위해 다른 신앙이나 전통, 학문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배제하지 않으며, 지속적인 대화의 노력을 시도하는 것임을 역설한다.[80]

2. 공적 참여

공공신학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주요점은 공적 참여이다. 공적 참여는 모든 다양성에 대해 열린 사고와 토론 문화를 통해 평등과 공공의 선을 이루기 위한실제적이며 실천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나는 앞서 공공신학이 단지 교회를 위한 또는 믿는 자들만을 위한 신학이 아니라 공중을 위한, 사회를 위한 신학이며 신학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스택하우스의 주장을 언급한 바 있다. 공적 참여는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의 공적 문제에 대한 직접적 관여의 당위성을 말하는 것이며, 기독교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의 형성이 공공부문(public sector)들 및 공공영역(public shpere)의 문제들의실질적인 해결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기독교 신앙과 정체성으로의 가치에 무게를 둔다.[81]. 스택하우스는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정치, 경제, 가정에 의도적으로 관여해야하고 기업, 결혼, 직업 등 구체적인 제도에 있어서도 세속적인 학문의 영역으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하느님과 연관된 인간의 모든 활동 부문이 바로 공공신학의 주제들이며 이러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인류는 이미 공적 참여를 이루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에 교회의 공적 참여의

[79] 문시영,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68.
[80] 문시영,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70.
[81] 문시영,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79.
공공영역이란, 초개인적으로 구조화된 사회적 개인들 사이의 행위와 의사소통 관계를 의미한다. 공공부문은 국가가 경제에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공간을 뜻하며특정한 행위주체를 지칭하기도 한다. 즉 공공부문이라는 공간을 형성하고 이곳을 주된 활동영역으로 삼고 있는 제도 및 기관도 공공부문이라 할 수 있다.

과제는 이미 기독교의 보편적 신앙의 강조점이인류가 사회의 모든 부문에 있어 어떠한 모습으로든 공적 참여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신앙의 개념이 좀 더 구체적인고 실제적이며, 실천적인 삶 속에서 사회 전반의 공적 이슈에 대한 좀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파울러(James W. Flowler)는 공적 참여로서의 교회는 정직하고 개방된 토론의 문화가 촉진되고 교회 안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의 신앙과 삶의 방식을 표현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런 의미에서 '공적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스택하우스도 이러한 파울러의 주장과 그 맥을 같이하는데, 기독교인들의 고백적 신앙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와 필요 그리고 비기독교인들과 더불어 합리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공공적 삶의 구조와 정책에 대한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82]

이렇듯 공공신학에 있어서 신앙 생활과 교회의 존재를 사후 세계를 위한 구원의 통로로 만 강조된 개념보다 전 인류의 삶 속에서의 다양성, 평등성 그리고 전인적인 인간을 형성하는 좀 더 확대되고 복합적인 개념으로 통용되어야 한다. 스택하우스의 주장처럼, 기독교 신앙은 인간 간의 관계성을 강조하며 유기적 체제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동체는 예수그리스도와 신앙인들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의미의 관계를 재형성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관계는 전 세계 인류에게까지 소급되여야 한다.[83] 이를 위해 기독교인들을 공적 영역으로 나아가 공적인 언어와 행동을 통해 기독교 신앙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사랑을 증거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회 공동체의 종교적 특성이 성숙한 민주주의와 문화 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고 있는지, 다문화 사회 속에서 다른 삶의 양식을 배제하거나 터부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서의 권위를 통해 또 다른 권력 구조를

---

[82] 문시영,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30.
[83] 문시영,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32.

재생산하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 공동체로서 사회 속에서 공동체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지, 반드시 질문되어져야 한다. 앞서 살펴 본 공공신학의 주요 주장대로 교회 공동체의 공적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현대인들의 공적 삶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 특징에 상응하는 공적 교회의 밑그림이 그려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베버(Max Weber)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베버는 현대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공적 삶의 특징을 세 가지로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84] 첫째, '개인주의화'이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은 사회 체제 재생산의 단위가 되고 있다. 개인주의화는 그들이 속한 전통과 관습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게하고 개방되고 자유로운 형식을 통해 그들의 삶의 과정을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동일하고 표준적인 생활 양식의 선택을 동반해 온 경향이 있다. 이러한 개인주의화는 기독교 전통안에서의 안정성을 탈피하여 전통적 기반이 없이 다양한 삶의 영역을 계획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고립이 아닌 상호주관적인 관계속에서 자아상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도록 한다. 두번째, 고도로 산업화된 현대 사회의 특징은 '구조적 분화'이다. 근대화의 결과로 종교적-철학적 사고는 사적 영역으로 국한되어 취급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현대의 상황 속에서 사회의 분화 현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다면적 영역들 간의 차이를 조화시킬 수 있는 자원으로서 제한되었음을 강조한다. 세번째, 문화 다원주의다. 문화 다원주의는 각기 독특한 문화 전통을 지닌 집단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특성을 지칭하는데 고도로 분화된 사회에서는 다양한 민족적, 인종적 하위문화가 서로 인접하여 공존하고 있으며, 사회 속에서의 개인은 상이성, 타자성 그리고 포스트모던 사상에 직면한다. 이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 전통들에 대한 비판적 성찰, 개방된 대화 그리고 전통에의 지속적인 참여를 요구받는 상황들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현대 사회의 특징들은 기존 교회의 전통성에 변화를 요구하며 열린

[84] 리처드 아스머, *공적신앙과 실천신학*, 246-9.

사고와 대화를 통해 다양한 문화의 상호연계와 상호보안적 협력을 통해 신앙과 공적인 삶과의 연계를 필요로 함을 상기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공적 교회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들을 망라해 전 인류에 대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교회의 한정적인 신앙 행태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신앙의 실천의 장을 사회의 모든 영역으로 소급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사회의 모든 공적 이슈에 대해 이원론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을 탈피함으로써 재창조와 재생산을 통한 새로운 관점과 다양한 삶의 방식의 공존과 상생 그리고 평등한 자유를 공유해야 함을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공적 참여는 단지 윤리적 상호 관계를 통한 평등이나 연대 그리고 공공 복지의 개념을 이룰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 공적 참여를 통해 그 연관성을 더욱 확고히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3. 공공성

'공공성'이라는 단어는 세계화 시대의 현대 사회의 다양성 속에서 자주 언급되는데 공공 신학에 있어서도 그 중심에 있는 개념 중 하나이다. 이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은 아주 방대하다.[85] 먼저, 공공성의 내용을 논하기에 앞서 그 개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데 이는 ''공공성'이라는 단어가 '사적 영역'의 상대적인 용어인 ' 공적 영역'이 '공공영역'이라는 낱말과 혼용되고 있어 용어의 개념 정의와 그 의미 사용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공공성의 개념 이해 있어 선결되는 것은 '사적 영역'의 상대적 용어인 '공적 영역'이라는 의미인데 전통적 사회에서 '공'은 국가, '사'는 주로 개인이나 가족을 의미했다고 한다. 하지만 근대에 접어들어 시장 경제가 일반화하면서

---

[85]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에 대한 참조 서적: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trans. 이진우 et al., (서울: 한길사, 1996); 한나 아렌트, *칸트 정치철학 강의*, trans. 김선욱 (서울: 푸른숲, 2002); 위르겐 하버마스, *공론장의 구조변동*, trans. 하상복 (서울: 나남출판사, 2004); 임마누엘 칸트, *계몽이란 무엇인가*, trans. 이한구 (서울: 서광사, 1992); 사이토 준이치, *민주적 공공성: 하버마스와 아렌트를 넘어서*, trans. 윤대석 et al., (서울: 이음, 2009); 조한상,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서울: 책 세상, 2009)등이 있다.

‘공’은 국가를 ‘사’는 시장을 의미하게 된다.[86] 과거 공공성이 단지 국가에 대한 제한적 의미로 쓰일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기에 ‘공’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의미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이토 준이치는 ‘공’에 대한 상의한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한다.[87] 첫째, 국가에 관계된 공적인 것(official)이라는 의미인데, 이 의미에서 ‘공공선’은 국가가 법이나 정책과 같은 것을 통해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활동등을 가르킨다. 이런 의미에서 ‘공공성’은 강제, 권련, 의무라고 해석될 수 있다. 둘째, 모든 사람들과 관계된 공통적인 것(common)이라는 의미이다. 여기에서 ‘공공성’은 공통의 이익, 재산, 공통적으로 타당한 규범, 관심과 같은 것을 가르킨다. 이는 특정 이해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긍정적인 함의를 가지며 권리의 제한이나 ‘인내’를 요구하는 집합적인 힘과 개성의 신장을 억누르는 불특정 다수의 압력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셋째,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open)는 의미이다. 이 의미에서의 ‘공공성’은 누구의 접근도 거부하지 않는 공간이나 정보같은 것을 가르킨다. 이 의미에서는 ‘공공적 공간’, ‘공공적 영역’, ‘공공권’ 또 ‘공개성’이란 말의 차이점들이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한다.

‘공공성’에 대한 세 가지 의미에 있어 나는 본 논문에서 ‘공공성’에 대한 개념과 의미를 세번째로 언급한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공간과 공통적인 것이라는 의미와 함께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개념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공공성’은 생각의 가치가 이질적이라는 것에서 시작되며 복수의 가치, 의견 사이에서 생성되는 공간인 것이다. 이에 공공성은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 사건에 대한 관심과 그 관심사를 통한 차이를 조건으로 하는 의사소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성’의 개념은 공공성의 공간에서는 사람들이 복수의 집단이나 조직에 다원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

[86] 정태인, “공공선이란 무엇인가?” *공무원 U 신문*, November 17, 2014, www.upubl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8.

[87] 사이토 준이치, *민주적 공공성,* trans. 윤대석, 류수연, and 윤미란 (서울: 이음, 2009), 18–20.

가능하다.[88] 흥미로운 점은 사이토 준이치는 공공성으로부터의 공식적 배제의 문제를 다루면서 주목하는 것은 '담론자원'(discursive resource)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원이 공공성에의 접근을 비대칭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 담론 자원은 공공성에의 실질적인 접근을 근본적으로 좌우하는데 그 이유는 공공성에의 의사소통이 바로 언어라는 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공공성은 담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사이토 준이치는 담론 자원으로 인한 부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한다.[89] 첫째, 담론 자원은 사람들이 구사하는 어휘와 관련이 있다.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조건에 따라 담론 자원의 격차가 생기며, 담론 자원의 격차에 근거한 지배가 발생된다. 이러한 지배를 비판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설명책임을 부과하고, 일상 언어로 번역할 것을 요구해야하며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전문적 지식을 비판할 수 있는 대항 담론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공사를 구별하고 공공의 장에 어울리는 테마를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담론 자원은 장소에 어울리는 주제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관련된다. 이 부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공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무엇을 '사적'이라고 하는가 하는 담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종교나 신앙을 '사적인 것'으로 다룸으로써 공공적인 쟁점에서 제거하는 것이다. 특히, 성별 역할분업에서 가사노동이나 부양, 가정폭력, 성희롱 등은 개인사인 '사적인 것'으로 치부되어 왔다. 이러한 '사적인 것'으로 치부했던 이슈들을 '공공적인 것'으로

[88] 사이토 준이치, *민주적 공공성,* 28.
[89] 사이토 준이치, *민주적 공공성,* 34–5.

재정의하려면 자기 자신들의 담론 공간을 창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창출된 담론 공간은 공공적 공간에서 공통의 관심사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다.[90]

하버마스에 따르면, 공공성은 사회의 규범적인 비전에 대한 공적인 의견을 만들고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공적 영역, 공적 실천이다. 특별히 근대 이후 '공공성'에 대한 담론은 공적인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여론을 형성하는 공간적인 의미로 좁혀지게 되는데 하버마스는 이를 '공론장'(public sphere)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시켰다. 하버마스가 동시대에 간취한 것은 '조작적인 공개성'이었는데, 그의 설명에 따르면, 대중매체는 특권적인 이해를 현시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대중은 그 조작적인 힘에 노출되었다고 지적한다. 대중은 단지 문화산업이 생산하는 상징을 단지 수용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단적으로 공공성은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펼쳐지는 것으로 변용되었다. 이에 최경환은 하버마스의 공공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모든 대화 당사자들이 공론장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고 어느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특정한 집단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공론장이 아니다. 공중은 원칙적으로 모든 인간이 속할 수 있다는 것을 그의 고려에서 선취하고 있다".[91] 한나 아렌트도 공공성에 대해 두 가지 차원 즉 '현상의 공간'과 '표상의 공간'을 구분해 설명함으로써 공공성의 한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공공적'이라는 용어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두 현상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첫째, 공중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누구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며 그러므로 가능한 가장 폭넓은 공개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에게는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하나니의 현상으로 지각되는 현상인 현실성을 구상한다. 두 번째로 '공공적'이라는 용어는 세계가

[90] 사이토 준이치, *민주적 공공성*, 37.

[91] 최경환, "공공신학의 기원, 특징, 최근 이슈들," *예장뉴스*, last modified November 27, 2014, http://www.pck-goo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32.

> 우리 모두에게 공동의 것이고, 우리의 사적인 소유지와 구별되는 사건에 관계한다. 세계에서 함께 산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탁자가 그 둘레에 앉는 사람들 사이에 자리잡고 있듯이 사물의 세계도 공동으로 그것을 취하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사이'가 그러하듯이 세계는 사람들은 맺어주기도 하고 동시에 분리시키기도 하는 '사이'이다.[92]

한나 아렌트는'현상의 공간'(the space of appearence)으로서 공공성을 언급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이 현상의공간 안에서 살고 있지 않으며 '표상의공간' 안에서 '현상'의 가능성이 봉쇄된다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현상의 공간'은 무엇인가? 이 현상의 공간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에는 어디나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이며, 사람들이 행위와 논의에 의해 서로 관계하는 지점에서 창출되는 공간인데 이 공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행위할 수 있다.[93]이 처럼 '현상의 공간'은 타자의 조건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타자를 자유로운 존재자로 처우하는 공간이며, 개개인의 말과 행위에서 타자의 현사에 주목하되 선과악 또는 정과 부정의 일반화가 가능한 기준을 두지 않는 곳을 의미한다.[94] 이러한 공공선의 이상적인 '현상의 공간'과 대비되는 공간을 한나 아렌트는 '표상의 공간'이라 부르는데, 이는 타자의 행위나 논의를 '무엇'이라는 위상, 즉 개인을 언제나 사회구조 내의 그들의 지위와 동일시하여 타인과 공약 가능한 위상, 교체 가능한 위상으로 환원하는 시선이다.[95] 다시말해, 표상의 시선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신체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열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과 밀접하게 결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심신에 깊은 상처를 주는 폭력의 명백한 원천임을 지적한다.[96] 아렌트는 '현상의 공간'이가능하다고 해도, 그것은

---

[92]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trans. 이진우 and 태정호 (서울: 한길사, 1996), 102–5.

[93]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261–2.

[94] 사이토 준이치, *민주적 공공성*, 64.

[95] 사이토 준이치, *민주적 공공성,* 61.

[96] 여성이라는 표상, 장애인이라는 표상, 노인이라는 표상, 동성애자라는 표상, 노숙자라는 표상 등이 있다.

'표상의 공간' 너머에 존재하는 것은 아님을 명시한다.[97] 더불어 공공적 공간을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리얼하고도 교환 불가능한 방법으로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로 정의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사람들은 행위하고 말하는 것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내보이고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능동적으로 드러내며 인간 세계에 현상한다."[98] 사람들은 자기의 인격에 대해서 그들이 말하고 행위하는 모든 것을 통해 그의 정체성이 드러난다. 그러나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행위자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듣는 타자인 것이다. 즉 '누구'라는 정체성은 행위나 말에 대한 '타자의 응답'으로 생성되며 정체성은 타자의 존재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99] 아렌트의 공공성에 대한 또 다른 이해는 '사이'에 있는 세계에 대한 관심이다. '세계'는 '인위적 세계'(human artifice)를 의미함과 동시에 '행위'에 의해 형성되는 '인간적인 세계'(human affaires)를 의미한다.[100] '인간적인 세계'는 세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잃지 않는 것과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공공적 공간은 공통 세계에 대한 다원적인 관점이 존재할 때에만 그것들이 서로 교환되는 공간으로서 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공공성의 공간은 "소진되지 않는 담론의 풍부함"이 향수되는 공간이며 진리의 공간이 아니라 의견의 공간인 것이다. 다시 말해 공공적 공간에서의 담론의 의미는 서로 다름을 분명하게 하는데 있지, 이 다름을 하나의 합의를 향해 수립하는데 있는 것은 아니다.[101] 아렌트는 공공성의 공간에서 어떤 한 사람의 관점이 상실되어가는 것이 문제임을 지적하며, 의견이란것은 절대적인 진리도 아니고, 있어도 없어도 괜찮은 단순히 주관적인 견해도 아님을 분명히 한다. 담론 공간은 의견과 의견이 교환되며 의견 사이에 진-

[97] 사이토 준이치, *민주적 공공성,* 61-2.
[98]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239.
[99] 사이토 준이치, *민주적 공공성,* 65-6.
[100]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66.
[101] 한나 아렌트, *어두운 시대의 사람들,* trans. 권영빈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3), 12-3.

위를 식별할 객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102] 공공적 삶의 의미와 그 풍성함은 타자에 의해 보여지고 들려지는 다양성이 존재하기때문일 것이다. 다양한 담론들에 있어 다름을 차별로 생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여론 형성 또한 계속되어야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절대적인 진리와 선에 대한 개념의 재해석 또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성은 소외와 배제 되지않은 대중이 주체가 되며 공정한 다수의 개인적 의사가 반영되고주체자들의 자발적 토론과 참여가 공론장을 통해 공공의 이익에 공헌할 수 있는 생산적인 원동력으로서의 장인 것이다.

4. 공론장의 개념

앞서 언급한 공공성의 개념을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공간과 공통적인 것이라는 의미와 함께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개념으로 해석한 바 있다. 더불어 공공성은 확고부동하며 불변의 진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자연스럽게 교환되고 소통되어지는 것임을 명시했다. 이렇듯 공공성은 모든 다양성과 인간의 열린 사고를 통해 새로운 삶의 가치와 방식을 새롭게 창출하며 신적 창조성과 인간의 한계적 범위를 확장 시킬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다. 이러한 '공공성'에 대한 담론은 공적인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여론을 형성하는 공간적인 의미로 좁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를 하버마스는 이를 '공론장'(Public sphere)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시켰다. 먼저, 하버마스의 '공론장'( pulic sphere)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개념은 공적 의견으로서 여론이 형성되는 장소를 의미한다. 공론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공히 이성적 사유와 토론의 능력을 지니고자유롭고 평등한 조건 속에서 공개성의 원칙을 따라 의견을 표출하고 토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103] 다시 말해 공론장은 모든 사회적 문제들이 합리적인 사유와 의심을 피해 나갈 수 없는

[102] 사이토 준이치, *민주적 공공성,* 69.
[103] 하상복,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구조변동 읽기* (서울: 세창미디어, 2016), 22.

곳인데 이 공론장에는 성찰과 비판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확보된 의견을 모으며 그 모여진 의견을 여론이라고 말한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여론은 권력의 권위주의와 기존 질서에 맞서는 민주주의 동력으로 등장하며, 근대 이성의 합리성이 공론장에서 작동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탄생시켰음을 논쟁한다. 하버마스에게 있어서 이 공론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공개성'(open)과 '접근가능성'(accessiblity)이다. 공론장은 정보가 모두에게 공개되어야 하고, 여론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권력의 감시나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공론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104] 하버마스는 근대 이후의 역사적 정화 속에서 나타나는 공론장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먼저 부르주아 공론장(bourgeois public sphere), 인민적 공론장(plebeian public sphere) 그리고 규율적 공론장(regimented public sphere)이다. 위의 공론장의 세 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 첫째, 부르주아 공론장은 자유주의 모델 위에 성립하는 것으로 문예적 차원과 정치적 차원의 결합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참여하는 주체는 교양을 지닌 존재들이고 문제를 이성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개인들인데 이 개인들은 '공중'으로 불린다. 그와 달리 인민적 공론장은 부르주아 공론장의 문예적 양식과 교양인의 주체성을 결여한 조건 위에서 '교양 없는 민중'이 주도하는 공론장의 성격을 보인다. 그리고 '국민투표적 동의'라는 정치행태를 보이는 규율적 공론장은 참여자들 사이에서 실제적인 토론이나 논쟁이 진행되지 못하고 권력의 의지에 의해 조작되는 정치적 결정의 가능성이 큰 공간이자 과정이다. 이는 인민적 공론장과 규율적 공론장에 부르주아 공론장을 이끄는 주체로서 '개인들은' 존재하지 않는다.[105]

하버마스는 비록 유형이 다르다 하더라도, 인민적 공론장과 규율적 공론장은 모두 부르주아 공론장의 자유주의 모델이 지향하는 정치적 의지를 지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부르주아 공론장과 다른 두 가지 형태는 부르주아 공론장의 변종임을 명시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하버마스의는 공론장에서 주조되는 여론에 대한 관심과 전근대적 억압과 질서의 해체 그리고 민주적 사회를 향한 해방적

---

[104] 하상복,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구조변동 읽기,* 53.

[105] 하상복,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구조변동 읽기,* 53-4.

능력을 강조함으로써 좁게 제한된 합리성 개념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공론장을 구성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바로‘공중’이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공중’이란 사적 개인과 공적 존재라는 두 가지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 ‘사적 개인’이라는 의미는 개인이 가정과 경제활동의 주체라는 것이고, 동시에 자신들의 사적 이익의 문제를 모두에 관계하는 보편적인 공동의 원리로 전환해 낼 사유능력과 토론 능력을 지닌 것을 ‘공적 존재’로 본다. 더불어 ‘공중’은 개인적인 개별 조건과 이익을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차원으로 전환해내어 여론을 수립한다. 이때 무엇보다 공중에게 요구되어지는 능력은 교양인데, 하버마스에 따르면 “교양은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사유하고 토론하는 이성적 힘에 바탕을 두고 있는 능력이다. 합리적 사유와 토론이야말로 사적인 이익을 공적 가치로 바꾸고 공유하는 보편화의 힘”[106]이라고 정의한다. 계속해서 하버마스는 공론장의 구체적인 개념과 문화적 개인으로서의 공중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살롱이라는 공간을 통해 설명한다.[107] 살롱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 주는 격식화된 예절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개인들의 문화적 욕구를 타인에게 보여주고 함께 향유하는 곳이다. 살롱에서의 토론은 공존과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108] 또한 살롱과 함께 부르주아 공론장과 함께 주목을 받는 것은 커피하우스이다. 이 커피하우스는 도시의 공적 공간을 차지하고 있던 문화적 장소로서 교양을 갖춘 부르주아 남성들만이 참여한 곳이었다. 사실, 이 커피하우스에 비치되어 있던 신문들을 통해 대내외적인 뉴스를 접할 수

---

[106] 하상복,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구조변동 읽기*, 84.

[107] 하상복,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구조변동 읽기*, 89.

살롱 문화는 17 세기 초반의 프랑스 랑부이에 후작 부인이 효시이다. 당시 프랑스인들 사이에서는 격식화, 형식화된 예법이 고수되는 것에 거부감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반동으로 부드러우며 섬세하고 자연스러운 내면과 품위 있는 분위기 그리고 예절을 갈망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르네상스의 인문학적 기운이 프랑스에서도 증대하면서 이 두 가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문화적 공간으로 탄생되었다.

[108] 하상복,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구조변동 읽기*, 90-1.

있는 공적 장소로 기능했다. 이는 부르주아 공론장의 핵심이었다.[109] 이렇듯 살롱과 커피하우스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바로 인간으로서의 동등함과 해석의 독점권을 부정하고 모든 것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전환해내고자 했다는 것이다. 하버마스의 설명에 따르자면, 살롱과 커피하우스는 오랫동안 권위적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이것은 마지막으로 이 공간에 참여한 개인들은 공중이라는 집단적 토론 주체로 통합되는 것이다.[110] 또한 하버마스는 이러한 공중의 형성과 관련해 신문과 잡지 등 인쇄 미디어의 역할에 특별히 중요성을 부여한다. 인쇄 미디어들의 힘은 공간적, 지리적 한계를 초월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큰 규모의 공중으로 결집하게 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언급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타르드(Gabriel Tarde)도 여론 형성에 있어 대화와 신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타르드는 사람들 사이의 친밀성과 수평적 교류라는 인간적 효과를 산출하는 것이 대화이며 무의식적으로 의사 소통을 하게 한다고 설명한다.[111] 이 가운데 신문은 여론을 수렴하고정치는 집단적 의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정치적인 기능에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 세기 후반부터 이러한 살롱문화와 커피 하우스의 공론장 문화는퇴보를맞게 되는데하버마스는 경제, 사회, 행정 등 역사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광범위하고 총체적인 변화를 추적하며 공론장에 대한 구조 변동에 대해 주목한다.[112] 공론장에 대한 구조 변화는 미국의 대중 저널리즘의 유행으로 선정성, 오락성, 경쟁성을 통해 상업적 성공을 위한 탈정치와 경향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저널리즘에는 정치에 관한 지면들이 줄어들고 정형화되고 요약적인 형태의 기사가 늘면서 화보가

[109] 하상복,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구조변동 읽기*, 93.
[110] 하상복,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구조변동 읽기,* 97.
[111] 하상복,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구조변동 읽기,* 101.
[112] 하상복,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구조변동 읽기,* 144-6.

차지하는 비율이 확대되어졌다. 이러한 기사들은 정치적 시각을 필요로 하는 공공의 문제에 대한 기사들을 밀어내었다. 또한 영상 매체에 대한 급속한 발전은 이러한 현상을더 부추겼으며 이로 인해 공중의 자격으로 사회적 문제를 성찰할 가능성을 없애면서 공중을 단순히 소비자들로 전락시켰음을 언급한다. 또한 하버마스는 미국의 대중매체로 인한 거대한 변화는 사적 개인으로서 성찰적 능력을 지닌 교양 있는 공중이며 공적 문제를 이성적으로사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주체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공론장에서는 더 이상 의사소통을 구현해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113] 더불어 이러한 사회적 현실은 정치적 문제를 초래하고 국가 권력에 민주적 통제의 정당성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하버마스는 현대 사회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부르주아 공론장 모델의 복원을 주장하지는 않는다.[114] 하버마스는 비판적 사회이론의 규범적 기초를 보다 깊은 곳에 놓아야 한다는 문제 의식을 표방하면서 일상적 의사소통의 실천 자체에 담겨 있는 이성의 잠재력을 발굴하기 위해 '의사소통 행위이론'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115]

나는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구조와 구조 변화, 공중에 대한 개념등의 연구를 통해 현대의 저널리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재조명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과거의 역사 안에서 저널리즘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통합적인 느낌과 목적을 공유한다는 생각을 제공하고, 독재자로 하여금 공동의 위협에 대항해 시민을 결속하도록 강요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다. 또한 공중으로서의 그들은 여론을 수렴하고 형성하기도 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사회가 점점

---

[113] 하상복,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구조변동 읽기*, 147.

[114] 하상복,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구조변동 읽기,* 161.

[115] 의사소통행위이론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위르겐 하머마스, *의사소통행위이론, 행위합리성과 사회합리화*, trans. 장춘익 (경기도: 나남신서, 2006); 위르겐 하머마스, *의사소통행위이론, 기능주의적 이성 비판을 위하여*, trans. 장춘익 (경기도: 나남신서, 2006).

민주적으로 바뀌면서 많은 정보를 갖는 경향은 공중의 여론보다는 소비의 형태로 나타났다.[116] 이러한 지적처럼, 세계화 시대에 쏟아지는 정보의 양은 엄청나다. 현대 사회는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독자들 스스로가 무한정한 정보를찾아내고 스스로 여론을 형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 이에 기독 저널리즘은 새로운 형태의 여론 수렴 공론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변화와 고찰이 요구되어진다. 기독 저널리즘은 독자들이 접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공정하고 평등적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의제와 주제 그리고 공적 이슈와 특정한 주제에 대해 소비자가 아닌 공중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또한 저널리즘으로서 공적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러한 다양성과 통합성을 바탕으로 공동의 합의와 선을 이루어 나가도록 여론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

[116] 빌코바치 and 톰 로젠스틸,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 trans. 이재경 (서울: 한국언론지흥재단, 2003), 16.

## Chapter VI
##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비추어 본 기독 저널리즘의 공적 기능 확대를 위한 대안

### A. 사설과 컬럼의 실천적 공적 주제의 범주 확장

나는 앞서 이분법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이한국 사회와 교회 그리고 한인 교계에 양산해낸 부정적 결과물들과 현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이분법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으로 양산된 결과물에 대해 우리는 깊은 성찰과 논의를 통해 현 기독교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실천적 변화를 추구해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 본 장에서는실천적 대안의 하나로 기독 저널리즘의 사설과 컬럼이 공적 저널리즘으로서 현대 사회의 다양한 공적 이슈와 다름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탈이분법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으로서의 평등적 시각을 구축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기존의 기독 저널리즘의 내용이 기존의 교회와 목회 중심적 주제들에서 확장되어 현대 사회의 다양한 공적 이슈들에 대한 범주의 확장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서 기존의 기독 저널리즘의 내용들은 교회 생활을 위한 지침과 행사 소식들이 저널리즘의 그 주를 이루면서 공적 언론기관으로서의 사회의 공적 이슈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정보의 다양성, 주제에 따른 형평성과 공정성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본 논문은 위에서 이러한 기독 저널리즘이 일반 독자들에게 공적 저널리즘으로서의 그 기능을 감당하기에 무리가 있음을 이미 언급했다. 기독 저널리즘이 교회의 틀을 벗어나 인간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모든 공적 주제에 대한 관심과 열린 공론장으로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때 그 변화는 다양한 독자층의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다. 지금의 현대 사회는 엄청난 과학적 발전으로 과거에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다양한 공적 주제들이 우리 앞에 산재해 있다. 예를 들자면, 개인주의화, 기계화, 테러, 환경문제, 무역 전쟁, 사이버 전쟁, 그리고자살, 우울증, 이혼, 동성애 합법화, 인간과 동물 복제, 다문화, 4 차원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주제들이다.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공적 이슈들과 이민 사회 속에서 대두되는 수 많은 주제에 대해 시민 사회와 함께 기독교와 교회가 함께 고민하고 나름의 적합한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기독 저널리즘의 다양한 주제 선정은 공적 기능 회복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실천적 대안이라 생각된다. 기독 저널리즘의공적 주제에 대한 범주의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조금의 우려가 되는 것은 과거에 경험되어지지 않는 새로운 주제에 대한 윤리적 관점을 형성하기에 아직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에 대해 마샬의 주장이 흥미롭다. 마샬(Ellen Ott Marshall)은 새로운 공적 주제들에 대해 윤리적 모호성이 부정적 시각으로 다가 올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그는 오히려 윤리적 모호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더 깊은 의미의 정치적 효율성에 긍정적이라고 말한다.[117] 마샬의 주장처럼, 한 가지 관점으로 그 정답이라 말할 수 없는 세계화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다양한 상황적 윤리와 주제에 대한 다른 의견과 관점의 차이를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기독 저널리즘이 이 교회와 독자들에게 또한 이민 사회 속에 던질 수 있는 공적 기능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더불어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의 시도는 기독교 신앙이 정치적 상황 속에서 결코 배제될 수 없고 사회적 구조 속에 존재하는 한다는 개념을 형성시키게 된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사회는 다양한 조건과 기능의 재생산을 통해 유지되는데, 그는 사회적 영역들을 '체계'(System)와 '생활세계'(life-world)로 구분한다. '체계'는본질적으로 사회는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능으로 행정과 경제를 담당하고 '생활세계'는 교육, 문화, 종교적 기능을 들 수 있다.[118] 이 두 개념은 사회 공간에서 서로 밀접한 상호관계 를 맺고 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문제가

[117] 엘렌 오트 마샬, *광장에 선 그리스도인,* 135.
[118] 하버마스, *민주주의와 공론장,* trans. 조항제 (서울: 컬처룩, 2015), 227.

되는 것은 체계의 합리성이 생활세계의 합리성을 침범할 때라고 지적한다.[119] 하버마스는 사회의 진화를 다층적으로 포착하면서 원시적 생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신화'임을 언급한다. 원시적 생활 세계에서는'체계'인 정치권력과 제도가 종교적 신비와 경외 속에서 정당성을부여받았다. 그러나 이 정치권력과 제도가 점차 종교적 영역으로부터 분리되어 합리적으로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새롭게 주조되고 체계는 생활세계의 합리성과는 달리 권력과 화폐라는 고유의 합리성을 따르게 되었다. 이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이 하나의 대상이 되고 이 부분에서 인간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에 착안한다.[120]

리처드 마우는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교양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두 가지 기본 원리를 설정한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일반 사회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둘째, 성화된 삶은 결국 사회 속에서 구체적인 태도와 행동과 함께 건강한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으로 나타나야 한다.[121]

마샬은 신앙에 신학과 성서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삶의 공간 안에서 다양한 권위의 원천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신학적 개념들은 정치적 개념들과 그 뿌리를 함께 하고 있다고 언급한다.[122] 더불어 사회의 복지와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공적인 영역에서도 인간의 죄를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를 주장해야 하고 사회 정의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을 강조한다.[123]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주장들의 공통점은 바로 사회 구조와 개인 생활과의 밀접성이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발생되어지는 문제들은 모두 공적 주제들이며 이는

---

[119] 하버마스, *민주주의와 공론장*, 229.
[120] 하버마스, *민주주의와 공론장*, 228-9.
[121] 리처드 마우, *문화와 일반은총*, 117.
[122] 엘렌 오트 마샬, *광장에 선 그리스도인*, 152-4.
[123] 리처드 마우, *문화와 일반은총*, 129.

사회적 구조와 현대인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분석함으로서 현대 사회에 적합하고 적절한 방법론과 대안들이 토론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토론은 열린 공론장으로서 여론이 수렴되고 이를 통한사회 참여를 필요로 하는데 기독 저널리즘은 교회와 독자들에게 공적 구성원으로서의 이러한 과정의 필요성은 물론 참여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독려함으로서 공적 언론기관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사실, 21 세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직면한 공공 신학적 주제들은 아주 다양하다. 조직신학자 이승구 교수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언급한다. 첫째, 남북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북핵 문제, 경협 문제, 통일 방안 문제, 통일이전 상태 문제, 통일을 위한 준비 문제, 통일 비용 문제, 통일 이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어, 사상의 문제 등이 있다. 둘째, 경제와 관련해서는노동 문제, 실업 문제, 시장 문제, 경쟁의 문제, 양극화 문제, 부의 재분배 문제, 경제 블록화 문제, 세계화 문제, 다국적 기업의 문제 등이 있다. 셋째,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는정치 발전의 문제, 정치 문화 문제, 정치 사회화 문제, 복지 국가 문제, 세계화 문제 등이 있다. 넷째, 사회와 관련해서는 자살 문제, 복권 문제, 이주 노동자 문제, 다문화 다민족 문제, 동성애 문제, 사법적 심판의 여러 문제들, 수형제도 문제, 사형제도 문제, 사면 문제, 공교육 문제, 사교육 문제, 다문화 교육 문제, 여성 문제, 이혼 문제, 가정폭력 문제, 성폭력 문제, 성범죄 문제, 성매매 문제, 시민사회 문제, NGO 활동 문제 등이 있다. 다섯째, 국제문제와 관련해서는  테러 문제, 전쟁 문제, 환경 문제, 경제 관계 문제, 핵문제, 제 3 세계 의 문제 등이 있고, 여섯째, 문화적, 과학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세계화 문제, 민족적 정체성 문제, 문화 문제, 문화 발전 문제, 과학 기술의 문제, 예술 문제, 예술적 표현의 자유와 한계 문제 등이 있다. 일곱 번째로는 의학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에이즈 문제, 안락사

문제, 생명의 시작에 관한 문제, 배아 줄기 세포 문제, 유전자 치료 문제 등이 있으며 마지막으로정의, 힘, 사랑, 생명, 죽음, 인권들의 주제들이 다루어질 수 있다.[124]

B. 사회와 소통하는 언어 행위

보편적으로 우리는 언어를 정의하고 이해함에 있어 인간 관계에 있어서 구체적인 소통의 도구 또는 말의 형태로, 문자의 형태로 인간의 모든 삶에 의미를 형성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만 간주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에 대한 단순한 정의와 기능을 넘어 언어 행위 안에 상징 권력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언어 행위는 보다 심각하고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주제 중 하나다. 특히 기독 저널리즘에 존재하는 거대 담론인 이원론적 패러다임 사유 방식의 해체를 위한 평등적 시각의 기능 확대는 반드시 언어 행위에 대한 좀 더 지적인 연구와 실천 그리고변화를 추구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기독교 내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이 단지 교회의 전유물이 아닌 일반 대중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기독교의 평등적 개념, 모두를 포함하는 인간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중심 사상이 잘 전달되어야 하며, 보다 포용력 있는 용어들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소쉬르와 촘스키의 언어 이론에 따르면, 언어는 공동체의 공유 재산이다. 이 공동 재산인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 화자들 모두 평등하고 언어적 교환에 어떤 권력관계도 개입하지 않는다면 가장 이상적인 언어 행위라 할 수 있다.[125] 이러한 이상적인 언어 행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부르디외는 지적한다. 이는 언어적 자원의 분배 자체가 현실적으로 매우 불평등하며, 각자가 보유한 자원의 가치는 권력관계 속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126] 이렇듯

---

[124] 이승구, "공적 신학에 대한 개혁파적 한 접근," *한국 개혁신학*, last modified October 25, 2008, http://www.miraech.com/board/view.do?iboardgroupseq=2&iboardmanagerseq=30¤tpagenum=&searchitem=&searchvalue=&iboardseq=111&irefamily=111&ireseq=0.

[125] 피에르 부르디, *언어와 상징 권력,* trans. 김현경 (파주: 나남, 2014), 6.

[126] 피에르 부르디, *언어와 상징 권력,* 7.

언어에는 권력 관계가 개입되었고, 이런 점에서 이원론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이 거대 담론으로 존재했던 기독교의 언어 안에는 차별적 구조와 권력 구조를 내면해 왔던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마샬 맥루한(Marshall Mcluhan)에 따르면 구술시대에서 문자화로 이루어진 신의 말인 성서가 문자 문화의 커뮤니케이션의 미디어로서 대중들에게 보유하고 읽을 수 있는 문서가 되었고, 이는 성서를 해독할 수 있는 이들의 잠재적 수효가 무한히 확장되었으며 공간적 소통이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서를 해석하는 것은 여전히 종교 권력에 의해 독점되었다고 지적한다.[127] 종교 권력에 의해 독점되어 그 권력을 담은 언어의 표현들은 특정 집단의 소유된 언어를 통해 가치체계가 형성되고 형성된 가치 체계는 인간의 삶에 계급이라는 구조와 대립을 양산 시켜낸다.[128] 또한 이러한 언어들의권력을 가진 화자들과, 어떤 수준의 언어 능력을 소유하느냐에 따라 정의되는 집단들을 통하여 특정 집단들의 모습을 드러낸다.[129] 위의 설명에서 주목할 점은 종교제도의 형성 과정에서 종교적 진리를 독점하려는 교회와 다른 해석의 개연성을 끊임없이 발견하려는 학문이 갈등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신심을 표현하는 일상적인 언어 감각과 어긋난 교리가 재생산되며, 대중적 신심과 학문적 해석이 빗나가는 양상이 종교 제도를 둘러싸고 벌어진다는 점이다.[130] 언어는 이렇듯 공간 속에서 힘을 가지며 권력의 확장을 끊임없이 유지하고자 하는 종교적 언어는 일반 대중 문화와 학문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언어의 권력 체계로 인한 갈등에 있어,

---

[127] 피에르 부르디, *언어와 상징 권력,* 115.

[128] 피에르 부르디, *언어와 상징 권력,* 65.

가치는 언제나 선택적인든 그렇지 않든, 가장 널리 퍼진 용법, 상식,평범한 감정, 진부한'어투, 속된 표현, 경박한 스타일 과의 격차로부터 나온다. 생활양식과 마찬가지로 언어의 용법에서도, 정의는 관계적일 따름이다. 세련된, 선택된, 고상한, 격조 높은, 잘 다듬어진, 품위 있는, 차별화된 언어는 통상적인, 흔히 쓰는, 평범한, 구어적인, 친숙한 또는 그 이상으로 민중적인, 흔히 쓰는 , 평범한, 구어적인, 친숙한, 또는그 이상으로, 민중적인, 날것의, 거친, 허술한, 자유분방한, 진부한 속된 언어에 대한 부정적인 참조를 숨기고 있다.

[129] 피에르 부르디, *언어와 상징 권력,* 74.

[130] 한국 여성 신학회, *미디어와 여성신학* (서울: 동연, 2012), 116.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Michel Foucaul)는 언어 행위를 '파르헤지아'로 정의하면서 언어 행위에 있어 반드시 자기 성찰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푸코가 정의하는 '파르헤지아'의 본질은 타자를 의식하지 않는 주체 스스로의 언어적 실천이며, 이는 오직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언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도덕적 실천을 수행하는 것라고 정의한다.[131] 푸코의 설명에 따르면, 파르헤지아는 사람들이 참된 주체가 되도록 서로 이끄는 과정이며 윤리적 주체는 자기를 배려하는 주체이다. 또한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참된 모습을 솔직히 말하는 언어적 실천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주체가 되어가는 것이다.[132] 다시 말하면, 주체는 어떠한 외적인 가치나 원리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삶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면서 자신만의 도덕 규범을 정립해나간다. 이러한 '윤리적 주체'를 양성해 나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기배려'라는 단어로 정의한다. 자기 배려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통치하기 위한 기술이 아니며, 자신을 위해 필요한 기술로 정의된다. 또한 자기 배려는 모든 사람이 전 생애에 걸쳐 자기 성찰을 수행해야 하는 생활 방식이며, 자기를 관조하고 성찰하는 관념적 성격으로부터 실제적인 실천의 성격이 중요하다. 이는 영혼의 정화는 구체적인 실천적 행위로 이해되며 반드시 그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133] 이렇듯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기 배려의 훈련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데 이 점에서 중요한 점은 자신의 참된 주체성을 찾는 훈련에서 타인과의 언어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한편, 하버마스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조건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버마스는 언어는" 단순히 객관적 사실을 표상하는 수단이 아니라 행위자들의 상호관계를

---

[131] 하상복, *광기의 시대, 소통의 이성,* 221.
[132] 하상복, *광기의 시대, 소통의 이성,* 222-3.
[133] 하상복, *광기의 시대, 소통의 이성,* 216.

이끌어내는 힘이자 그들 사이에서 실제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장치"라고 정의한다.[134] 언어는 곧 서로에 대해 왜곡됨 없이 상호 이해에 도달하는 것을 뜻하며 이는 곧 완전한 의사소통이며 이러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타당성요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하버마스는 이러한 '타당성 요구'에는 이해 가능성, 진리성, 적합성 그리고 진실성의 네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135] 위의 네 가지 타당성의 요구를 바탕으로언어는 열린 공간에서 타인과 관계 맺기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매개물이 된다. 리처드 마우 또한 언어 사용의 민감성에 대해 언급한다. 그는 기독교인만 쓰는 신앙 고백적 "중층적 담론"의 사용되는 언어를 자제하고 공적 담론에서 통용되는 평이한 용어로의 전환을 통해 신학적인 배경이 없는 이들에게도 공적인 문제들을 다룸에 있어 납득이 용이하도록 해야 함을 강조한다.[136]

위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공적 기관으로서의 기독 저널리즘에 사용되는 언어는 보다 보편적이고 대중적이며 특정 종교인이 아닌 모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사회와 대중의 공감대를 이루어 나가야 함을 지적한다. 특히 기독 저널리즘은 이미 기독교의 특수성과 한계성이 있기에 더욱 이러한 한계를 넘어 사회와의 소통을 원할히 할 수 있는 언어들을 선택함으로써 독자들이 세계화 시대에 있어 다양한 공동체에 대한 평등적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C. 교회 내의 다양한 직업군의 독자들의 참여란 활성화

기독 저널리즘의 편집에 있어 독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세계화 시대에 있어 미디어의 발전은 이제 독자적으로 개인 방송을 만들고 개인의 목소리를 내는데

[134] 하상복, *광기의 시대, 소통의 이성,* 232.
[135] 하상복, *광기의 시대, 소통의 이성,* 233–4.
[136] 리처드 마우, *문화와 일반은총,* 129–34.

주저하지 않는다. 과거 대중의 여론을 형성하는데 공적 언론 기관들의 영향력이 컸던 것과는 달리 현대 사회에서는 여론의 형성 방법이 사뭇 달라졌다. 온라인 상에서의 한 개인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수십 만의 여론을 형성하고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공유되면서 공론의 장이 연출된다.기독 저널리즘의 필진들의 직업군의 고정화와 특정한 주제에 대한 지나친 이원론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을 담은 기사들은 현대 사회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에 상당한 무리가 있다. 이에 다양한 직업군의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담고 독자들의 다양한 의견도 함께 게재되어 공론장으로서 보다 확대된 공적 언론 기관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독 저널리즘은 교회 내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더 활성화하고 성도들과 독자들의 참여를 독려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다소 해결하는 긍정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특별히 한인 이민 교회 안에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교회 공동체원들이 공존하고 이에 한 주제에 대한 시대별, 연령별, 국가별 다양한 관점이 제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다양성의 환경을 잘 활용한다면 공론의 장으로서의 기독 저널리즘의 내용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D. 주제의 균형적 시각과 형평성

나는 앞서 기독 저널리즘에서 동성애 관련 보도를 통해 기독 저널리즘의 지극히 편향되고 차별적인 보도 성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와 교회의 부정적 반응의 기사에 있어 그 내용이 성서의 문자적 해석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 바 있다. 분명 기독 저널리즘에 게재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내용들이 기독교 전체의 의견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 저널리즘의 내용에 있어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기사 외에는 다른 시각과 목소리를 찾아 볼 수 없었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다.이를 통해 나는 기독 저널리즘의 편향된 보도와 편협적인 관점의 기사 내용들이 저널리즘의 주를 이루고 있어 다양한

신학적 해석과 의견이 배제되어 있다고 결론내렸고, 이러한 기사 편집은 기독 저널리즘이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중심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기독 저널리즘의 특수성에 있어 기사 내용들이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필진의 다수를 이루고 기사들은 성서를 인용하는 빈도수가 매우 높다. 이에 공적 기관인 기독 저널리즘에서의 신학적 해석과 성서 인용에 있어서 보다 더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기독 저널리즘이 공적 언론 기관으로서 목회자들의 기사를 게재할 때 마샬의 강조점을 반드시 숙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마샬(Ellen Ott Marshall)은 독단주의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학적 겸손함을 주장한다. 특히 신학적 겸손함의 표현을 통해 강조되어지는 것은 지식의 한계와 부분적 관점을 인정하는 자세와 의도적이고도 철저하게 자신의 처지와 견해에 대한 해석학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신앙적 헌신에 대해서는 투명하되, 지식의 다른 원천들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137] 특히 마샬은 새로운 공적 주제에 대한 윤리적 문제 대해 논의 할 때 자신이 취하는 윤리적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옳고 그름으로만 정의할 수 없는 중간 지점이 존재함을 인정할 때, 우리와 대립적인 상대와 대화의 가능성을 열게 된다고 조언한다.[138] 다른 개념에서 발생되어지는 모든 요소의 저변에 깔려 있는 공동의 이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상호 간의 대립적인 입장에서 공통점을 발견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찬반의 개념에 있어 윤리적 모호성에 당면한 다양한 공적 주제에 대해 한 가지의 답을 내기보다는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다름의 화해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 공적 언론의 중요한 기능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

[137] 엘렌 오토 마샬, *광장에 선 그리스도인*, 147.
[138] 엘렌 오토 마샬, *광장에 선 그리스도인*, 134.

# Chapter VII
# 새롭게 보는 동성애

나는 이미 기독 저널리즘에서 다루는 동성애 주제 관련 기사들이 지나치게 부정적이며 편파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그 중심에 기독 저널리즘에 내재되어 있는 이원론적 사유 방식으로 인한 다양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앞서 여러차례 언급했듯이 이원론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에서 나타나는 짝패구조는 한 쪽의 의미가 지나치게 강화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구조는 두 가지 외의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는 차별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차별 구조가 담론화되어 내재되면 차별에서 발생되어지는 부정적 결과들을 당연시 여기게 된다. 이에 나는 이 장에서는 전통적 통념에서 당연시 여겨지는 동성애에 관한 부정적 개념들에 대해 다시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동성애 다시 보기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동성애의 부정적인 전통적 규범들의 관점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동성애에 대한 통념들에 대해 좀 더 객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동성애에 대한 오해를 드러내고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함이다.

## A. 인류의 성은 오직 여성과 남성 뿐인가?

역사의 통념 안에서 인간은 여성과 남성, 두 가지 성으로만 구별되었다. 내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17 년 운전면허증에 비로소 여성, 남성 그리고 제 3 의 성을 표기 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대부분의 나라의 성별 표기법에는 여전히 여성과 남성 이외의 다른 성의 표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성 전환자인 트렌스젠더의 경우에도 남성이 여성으로 혹은 여성이 남성으로 성을 전환한다. 이러한 구분법은 얼핏보면 여성과 남성은생물학적 조건에 의해 구분되는 것 처럼 보인다. 역사 안에서 생물학적 조건에 충족된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는데 그렇다면 생물학적 조건에 충족되지 않은 성은 어느 범주에 해당되는가?

여성학자 정희진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양성 구분법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인간이 양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고는 인류 역사 전반을 지배해 온 전제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언어와 사유 체계가 만들어지는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하면서 언어를 통해 만들어진 이분법은 남성과 여성으로 모든 인류를 구분지으며 제 3 의 성에 대한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한다.[139] 정희진의 주장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의 구분법으로 인해 인류는 제 3 의 성에 대해 그 존재 자체도 거론하지 않았으며 인간의 범주 안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트랜스페미니즘 운동가이자 행위 예술가이며 젠더 이론가인 케이트 본 스타인(Kate Bornstein)의 주장도 정희진과 맥을 같이 하는데,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 성의 구분법에 대해 *젠더 무법자-남자 여자 그리고 우리에 관하여* 라는 저서에서 그는 성별을 남과 여의 짝이 아닌 복수로 해석한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개념은 실체가 아니고 규범이며, 성소수자들의 존재와 간성인 인터섹스의 존재를 언급한다.[140] 이 간성은 생식적으로 혹은 성적 해부학 측면에서 볼 때 여성, 남성이라는 전형적인 범주에서 벗어났다고 간주되는 이들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자들의 유형은 너무도 다양한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형태의 인터섹스의 존재가 보고되거나 인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에는 전통적 규범에서 성별에 대해 두 가지만을 제한했던 규범을 깨고 다양한 생물학적 조건을 바탕으로 성별을 구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더욱 더 놀라운 것은 매건 드프란자의 설명인데, 고대의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이 남성과 여성으로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을 묘사하는 언어 그리고

---

[139] 정희진, *양성 평등에 반대한다*, 29.

[140] 게이트 본 스타인, *젠더 무법자-남자 여자 그리고 우리에 관하여*, trans. 조은혜 (서울: 바다출판사, 2015), 374-5.

그들이 지역 사회에서 차지하는 자리에 대한 법도 있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141] 이렇게 인류가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보편적이라는 통념에서 제외된 제 3 의 성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인류의 전통적 규범 안에서 성별이 오직 여성과 남성으로만 구분되어왔을까? 또한 성의 구분에 있어 만약 간성이 생물학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조건에 충족되지 못해 제외되었다면 트렌스젠더의 경우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생물학적 범주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더 나아가 동성애는 남성과 남성이 또한 여성과 여성을 사랑하는 행위가 성별의 구분법에 저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극심한 차별과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이유 또한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 정희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젠더 사회에서 모든 인간은 인간이기 전에 남성과 여성이어야 하는데 남성과 여성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남성스러움과 여성스러움이라는 개념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때 남성과 여성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142] 결과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성별 구분이 단지 생물학적 분류가 아니라는 것이다. 생물학적 분류로 성별을 구분한 것이 아니라면 여성과 남성은 문화적 구성물이며 규범의 산물이다. 양성 구분이 문화적 구성물이며 규범의 산물이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 규정되어진 규범이고 이 규범 안에서남성과 여성으로의 양성 구분만을 필요로 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러한 규범은 전통적인 통념으로서 인류 역사에 내재해왔고 이를 통해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 성 구분외에  간성과 동성애, 트렌스젠더들의 존재를 배제해왔다. 그렇다면 어떤 전통적 규범의 틀이 남성과 여성만을 인정하였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희진의 주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141] Megan K. DeFranza, *Sex Difference in Christian Theology: Male, Female and Intersex in the Image of God* (Grand Rapides: Ewrdmans, 2015), quoted in 윌리엄 로더 et al., *동성애에 대한 두 가지 견해*, trans. 양혜원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18), 112.

[142] 정희진, *양성 평등에 반대한다*, 37.

이성애 제도이다.[143] 정희진은 가부장제와 젠더 체제는 모두 이성애 제도 없이는 작동하지 않는다며 이 제도 안에서 간성과 동성애가 문제가 된다 고 지적한다. 정희진의 주장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되는데 이성애 제도는 남성과 여성을 통한 이성애 제도를 강화함으로 역사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에 초점했다. 이성애 제도를 통한 남성과 여성으로의 짝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이성애가 보편적 개념의강자로 존재한다면 보편성의 반대되는 개념인 특수성을 지닌 예외된 성별은 자연히 약자가 된다. 이것은 단순히 성의 문제가 아닌 보편과 특수라는 이원론적 거대 담론에 의해 특수가 보편의 하위 개념으로 치부되고 특수는 보편이 될 수 없기에 차별과 불평등을 감수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역사 안에서 특수라는 이름으로 외면당하고 차별을 정당화했던 사건들은 무수하다. 정희진은 보편의 반대 개념은 특수가 아닌 차이라고 설명하면서 특수는 보편의 대립 개념보다는 하위 개념으로 치부되기 때문에 특수를 차이로 보고 또 하나의 보편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44] 이렇듯 남성과 여성, 범주 안과 범주 밖, 보편성과 특수성의 구조 안에 나타나는 차별 구조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원론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의 부정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B. 남성과 여성은 모두 이성애자인가?

전통적 규범 안에서 당연시 여겨지는 또 하나의 전제는 바로 남성 또는 여성이라면 모두 이성애자라는 개념이다. 남성과 여성이 적정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해야한다는 것은 전통적 규범 안에서 매우 정설처럼 통용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해석되며, 자연의 모든 만물의 이치와도 부합된다고 여긴다. 이 점에서 '자연스럽다'고 보는 것을 자연법이라는 것으로

---

[143] 정희진, *양성 평등에 반대한다*, 38.
[144] 윌리엄 로더 et al., *동성애에 대한 두 가지 견해*, 46.

성급하게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매건 드프란자(Megan K. DeFranza)의 충고를 염두해둘 필요가 있는데, 매건 드프란자는 기독교 초기의 문서들 속에서 경고하는 바를 설명하면서 1 세기에는 강간, 성매매, 노예에 대한 성 착취가 모든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진 반면, 임신 가능성이 배제된 모든 성관계, 수동적 남성 섹슈얼리티, 능동적 여성 섹슈얼리티는 모두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었다고 주장한다.[145] 이처럼, 과거에는 자연스러웠던 것이 현대 사회에서는 자연스럽지 않다. 다시 말해 현대 사회 강간, 성매매, 노예에 대한 성착취는 범죄 행위이다. 반면, 임신 가능성이 배제된 성 관계에 대해 현대 사회는 임신 가능성을 차단하는 다양한 방법을 고안하고 장려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성관계시 콘돔의 착용이나 여성의 피임약, 피임 도구들을 사용하도록 장려하며, 체외 수정과 대리모의 출산등은 모두 임신 가능성이 배제된 성관계에 해당된다. 현대 사회에서는 임신 가능성을 배제하는데 대해 '자연스럽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지 않고 이를 권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스럽다는 것의 의미는 역사적 상황과 시대적 배경에 따라 그 해석이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사실상 남성과 여성의 결합만이 가장 자연스럽다는 표현은 다시 재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남성과 여성의 결합인 이성애만이 자연스러운 것이라 주장한다면, 이는 임신과 출산을 통한 결혼 제도에 대한 담론의 영향이라 가정할 수 있다. 결혼 제도는 이성애를 통한 여성의 임신과 출산이 전제되며 이 결혼 제도는 기독교의 역사 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이다. 성서에서는 결혼 제도를 통한 서로 연합된 관계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비유로 들고 그 만큼 신으로부터의 최고의 선물이며 성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결혼 제도 안에서 행해지는 성행위를 통한 출산은 결혼에 있어 가장 본질적이고 이러한 출산은 사회 내에서 윤리적이고 선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이는 결혼 제도 밖에서의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비교하면

[145] 윌리엄 로더 et al., *동성애에 대한 두 가지 견해*, 132.

임신과 출산의 과정이 같다하더라도 결혼 제도 안과 밖의 사회 내에서의 구조적 차별은 상당히 크다. 특히 미혼모나 이혼한 사람들에 대한 인식가 법의 보호 정도를 볼 때 결혼 제도라는 것은 단순히 이성애자들을 통한 임신과 출산의 장려 이상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러한 결혼 제도 안에서는 이성애자 외의 다른 형태의 결합은 인정될 수 없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는 성서를 통한 기독교적 관점이 전통적 규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없다. 반면, 만약 신약 성서의 시대에서의 결혼관에서 결혼 제도를 지금과 같이 해석하지 않았다면 이는 성서가 지금의 결혼관을 장려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성서학자인 웨슬리 힐(Wesley Hill)은 신약성서의 예수와 바울의 결혼에 대한 언급을 통해 신약 성서에서는 오히려 결혼을 평가절하한다고 설명한다. 힐에 따르면, 교회의 첫 네 세기 동안 독신은 가치 있는 일이었고, 결혼은 허용되었으나 확실히 차선이었다고 한다. 이는 "죽음이 있는 곳에 결혼이 있다" 라는 믿음의 핵심에서 비롯되는데 모든 인간은 죽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세대가 필요했고 죽음을 피하기 위해 결혼을 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으면서 굳이 결혼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는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고 한다.[146] 현재, 한국 기독교 내에서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시선의 중심에는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남성과 여성의 신성한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웨슬리 힐의 설명을 토대로 한다면 사실상 결혼의 유무는현대의 해석처럼 신성한 것이거나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가능성을 열어 둔다. 흥미로운 것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결혼을 피해야 했던 초기 기독교는 동시에 재림이 지연되면서 이러한 결혼 제도가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웨슬리 힐은 인류 역사 안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을 설명하면서, 결혼은 인간의 성적

[146] 윌리엄 로더 et al., *동성애에 대한 두 가지 견해*, 268.

욕망을 포함해 금욕에서 실패하는 자들을 위한 최선책이었고, 결혼의 유익을 설명하기 위해 '땅에 충만하라'는 창세기의 창조의 명령을 강조하며,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인류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혼을 통한 출산을 장려를 독려하고 남녀의 상호보완성은 출산을 위해 마련된 창조의 현실로 해석되었다고 설명한다.[147] 이 해석을 되짚어 보면 출산이 없는 것은 창조의 질서에 반대되는 개념이 유 출되었고 그것은 죄의 결과로 명명되어졌다. 이 부분에서 간과되어서는 안되는 사실이 있는데 죄의 개념에 있어출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남성의 사정에 관한 부분도 적용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남성과 여성의 창조는 출산을 위한 전제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은 결혼 제도 밖의 성행위를 하는데 큰 제한이 없었다고 한다. 역사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이성애적 성행위가 남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남성의 성기 삽입이 진정한 남성성의 표시였다고 한다. 따라서 남성의 성행위는 삽입 당하는 대상에 대한 권력을 확보하거나 강조하는 방법이었다. 이에 남성이 여성처럼 수동적 역할을 받아들이는 존재는 아주 수치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졌다.[148] 또한 고대 로마와 그리스 사회에서 동성애가 성행했다는 역사적 사실들이 있다. 이는 노예의 주인인 남성은 남성 노예와 정기적으로 항문 성교를 함으로써 자신의 소유권을 과시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어린 남아 노예들도 해당되었다.[149]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볼 때 이성애 간의 결혼 제도와 동성 간의 행위는 권력에 의한 차별 구조에서 행해졌으며, 이러한 구조는 동성 간의 성행위는 평등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졌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다시말해, 성서에서의 말하는 남성과 여성의 이성 간의 결합을 통한 결혼제도도 남성중심의 불평등한 관계와 차별이 만연했으며, 대부분의 동성 간의 결합은평등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비롯한 관계가 아니였다는 시대적 배경을 감안할 때, 성서에서

---

[147] 윌리엄 로더 et al., *동성애에 대한 두 가지 견해*, 272-6.
[148] 윌리엄 로더 et al., *동성애에 대한 두 가지 견해*, 51.
[149] 윌리엄 로더 et al., *동성애에 대한 두 가지 견해*, 280.

언급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관점들은 성서의 시대적 배경 안에서 재조명되어야 하며, 성서의 문자적 해석만으로 현대의 동성애와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결혼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보다 관심할 필요가 있는데 단지 이성애의 결합인가? 아니면 동성애의 결합인가? 라는 문제보다는 인간과 인간 관계 안에서 대등하고 평등한 결혼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지 서로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고 협력적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결합인지가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C. 성서의 동성애 다시 보기

동성애를 좀 더 객관화시키기 위하여 성서의 다시 보기는 꼭 필요하다. 이유는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은 기독교의 성서 해석과도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동성애 반대 집회나 혐오적 반응에서 보면 성서에 대한 언급이 빠짐없이 등장하며, 특히 교회 안 에서 동성애에 대한 반대적 입장의 중심에 성서의 권위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고대 유대교와 기독교의 섹슈얼리티에 가장 탁월한 학자라는 평을 받고 있는 윌리엄 로더(William Bill Loader)는 기독교 신앙이 전통적으로 동성애의 성적 지향을 도착적인 것 또는 적어도 병리적인 것으로 보아왔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경우 심각한 죄를 짓는 것으로 보아왔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관점은 성서를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성서의 금지 조항들과 부정적 언급에 대해서 그대로 삶에 적용하려 하는 시도에서 실제의 경험과 충돌하면서 신앙의 위기를 낳게 된다고 언급한다.[150] 윌리엄 로더(William Lauder)는 성서를 이해하는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또한 성서의 저자들이 동성애 지향과 행위에 대해서 믿고 말하는 자체가 정확하고 충분한지 재고해 보아야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다. 성서에는 다양한 고대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으며 어떤 것들에는 도덕적, 윤리적 함의가 있는데 이 안에는 그 당시의  언어과 관념이 표현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할

[150] 윌리엄 로더 et al., *동성애에 대한 두 가지 견해*, 29.

필요성이 있다.[151] 나는 앞서 언급한 윌리엄 로더(William Lauder)의 지적처럼 성서를 이해하는 방식의 변화는 동성애 주제를 좀더 객관화하여 공정하고  평등한 시각을 갖게하며, 동성애주제 안에서 연관되는 다양한 삶의 이슈들에 포괄적 안목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1. 소돔의 멸망 원인은 동성애이다?

창세기 19 장은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해석의 근거로 자주 사용되는 성서 본문 중 하나이다. 그 이유는 창세기 19 장 5 절에서 '남성이 남성을 상관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 본문을 통해 흔히 소도미라고 불리는 소돔은 일반적으로 성적 문란함으로 저주를 받아 성이 멸망하게 되며 그 주요 원인이 동성애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이러한 해석은 '동성애=죄' 라는 공식을 성립시켰고 이는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개념의 일반화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합법적 관계에 대한 강한 반발을 일으키는데 중심이 되었다.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결과물들의 중심 축을 이루고 있는 '동성애는 죄'라는 공식이 깨어지지 않는다면 동성애를 이성애와 함께 평등적 시각으로 바라보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나는 창세기 19 장의 본문 다시 보기를 통해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원인이 동성애였는지, 만약 아니라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원인이 무엇인지를 성서를 통해 규명하고, 창세기 19 장의 본문을 재조명함으로써 동성애에 대한 일반적이고 지나치게 편파적인 해석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먼저,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라는 악한 행위로 인해 멸망했다는 일반적 해석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는 본문은 창세기 18 장 20 절에서 21 절이다. 이구절은'소돔과 고모라에서 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큰 죄를 저지르고 있어 이로 인해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크다'라고 언급한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이

[151] 윌리엄 로더 et al., *동성애에 대한 두 가지 견해*, 32.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동성애에 대한 언급은 창세기 19 장 6 절에서 나타나는데 19 장의 내용은 이러하다.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이 두 천사를 만나 롯의 집에 묵기를 청한다. 롯의 간청으로 롯에 집에 들어간 천사들, 그 때 소돔 성 각 마을에서 젊은 남자들과 노인들이 몰려와 천사들을 찾는다. 그리고 천사들을 남자들이라 일컬으며 상관하겠다고 말한다(창 19:1-6, 표준새번역). 위의 본문에서 정황상 '남성이 남성을 상관하겠다'는 말이 사실상 동성애적 행위로 간주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어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일반적인 해석에 있어 창세기 18 장 20 절에서 21 절의 내용과창세기 19 장 6 절의 동성애 언급을 연결해 창세기 18 장 20 절에서 21 절의 원인을 19 장 6 절의 동성애로 유추하고'소돔과 고모라의 악한 행위는 동성애다'라고 단정하는 것이다. 나는 이 가설에 대해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창세기 19 장에서 악한 행위를 동성애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둘째, 창세기 18 장 20 절과 21 절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정작 그 악한 행위와 죄가 무엇인지, 왜 백성들이 울부짖는지에 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는 사실이다.그러나 뒷받침할 만한 성서의 다른 본문이 있다. 이 본문에서는 소돔의 멸망 원인이 무엇인지를 명시하고 있다. 창세기 13 장 13 절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원인을 '소돔 사람들의 악한 마음이었다'라고 언급한다. 또 다른 본문인 에스겔 16 장 49 절과 50 절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원인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하는데, 본문에 따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교만과 태평,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음이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성서의 설명을 토대로 단순히 동성애 행위만을 두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으로 주장하기에는 상당한 억지가 있어 보인다. 더우기 동성애와 같은 본문인 창세기 19 장에는 동성애 외에 충격적인 또 다른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동성애만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되는 것에 대해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본문 창세기 19 장 7 절 이하에 보면 롯이 천사를 상관하겠다는 동네 사람들을 타이르면서 결혼하지 않은 딸들을

내어주겠다고 제안하고 딸들은 아버지에 의해 강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된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의 행동은 실로 어의없으며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다. 창세기 19 장의 본문에서는 강자와 약자, 이방인과 내국인에 대한 차별의 구조 뿐만 아니라 가족에 의한 딸들의 성학대와 차별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차별 구조에서 왜 여성들의 강간을 용이하는 사건에 대한 관심보다 남성이 남성을 상관하겠다는 구절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본문에서 약자로서 차별 구조에 노출되어 있는 딸들의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는다. 창세기 19 장의 내용과 비슷하지만 더 충격적인 본문있다. 구약 성서 사사기 19 장이다. 사사기 19 장은 한 레위인과 그의 첩인 아내가 이방 땅의 노인 집에서 하룻 밤을 묵을 때 벌어진 사건이다. 사사기 19 장 22 절에 성읍의 불량배들이 몰려와 집 주인인 노인에게 "노인의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좀 해야겠소"라고 말하자, 그 노인은 처녀인 딸과 레위인의 첩을 끌어내다 주겠다고 하면서 그 레위인에게만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말라고 간청한다. 그러자 레 위사람이 자신의 첩인 여인을 남자들에게 주고 불량배들은 그 여인를 윤간하여 욕 보인 뒤에 새벽 동이 틀 때에야 놓아 주었다. 이후 레위인이 아침에 떠나려고 문을 열고 나와 보니, 그 여인이 두 팔로 문지방을 잡고 문간에 쓰러져 죽어 있었다. 사사기 19 장에서 이 불량배들의 죄는 남성을 상관하겠다는 동성애가 아니라 레위인의 첩을 강간한 것이다. 또한 동성애는 남성에게 있어 단지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두 본문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남성들이 남성 손님을 대할 때의 태도다. 남성 주인들은 남성 손님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는 일보다는 여성들을 강간하게 하는 일이 훨씬 더 용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으로 해석해 볼 때, 현대 사회에서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반대하는 양상과는 다르게 고대 사회에서는 동성애를 죄로 여기지 않았고 다만 수치로 여겼다는 사실이다. 메건 드프란자(Megan K.DeFranza)는 고대 사회의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기대가 현대사회와 얼마나 다른 지를 알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동성간의 성행위를 정죄하는 구절로 이해되는 성경 본문들에는 고자와 어린 남성들의 성노예라든지 여성스러움 또는 나긋한 몸에 관련한 맥락을 중요시 여긴다고 설명한다.[152] 고대 사회에서의 미덕은 남성성으로 여겨졌으며, 남성 간의 동성 성 행위에서 수동적으로 삽입당하는 사람은 여성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여성화되는 것을 상당한 수치로 여겼다. 이런 점에서 고대 사회가 여성에 대한 생각이 어떠했는지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회 내에서 규정되어진 남성성에 대한 고대 사회의 잣대와 더불어 성적 착취, 노예, 성매매들에 대한윤리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동성 간의 성 행위에 고찰은 반드시 이러한 사회적 배경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배경들은 초대 교회가 동성 간의 성행위에 대해 충분히 염려했을 것이라는 점을 신약 성서에서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동성애 주제에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은 악과 죄라는 개념이 동성 간의 성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아니라 여성스러움과 여성성으로 치부해 버리는 문화적 편견과 차별이 함축되어있다는 사실과 함께 동성애는 오히려 권력 구조 안에서 발생 되어진 착취 행위였다는 점이다.

2. 바울은 동성애를 죄로 여긴다?

신약 성서에 있어 예수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라 하면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 없다. 예수 사후 바울의 서신들은 초기 기독교 운동의 다양한 단서들을 제공하고 있다. 27 권의 신약 성서 중 13 권의 책은 바울의 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그 중요성을 방증하며 수 많은 학자들이 바울을 연구해 오고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신약 성서의 반 이상이 바울의 서신인 만큼 사도 바울이 기독교에 끼친 영향력과 파급 효과는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말이다.특히 동성애의 언급에 관한 사도 바울의 메세지는 동성애를 부정적 관계로 해석하는데 일조를

[152] 윌리엄 로더 et al., *동성애에 대한 두 가지 견해*, 115–23.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 언급한 내용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했기 때문이다.사도 바울의 서신을 문자적 표현만으로 그가 말하고자 하는 뜻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의 동성애의 발언에 대해서도 그 시대적 상황과 그 배경 바울이 처한 특수한 삶의 자리 그리고 문화 등 다각적 정보들을 통해 접근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동성애에 관한 부정적 견해를 피력할 때, 로마서 1 장의 바울의 부끄러운 정욕과 부끄러운 관계라는 언급이 인용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로마서 1 장에서 바울은 사람들이 짓는 갖가지 죄를 나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는데, 26 절에서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27 절에서는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저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그들의 잘못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받았다고 말한다.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1 세기 바울이 의미하는 바른 관계는 무엇인가?하는 점이다. 바울은 로마서 1 장 20 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욕정대로 하게 두셨다고 말한다. 그리고 바울은 그 욕정의 댓가로 26 절로 31 절까지를 나열한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연스로운 것이무엇인지를 안다면, 위에서 언급한 바울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이해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질문에 적절한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 줄 학자는 버나뎃 브루튼(Bernadette J. Brooten)이다. 그는 그의 연구서에서 1 세기의 유대인과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스러운

성관계와 부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설명한다.[153] 그에 따르면, 바울 때의 문화를 형성한 사람들은 동의에 의한 것이든 강요에 의한 것이든 모든 종류의 질 삽입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았다고 한다. 로마사회에서 여자들이 했던 자연에 반하는 것은 여성들끼리의 성관계이고 자연스러운 관계란 다양한 종류의 이성애 관계들로서 결혼관계, 간음, 근친상간, 성매매, 성인 남자와 미성년 여자의 성관계 등이었다. 또한 여성의 동성간의 행위는 임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임신으로 이어지지 않는 성 행위에 있어서 능동적 여성 파트너가 남성처럼 행동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또한 남성의 경우에서는 수동적 남성 파트너의 행동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 더우기 주목해야 할 점은 로마서 1 장 26 절에서 27 절의 동성 간의 성행위와 29 절에서 31 절까지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무정함, 무자비함 등의 표현의 연결이다. 이는 단지 동성애가 평등적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성적 착취에 의한 행위들이였고 이러한 사치와 성적 과잉은 평범한 로마 시민들의 실제 행동을 묘사하기 보다는 귀족들의 과도한 행위를 말하거나 왕족 집안의 잘못된 행적들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154] 이러한 연구를 통해 메건 드프렌자(Megan K.DeFranza)는 현대 사회에서 용납되는 이성애의 관계와 1 세기의 이성애에 대한 자연스러운 것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1 세기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현대의 기독교 성 윤리의 근거로 삼기에는 얼마나 부적합한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155] 로마서 1 장의 본문의 내용은 참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죄의 추락 경로를 묘사하고 있고 성적 욕망은 다 하나님을 돌아선 결과로 설명된다.바울은 욕망와 정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의 타락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153]Bernadette J. Brooten, *Love Between Women: Early Christian Responses to Female Homoerticis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251-2, quoted in 윌리엄 로더 et al., *동성애에 대한 두 가지 견해*, 131.

[154] Bernadette J. Brooten, *Love Between Women*, 132-7. 메건 드프란자는 다수의 학자들의 연구를 참조해 로마서 1 장의 본문을 해석한다.

[155] Bernadette J. Brooten, *Love Between Women*, 131.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모든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해석이며 동성애자들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는 점과 엄숙함과 선함을 바탕으로 평등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신실한 성 소수자들에 해당되는 본문은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3. 한국 보수 교계는 왜 유독 동성애를 싫어하는가?

현대 사회에서 동성애라는 공적 이슈는 교회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아주 예민한 이슈이기도 하다. 단지 성서 본문에 대한 다른 관점과 접근을 통한 해석이 설득력이 있다 할지라도 한국 교회의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태도의 입장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이다. 왜냐하면 성서에서 다루어지는 죄에 관한 이슈는 무수히 많고 현 사회 내에서교회와 목회자들의 불법적 행위들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정치적 이슈들이 확대되어 여론을 조성하고 사회 참여에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쇄신해야 한다는한국 교계의 모습은 이전에 없었다. 오히려 한국 기독교가 사회의 공적 참여의 부족과 저조한 관심으로 인해 비판을 받아 온 사실로 미루어 짐작컨데 한국 교계의 집회들은 대부분 사경회나 부흥회 또는 구국 기도회로 종종 열렸지만 이것이 여론을 조성하고 정치적 사회적 이슈와 맞물린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 할 수있다. 한국의보수층이라고 자칭하는 기독교 단체들은 동성애라는 공적 이슈에 대해 동일하게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동성애 반대라는 주제하에 교회의 연합을 촉구하기도 한다.

한편, 이러한 집회에 대한 내용이 기독 저널리즘의 대서특필 될 때 점점 우려가 되는 것이 눈에 띈다. 2018 년 2 월 22 일 미국 장로교 서북미 한인 교회 협의회는 2018 년 2 월 13 일 정기모임을 갖았다. 바로 동성애로 얼룩진 미국의 변화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였다.[156] 또 다른

[156] 폴 원, "PCUSA 내 한인교회, 교단의 동성애 수용에 침묵말자," *크리스천투데이*, February 26, 2018,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09885.

모임에서는 한 이민 교회 목사의 기자회견도 있었다.[157] 이 목사는 한국은 동성애의 물결을 막아 교회와 나라를 지키길 바란다며 교회의 생태계가 파괴되면 모든 것이 소용 없다며 서로 힘을 합쳐 동성애의 물결을 막자고 설교했다. 동성애에 관한 관심을 갖고 이 논문을 준비하기 시작한 2015 년 이후 4 년이 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기독 저널리즘의 동성애 관한 내용들은 동성애자들의 성 정체성의 문제에 대한 주제에서 보다 확대되어 이제 동성애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목회자들을 위협한다는 내용으로 변하고 있었다. 동성애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으로 묘사되고 있다. 정말 동성애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인가? 사실, 한 이념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는 내부의 문제를 덮기 위해서 다른 기제를 악으로 묘사해 내부의 힘을 결속시킬 때 사용되는 방법들은 역사 안에서 수도 없이 자행되어 온 방법이다. 한국 교계의 동성애의 강력한 반대 집회도 이러한 방법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는지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동성애자들이 교회를 위협하고, 동성애자 목회자를 허용하면 교회가 무덤이 될 것이라는 주장들은 이제 동성애에 대한 성정체성 에 대한 이질감에서 비롯된 차별이라 말하기에는 그 정도가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동성애가 점점 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하게 재고해야 할 문제이다. 나는 동성애에 대한 이러한 한국 교계의 입장 변화에 대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인 이유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나 교회 안에서 답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에서 나는한국 교계와 기독교의 정치적 행보와 사회 참여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던 중 한채윤의 글을 접하게 되었다. 동성애자 인권 운동가 한채윤의 한 마디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한국 교계의 극단적 반응안에 내재되어 있는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부정적 반응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가능케 했다. 그는 “왜 한국 개신교는 ‘동성애

[157] 김진영, “교회는 건물 아닌 사람…한국, 동성애 막아내길,” *기독일보*, February 21, 2018, http://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95335/20180221.

혐오'를 필요로 하는가? 라고 질문한다. 한채윤의 질문에 따르면, 현재의 한국 기독교가 동성애를 혐오하는 것은 사회적, 정치적 상관 관계 속에서 동성애를 혐오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가 동성애 혐오를 필요로 했던 상황은 무엇이었을까? 한채윤의 주장에 따르면,한국 개신교가 반동성애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최초의 시점이 2007 년이라고 한다. 그 이전의 다소 형식적이었던 반대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르다고 설명한다. 한채윤은 이러한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2007 년 10 월의 인전의 한국의 정치 상황을 살펴한다면서 한국의 근대 정치 상황과 교회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한다.[158]

요약하자면, 한국 교계는 정부가 교계의 이해 관계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기득권이 해체될 것에 대한 두려움에 정부의 정책이 교계에 영향을 미칠 것을 대비해 악마와 사탄, 적그리스도라고 지칭하는 시스템을 사용한다. 그 시스템이 빨갱이, 종북 좌파, 전교조, 통합진보당, 동성애자, 이슬람 심지어 교황으로 모습을 바꾸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159] 한편, 개신교 내부적 갈등으로 2009 년 8 월에 세계교회협의회에서 발표된 2013 년 총회 개최지가 부산이 되면서 한기총은 즉각 반대에 나섰고 보수 교단들은 종교 다원주의와 공산주의까지 포용하는 WCC 를 적그리스도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160]동성애의 혐오는 단지 성정체성의 혼란이나 성행위의 이질감에서오는 문제였을까? 그러기에는 한국 교회의 대처 모습이 너무도 편파적이며 성숙하지 못하다. 현재 한국 기독교의 문제는 대형 교회의 세습화를 비롯해 담임 목사의 성추행, 성폭행, 횡령, 금권 선거, 교회의 사유화, 논문 표절, 강간, 혼인빙자 간음, 등등의 문제들이 산재해 있고 이러한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은 현실적으로 교인의 감소와 운영의 실질적 어려움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

[158] 정희진, *양성 평등에 반대한다*, 158-82.
[159] 정희진, *양성 평등에 반대한다*, 164.
[160] 정희진, *양성 평등에 반대한다*, 176.

더우기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외부의 적을 만들어 시선을 돌린다고 해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강남순 교수는 자크데리다(Jacques Derrida)의 말을 인용해 종교의 책임성 수행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책임성은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며 이는 현대의 종교인들이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악마적인 것이란 비책임성”이라고 한다.[161] 강남순 교수의 지적처럼 한국 보수 교계들의 동성애에 대한 혐오 발언과 집회등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타자”에 대한 배려와 그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161] 강남순, “코즈모폴리턴 환대의 신학-필요성과 불가능성의 경계에서,” *기독교사상* (August 2014): 236.

Chapter VIII

결론(Conclusion)

나는 본 논문을 통해 지금의 한국 교회와 이민 교회는 성장주의, 교회와 사회 간의 소통과 참여의 실패, 개교회 중심의 개인주의적 신앙에 함몰 그리고 교회와 교단의 분리 등 비일비재하게 산재해 있는 교회의 문제들이 더 이상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공공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부정적 결과물들은 개인 중심적 신앙 형태만을 고집했던 결과, 사회 참여와 소통의 부재, 공동의 선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변화에 대한 무감각이라는 기독교의 부정적 결과물을 생산해냈고, 기독교의 사회적 공공성 인식의 부족은 사회 내에서 교회로서의 부정적 이미지와 세계화 속에서의 다양한 공적 주제에 대한 신학적 입장과 적절한 대답의 부재로 사회로부터의 외면과 그 존재의 의미를 찾기에 역부족이었음을 지적했다. 엄밀히 말하자면 지금의 교회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일상 생활의 터전에서 직면하는 사회적 상황들을 통제하고 그들 자신의 규범적 토대를 내면적으로 재구성하도록 돕는데 역부족이며, 공적 종교로서의 사회적 기능을 상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 공적 언론 기관인 기독 저널리즘도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기독 저널리즘은 교회의 현실적 자각과 성찰을 요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중심의 신앙 생활의 강조와 교회와 교계의 행사 소식 그리고 광고를 전달하는 정도의 기능과 역할에 머물고 있는 한계를 드러냈다. 현재의 기독 저널리즘의 내용들은 기독교와 한국 교회 그리고 한인 이민 교회에 공적 언론 기관으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통해 객관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통해 이러한 부정적 결과 뒤에 기독 저널리즘 안에 깊숙히 내재해 있는 '이원론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이 있음을 밝혔고, 기독 저널리즘의 내용 분석을 통해 이원론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에 근거한 집단적 이기주의와 차별의

정당화, 폭력과 부정에 대한 책임 회피 등을 드러냈다. 그 실질적인 예로 인간 존재에 대한 중요한 의제인 동성애에 대해 단지 옳고 그름의 이원론적 잣대를 들이대고 성서의 문자적 해석으로 극단적인 반대와 혐오로 귀결했음을 증명했다. 또한 동성애와 같이 이원론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이 인류의 삶에 미친 부정적 현상화와 결과물들인 가부장제와, 성차별주의, 왜곡된 영성 개념, 폭력의 위험성을 고찰했고 이원론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의 해체의 필요성을 위해 공공신학을 그 이론적 준거의 근거로 삼았다. 공공신학은 성을 포함해 종교적이라 여기면서 사적으로 여겨졌던 모든 부분들을 사적인 것이 바로 공적인 것이라는 전제하에 세계화 속에서 발생되는 수 많은 다양한 공적 주제에 대해 교회가 적극적으로 관심하고 참여함으로 다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평등 공동체를 이루어야함을 설명했다. 공공신학은 종교적인 문제라고 사적으로만 치부되었던 인식들 뿐만 아니라 성의 문제까지도 사실상, 사회의 공공적 이슈들에서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과 함께 사회적 공공성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모든 인간의 보편적 특성으로으로서의 신앙과 사회의 공적 참여, 공공선을 위한 열린 공론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공공신학의 특징을 통해 공적 언론 기관으로서 기독 저널리즘이 모든 독자들에게 공적 신앙으로서의 책임과 그 실천적 대안으로서 기독 저널리즘의 탈이분법 패러다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함을 주장했다. 더불어 본 연구는 기독 저널리즘의 탈이분법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을 위한 대안으로 다양한 실천적 공적 주제들의 범주 확장과 신중한 언어 행위의 필요성 그리고 독자들의 참여란 활성화, 주제에 대한 찬반 양론의 공론화등 실천적 대안들을 제안하였다. 특히, 공적 언론 기관으로 기독 저널리즘의 공적 기능의 강화를 위해 이원론적 패러다임의 사유 방식을 통한 극단적 거부감과 혐오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기존의 동성애에 관한 성서 해석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함과 동시에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는 성서의 다시 읽기를 통해 기존의 동성애에 대한 성서 해석에 보다 새로운 시각을 전하고자 했다. 또한

기독 저널리즘이 공적 언론 기관으로서 세계화 속에서 다름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평등적 시각에 따른 여론을 형성시키며, 공동체의 다양성을 인정하도록 하는 역할과 기능이 요구되어짐을 강조했다.

이제 공적 언론인 기독 저널리즘은 오랜 세월 동안 의례적으로 내려온 편집 과정과 주제 선정에 대한 통념에서 벗어나 공적 미디어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공적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고 심각하게 질문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기독 저널리즘은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 체계가 기독 저널리즘을 통해 가시화되고, 미디어로서 사회 안에서 기독교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더불어 공적 언론 기관으로서 여론을 형성하며 대중에게 다양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점과 특히 저널리즘의 본질적 기능에 있어 독자들에게 통전적 가치와 소견을 제공하며, 정보가 단일화되고 중앙 집중화되는 것을 막는 역할은 물론, 저널리즘의 사설과 칼럼은 공적 역할을 수행하며, 특정 이슈를 사회적 어젠다로 발전시킨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기독 저널리즘은 급격히 변화하는 세계화 속에서 교회와 사회를 향해 열린 시각과 관점을 통해 곳곳에서 일어나는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다양한 공동체들을 향한 평등적 시각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 공적 기능의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독 저널리즘은 기독교와 교회의 회복과 자기 성찰을 장려하고 대중들에게 실질적으로 당면한 다양한 삶의 문제들과 복합적인 공적 이슈들에 대해 기독교의 평등적 시각과 소통을 이루려는 노력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미국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리처드 마우(Richard Mouw)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시대적인 변화에 바르게 대처하려면, 역사적으로 이런 저런 기독교 공동체가 받아들인 것이나 결정한 것을, 맹목적으로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다. 공적 언론 기관으로서의 한인 기독 저널리즘이 세계화 시대의 이민 사회 속에서 수 많은 공적 주제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수혜자로서 평등적 시각을 제시하고 다양한 공적 이슈에 대한 전문적이고 나름의 능동적인 들음의 자세와 열린 공론의 장이 되길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Bibliography


1 차 자료(Primary Resource)

[한서]

강남순. *페미니스트 신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2.

______. *페미니즘과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고혜련. *신문 취재와 기사작성.* 서울: 중앙미디어북스, 2001.

김민남, 김유원, 박지동 외. *새로 쓰는 한국 언론사*. 서울: 아침, 1993.

문시영.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북코리아, 2007.

박경미. *예수 없이 예수와 함께.*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3.

손규태. *하나님 나라와 공공성: 그리스도교 사회윤리 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손승희. *여성신학의 이해.*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9.

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외.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4.

여성신학회. *성서와 여성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원용진. *새로 쓴 대중문화의 패러다임*. 서울: 한나래, 2010.

이경숙, 손운산, 정용석, 박경미, and 양명수. *기독교와 세계.*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3.

이형기. *하나님 나라와 공적 신학*.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9.

정희진. *양성 평등에 반대한다*. 서울: 교양인, 2017.

하상복. *광기의 시대, 소통의 이성*. 서울: 김영사, 2016.

______.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구조변동 읽기.* 서울: 세창미디어, 2016.

한국 여성 신학회. *미디어와 여성신학*. 서울: 동연, 2012.

[영서]

Ruther, Rosemary R. *Liberation Theology.* New York: Paulist Press, 1972.

[번역서]

게이트 본 스타인. *젠더 무법자-남자 여자 그리고 우리에 관하여.* Translated by 조은혜. 서울: 바다출판사, 2015.

리처드 마우. *문화와 일반은총.* Translated by 권혁민. 서울: 새물결플러스, 2001.

리처드 아스머. *공적신앙과 실천신학.* Translated by 연세기독교교육학포럼.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맥스 L. 스택하우스. *세계화와 은총.* Translate by 이상훈. 서울: 북코리아, 2013.

빌코바치 and 톰 로젠스틸.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 Translated by 이재경. 서울: 한국언론지흥재단, 2003.

사이토 준이치. *민주적 공공성.* Translated by 윤대석, 류수연, and 윤미란. 서울: 이음, 2009.

제니퍼 메이슨. *질적 연구 방법론.* Translated by 김두섭. 서울: 나남, 2010.

피에르 부르디. *언어와 상징 권력.* Translated by 김현경. 파주: 나남, 2014.

하버마스. *민주주의와 공론장.* Translated by 조항제. 서울: 컬처룩, 2015.

한나 아렌트. *어두운 시대의 사람들.* Translated by 권영빈.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3.

__________. *인간의 조건.* Translated by 이진우 and 태정호. 서울: 한길사, 1996.

Habermas, Jürgen. *The Structural Tran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공론장의 구조변동 부르주아 사회의 한 범주에 관한 연구.* Translated by 한승완. 서울: 나남출판사, 2004.

Riley, Gregory J. *하느님의 강.* Translated by 박원일.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5.

[저널]

강남순. "코즈모폴리턴 환대의 신학-필요성과 불가능성의 경계에서." *기독교사상* (August 2014): 234-50.

[웹사이트]

김진영. "교회는 건물 아닌 사람…한국, 동성애 막아내길." *기독일보*, February 21, 2018. http://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95335/20180221.

민종기. "시대 사조에 굴복한 동성 결혼 수용." *기독일보*, April 2, 2015.
http://kr.christianitydaily.com.

박성규. "예수 사랑 전합시다." *크리스천 위클리*, July 9, 2015. http://www.cnwusa.org/.

______. "세파를 거슬러 올라가라." *기독일보*, June 19, 2015.
http://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83779/20150619/%EC%B9%BC%EB%9F%BC-%EC%84%B8%ED%8C%8C%EB%A5%BC-%EA%B1%B0%EC%8A%AC%EB%9F%AC-%EC%98%AC%EB%9D%BC%EA%B0%80%EB%9D%BC.htm.

______. "하나님은 이 위기를 위대한 폭포로 만드실 것." *크리스천 위클리*, July 2, 2015.
http://www.cnwusa.org/.

새라김. "동성애는 선천적이 아니다!" *미주 크리스천 신문*, June 20, 2015.
https://www.chpress.net:4462/column-detail.html?cate=column&c_id=87&id=9529.

이승구. "공적 신학에 대한 개혁파적 한 접근." *한국 개혁신학*, last modified October 25, 2008.
http://www.miraech.com/board/view.do?iboardgroupseq=2&iboardmanagerseq=30¤tpagenum=&searchitem=&searchvalue=&iboardseq=111&irefamily=111&ireseq=0.

정태인. "공공선이란 무엇인가?" *공무원 U 신문*, November 17, 2014.
www.upubl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8.

최경환. "공공신학의 기원, 특징, 최근 이슈들." *예장뉴스*, last modified November 27, 2014.
http://www.pck-good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32.

폴 원. "PCUSA 내 한인교회, 교단의 동성애 수용에 침묵말자." *크리스천투데이*, February 26, 2018.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09885.

2 차 자료(Secondary Resource)

[한서]

강남순. *현대여성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공적신학과 교회 연구소. *하나님의 경제*. 서울: 북코리아, 2013.

권진숙. *관계문화 이론*. 서울: 신앙과 지성사, 2013.

김영석. *설득 커뮤니케이션*. 서울: 나남, 2008.

김영욱. *위험, 위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8.

김윤옥. *미래를 위한 여성들의 교회론*. 서울: 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 1993.

김재현. *하버마스 사상의 형성과 발전*. 서울: 나남출판사, 1996.

김혜란 and 최은영. *성서에서 만나는 다문화 이야기*. 대전: 도서출판사 대장간, 2013.

문시영. *공공신학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서울: 북코리아, 2008

박경미. *서구 기독교의 주체적 수용*.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6.

설진아. *소셜미디어와 사회변동*.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송인규. *일반은총과 문화적 산물*.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2.

이경숙. *구약 성서의 여성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이만열. *한국 기독교 수용사 연구*. 서울: 두레시대, 1998.

______. *한국 기독교와 역사 의식*. 서울: 지식산업사, 1990.

______. *한말 기독교와 민족운동*. 서울: 평민사, 1980.

이숙진. *한국기독교와 여성 정체성*. 서울: 한들출판사, 2006.

이원규. *종교사회학의 이해*. 서울: 나남출판사, 2006 .

이은선. *유교 기독교 그리고 페미니즘*. 서울: 지식산업사, 2003.

______. *유교, 기독교 그리고 페미니즘*. 서울: 지식산업사, 2003.

______. *포스트모던시대의 한국여성신학*. 왜관: 분도출판사, 1997.

______. *한국 여성조직신학탐구*. 서울: 책세상, 2007.

이현재. *여성의정체성*. 서울: 책세상, 2007.

임성빈. *21 세기 문화와 기독교*.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4.

______. *21 세기 책임윤리의 모색*.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2.

______. *한국교회와 사회적 책임*.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7.

정종훈. *민주주의를 꽃 피우는 공공신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9.

최만자 and 박경미. *새 하늘 새 땅 새 여성*. 서울: 생활성서사, 1993.

한국여성신학자협의회. *새롭게 읽는 성서의 여성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__________________. *영성과 여성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3.

[번역서]

Arent, Hannah. *The Human Condition 인간의 조건*. Translated by 문시영. 서울: 북코리아, 2007.

_____________. *The Last Interview and Other Conversations 한나 아렌트의 말: 정치적인 것에 대한 마지막 인터뷰*. Translated by 윤철희. The Hannah Arendt Bluecher Literary Trust: 마음산책, 2013.

Bauckham, Richard J. *Jesus: A very Short Introductuin, First Edition 예수: 생애와 의미*. Translated by 김경민. 서울: 비아, 2016.

Berger, Peter L. *The Desecularization of the world: Resurgent religion and World Politics 세속화냐? 탈세속화냐? 종교의 부흥과 세계 정치*. Translated by 김덕영 and 송재룡.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Daly, Mary. *The Church and the Second Sex 교회와 제 2 의 성*. Translated by 황혜숙. 서울: 여성신문사, 1994.

Habermas, Jürgen. *의사소통행위이론: 기능주의적 이성 비판을 위하여*. Translated by 장춘익. 서울: 나남출판사, 2017.

_______________. *의사소통행위이론: 행위합리성과 사회합리화* . Translated by 장춘익. 서울: 나남출판사, 2013.

*Hart,* Archibald D. *Secrets of EVE 여자도 잘 모르는 여자의 성*. Translated by 김종철 and 박진숙. 서울: 홍성사, 2003.

Horsely, Richard. *History and Society in Galiee 갈릴리 – 예수와 랍비들의 사회적 맥락*. Translated by 박경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6.

Janson, Tore. *The history of languages 언어의 역사*. Translated by 김형엽.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2.

Lerner, Garda. *The Creation of Feminist Consciousness 역사 속의 페미니스트*. Translated by 김인성. 서울: 평민사, 1993.

Loader, William., Megan K. DeFranza, Wesley Hill, Stephen R. Holmes. *Two Views on Homosexuality, the Bible, and the Church 동성애에 대한 두 가지 견해*. Translated by 양혜원. 서울: 한국기독교학생출판부, 2018.

Luhmann, Niklas. *열정으로서의 사랑: 친밀성의 코드화*. Translated by 정성훈, 권기, and 조형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09.

Machaffie. Barbara J. *Her Story: Women in Chistian Traditidion 기독교 전통 속의 여성*. Translated by 손승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5.

Marshall, Howard. *Jesus A AD 2000 역사적 예수*. Translated by 김경민. 서울: 성서유니온, 2015.

McLuahan, Marshall. *Undestanding Media: TheExtension of Man 미디어의 이해–인간의 확장*. Translated by 박정규.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1997.

Moltman, Jürgen.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공적인 신학의 정립을 지향하며*. Translated by 곽미숙. 서울: 문학동네, 1996.

Osmer, Richard R. *The Teaching Ministry of Congregations 교육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Translated by 장신근.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Robertson, Roland. *근대성, 탈근대성 그리고 세계화*. Translated by 윤민재.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2000.

Volf, Miroslav. *Exclusion and Embrace: A Theological Exploration of Identity, Othemess, and Recociliation 배제와 포용*. Translated by 박세혁. Arington Press: IVP, 1996.

Weber, Maxim ilian. *종교사회학 선집*. Translated by 전성우. 서울: 나남, 2008.

__________________.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Translated by 김현욱. 서울: 동서문화사, 2009.

Wire, Antoinette. *The Women of Emerging Christianity 원시 그리스도교의 잊혀진 여성들*. Translated by 조태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Wright, Nancy G., and Donald Kill. *Ecological Healing A Christian Vision 생태학적 치유 – 기독교적 전망*. Translated by 박경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3.

[저널 및 논문]

김현수. "자유주의자 vs 분파주의자 – 공공신학자 막스 스택하우스와 교회윤리학자스탠리 하우어워스의 논쟁." *한국 기독교 신학논총* 80 (April 2012): 277–301.

양정환. "글로벌 상황 하에서 공공성 실현을 위한 공적신앙과 기독교교육." PhD diss., 연세대학교, 2011.

이승구. "공적신학에 대한 개혁파적 접근." *미래목회포럼* (October 2008): 229–61.

임성빈. "한국교회의 사회참여를 위한 신학적 토대 모색 : 공공신학을 중심으로." *장로회 신학대학교 제 9 회 소망신학포럼 논문 자료집* (December 2008): 91–141.

[웹사이트]

폴 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목회자로 거듭나다." *기독일보*, February 22, 2018. http://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95358/20180222/%EC%84%B8%EC%83%81%EC%9D%98-%EB%B9%9B%EA%B3%BC-%EC%86%8C%EA%B8%88%EC%9D%98-%EC%82%AC%EB%AA%85-%EA%B0%90%EB%8B%B9%ED%95%98%EB%8A%94-%EB%AA%A9%ED%9A%8C%EC%9E%90%EB%A1%9C-%EA%B1%B0%EB%93%AD%EB%82%98%EB%8B%A4.htm.

김진영. "교회는 건물 아닌 사람, 한국 동성애 막아내길." *기독일보*, February 21, 2018. http://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95335/20180221/%EA%B5%90%ED%9A%8C%EB%8A%94-%EA%B1%B4%EB%AC%BC-%EC%95%84%EB%8B%8C-

%EC%82%AC%EB%9E%8C%E2%80%A6-%ED%95%9C%EA%B5%AD-%EB%8F%99%EC%84%B1%EC%95%A0-%EB%A7%89%EC%95%84%EB%82%B4%EA%B8%B8.htm.

[기타]

기독 일보. 2015 년 1 월-12 월, 3-15 면.

크리스천 위클리. 2015 년 1 월-12 월, 3-8 면.

미주 크리스천. 2015 년 1 월 -12 월, 2-9 면.